

I. 서론

1. 연구목적

가출을 한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비행청소년은 아니지만 가출과 비행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가출후 며칠 내에 먹고살기 위해서 비행을 저지르거나, 어른들의 착취 대상이 되던가 어떤 방식으로든 희생물이 되기 쉽다. 가출청소년을 위해서든 사회를 위해서든 이러한 가출청소년들을 빨리 거리에서 안전한 장소로 옮겨 놓는 것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들이 그대로 범죄, 약물, 성적 착취, 폭력 등에 노출이 되었을 때에는 그들 자신의 불행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막대할 것이다.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미 가출을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들이 더 이상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귀가조치’ 중심으로 마련해 왔다. 하지만 귀가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가출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도저히 귀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들도 있다. 이러한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사회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가출청소년을 원조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소수 몇몇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극히 일부분의 가출청소년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회적 지원의 확대가 요청된다.

가출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게 일시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게 임시적인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혹은 그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가출청소년에게 숙식과 자신

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가출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져 자신을 파괴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가출청소년에게나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가출청소년쉼터는 예산, 전문인력, 홍보, 수효 등 여러 면에 있어서 부족한 상태이다. 가출청소년 쉼터의 전국적 확산과 정착을 위한 최선의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외국사례조사, 설문조사, 가출청소년쉼터 방문조사, 쉼터 실무자 및 가출청소년 면담 등을 통해 가출청소년쉼터의 현황과 개선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운영모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항목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청소년쉼터 및 유관기관을 정부지원을 받는 가출청소년쉼터, 순수 민간예산으로 운영되는 가출청소년쉼터, 아동상담소, 장기 가출청소년 보호시설로 분류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출청소년 쉼터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가출청소년쉼터의 시설, 인력, 재정, 사업내용으로 나누어 가출청소년쉼터의 운영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문화관광부의 가출청소년쉼터 수급계획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가출청소년쉼터 설립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가출청소년에 관한 현황, 법률, 사회복지서비스, 보호시설 등을 문헌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국내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현황과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에 관한 문헌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인터넷 및 외국문헌을 통해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외국의 가출청소년 현황,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쉼터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문헌을 통해 가출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과 그들이 갖고 있는 욕구,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에서 가출청소년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다.

2) 조사연구

조사연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방문조사,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여기에서는 조사방법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만 소개하고, 각 조사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결과분석의 서두에 개별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국의 가출청소년 보호기관의 시설, 인력, 재정, 사업내용을 알아보았다. 설문조사는 1998년 5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소년쉼터 12개소, 장기보호시설 5개소, 아동상담소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사전에 전화연락을 통해 승낙을 얻은 관계로 전량 회수되었다.

(2) 방문조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출청소년 보호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인력, 재정, 사업내용을 조사하였다.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시설은 1998년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가출청소년쉼터 10개소, 장기보호시설 5개소, 아동상담소 2개소이다.

(3) 면접조사

1998년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직접 방문한 가출청소년보호시설의 장 및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시설의 현황, 문제점, 개선점 등을 알아보았다. 직접 방문하지 못한 기관은 전화를 통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1998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방문한 시설의 가출청소년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시설에서의 가출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요구 등을 알아보았다.

(4) 전문가 자문

가출청소년쉼터의 운영모델에 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자문 내용은 청소년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재정, 사업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자문을 요구하였다.

3. 선행연구 개관

청소년 가출의 원인과 가출 후의 생활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되어 왔지만, 가출청소년 쉼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출청소년 쉼터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대한성공회 청소년쉼터나 서울 YMCA 청소년쉼터에서 나온 운영보고서들이 있을 뿐이다. 가출청소년쉼터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는 원인은 현재 전국의 가출청소년 쉼터가 몇 개 안되며 그나마도 역사가 짧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라고 할 수 있는 서울 YMCA 청소년 쉼터는 1992년 10월 28일 개설되었다. 이곳에서는 거의 매년 운영보고서를 내 놓고 있다. 서울 YMCA 청소년쉼터운영지침서(1992)에는 청소년쉼터의 사업취지, 사업배경, 경과보고, 사업내용, 이용대상자, 운영원칙, 시설의 설치 및 장비, 인력, 쉼터 조직 및 조직표, 사업전망 등이 실려 있다.

1995년 5월 6일 개설된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청소년쉼터는 미국의 집단 가정(group home)을 그 모델로 삼았으며,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라기 보다는 가출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보호소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1996년 '가출청소년을 위한 치료적 보호센터로서의 청소년쉼터 사

레 연구'라는 가출여학생을 위한 중기보호소의 운영보고서 성격을 지닌 연구를 내놓았다.

대한 성공회는 또한 1998년 6월 개관을 목적으로 가출남학생들의 일시·단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림지역 청소년쉼터 운영계획안'을 내놓았다. 이 계획안에는 시설 위치 및 규모, 사업경비 조달계획, 사업대상과 사업의 필요성, 사업목적 및 목표, 서비스 전달체계구조, 사업내용, 사업진행과정 등의 사업개요와 조직체계 및 예산안이 실려 있다.

1997년에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나온 김성경의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에서는 중장기 보호시설에 있는 가출소녀 15명과 거리의 가출소녀 15명, 그리고 가출청소년 관련 전문가 24명을 대상으로 가출의 원인, 가출후 생활, 가출소녀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을 설문 및 면담 조사하여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가출소녀에게 제공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정보제공서비스, 장기주거서비스, 단기주거서비스, 상담서비스, 교육서비스, 재활서비스, 문화프로그램,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등을 들고 있다.

1996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나온 고성혜의 '가출청소년을 위한 「중간의 집」 설치방안 연구'에서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가출청소년을 보호·수용하는 단체나 시설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가출청소년의 적응을 돕기 위한 시설의 종류와 운영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설치방안 중 몇 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출청소년 보호·수용시설에서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실시 ② 가출청소년 보호·수용시설간의 관계망 형성 ③ 소규모 무인가 가출청소년 보호·수용시설의 법인화

1992년 4월 30일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개최한 '청소년가출의 예방과 대처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 및 중장기 보호시설의 설치방안에 관한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 심포지엄에서 박상혁은 가출청소년들이 의식주를 해결

하기 위하여 유흥업소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한 방안으로 건전한 직장을 마련해 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 심포지엄에서 서울시립 아동상담소장인 이영희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마련’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시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 보호시설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출청소년 중장기 보호시설의 문제점들과 해결방안을 외국의 사례를 들어 제안하고 있다. 그는 바람직한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은 소규모 가정형태이어야 하며, 전문적인 상담치료 기능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995년 서울 YMCA에서 나온 ‘외국 가출청소년 연구자료집’에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가출청소년에 관한 법령 현황과 대책이 실려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가출청소년쉼터의 모델이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며,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사례도 외국의 자료와 가출청소년쉼터에서 나오는 운영보고서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가출의 유형과 원인

최근 청소년의 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어린 가출청소년들이 윤락가로 전락하는 등 가출후 청소년의 비행이 대담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소년들에게도 가출이 비행의 연결고리 기능을 하는 위험신호이며, 특히 소녀들에게 있어서 가출은 여성으로서의 인생 전체를 수렁에 빠뜨리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소녀의 가출은 더욱더 위험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윤락여성의 91.6%가 가출경험을 갖고(한국여성개발원, 1993), 미혼모 중에서도 40.5%가 가출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함영희, 1996).

청소년이 가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그 가출 이유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무조건 가출청소년들을 귀가조치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가출이유를 충분히 들어보고 그에 따라 청소년과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가출청소년들이 왜 가출을 하는지, 가출동기에 따라 가출청소년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가출 후에 전개되는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가출청소년 쉼터나 가출청소년을 위한 다른 서비스의 방향과 내용이 정해질 수 있다.

1) 가출청소년의 정의

가출청소년에 대하여는 여러 학문 영역에서 다루어 오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개념적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단지, ‘집을 나온 청소년’이라는 문자적 서술에는 이견이 없을 뿐이다.

오래전부터 ‘집없는 떠돌이(homeless)’들이 많아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

국에서 가출(runaway)에 관한 연구도 더불어 많이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Opinion Research Corporation(ORC)에서 1976년에 실시한 ‘가출청소년에 대한 전국통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전체 청소년의 12.5%에 달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가출경험 청소년의 정의는 “부모의 동의없이 적어도 하룻밤동안 집을 나간 10- 17세 청소년”이다.

미국사회사업가협의회에서 발간한 사회사업백과사전에는 미국 보건복지성(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에서 규정한 가출청소년의 정의를 수록하고 있다. 즉, 가출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적어도 하룻밤 이상 집을 나간 청소년”이며, 집을 떠난 청소년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으며, 서비스 및 주거시설, 지도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Welsh등(1995)은 “부모의 허락없이 집을 떠난지 48시간 이상이 되어 가족에 의해 신고된 18세미만의 청소년”으로 규정하였고, Roberts(1987)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은 18세미만의 청소년”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복지를 규정하는 기본법령은 아동복지법으로 동법에서는 아동을 18세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요보호아동”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18세미만의 청소년으로서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되었거나, 이탈된 자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절한 가정의 아동을 일컫는다.

경찰에서 말하는 “요보호소년”은 주로 미아, 고아, 가출청소년 등 사회 보호를 요하는 청소년과 불량행위소년을 의미한다. 불량행위소년은 음주, 흡연, 싸움, 유흥업소 출입, 성도덕 문란행위(일명 풍기사범)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소년을 지칭한다. 경찰은 이런 요보호소년을 발견한 경우 소년경찰직무규칙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의거 보호하면서 24시간 이내에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보호시설, 의료시설 등을 통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의 청소년보호 및 비행예방임무는

미성년자보호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경찰에서는 청소년을 “미성년자”(민법상 성년의 반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20세미만자가 경찰의 요보호 대상이 된다.

이러한 요보호청소년과 불량행위 청소년은 보다 죄질이 무거운 비행소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들을 선도, 단속하는 것은 청소년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상에서 나온 가출청소년에 관한 국내외 정의들을 정리해 보면, 가출을 규정함에 있어 공통적인 기준은 첫째,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없이 가정의 보호로부터 이탈되는 것이며, 둘째는 적어도 하룻밤이상 집 이외의 장소에서 머무른다는 것이며, 끝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18세미만으로 보는 것이다.

2) 가출청소년의 유형분류 및 가출동기

왜 아이들이 가출하는가? 어린이, 가족 그리고 사회에 있어 가출의 의미는 불변의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 그 기능이 항상 변하는 듯하다(나동석·이용교 역, 1992: 34).

Albert R. Roberts(1987: 72-77)는 그의 연구 대상이 된 30명의 청소년들이 모두 세가지 공통적인 경험 - 가족문제, 학교문제, 약물문제 -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 첫째, 가출청소년은 가족관련문제를 가졌다. 둘째, 가출청소년은 낙제, 수업 빼먹기, 무단결석, 정학 등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 학교에서의 실패를 경험했다. 셋째, 가출청소년은 흔히 약물을 남용하거나 술을 마셨다.

미국의 연구에서 제시된 가출청소년의 분류체계로서 널리 인용되는 것은 Homer, Brennan, Miller, Roberts 등이 제시한 분류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7).

Homer(1973)의 분류는 가출동기에 따라 가출청소년을 탈출형(running from)과 추구형(running to)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탈출형」가출은 가족

문제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가출하는 것이며, 「추구형」가출은 가출자체를 즐기며 즐거움과 향락을 찾아 집을 나가는 것이다.

Brennan등(1975)의 분류는 가출전후의 행태에 따라 4가지 가출유형을 구분하는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은 계획하지 않고 짧은 기간동안 어쩌다 일어난 것으로 스스로 귀가하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유형은 심사숙고하여 주의깊게 준비한 가출로서 오랜기간 동안 지속되며 스스로는 돌아오지 않는다. 셋째 유형은 일시적으로 쾌락적인 곳을 찾아다니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가 일주일 이내로 돌아온다. 네 번째 유형은 편치 않는 가정을 잠시 벗어나기 위해 단 며칠 동안만 가출하는 것이다.

Miller등(1980)은 가출동기에 따라 부모 요인과 청소년 요인으로 나누어, 부모 요인으로 인한 가출청소년을 희생자(victims)·추방자(exiles)·반항자(rebels)로 명명하며, 청소년 자신의 요인으로 인한 가출자를 도망자(fugitives)·피난자(refugees)·이민자(immigrants)로 명명하여 구분하였다. 부모가 원인이 되어 가출하게 되는 유형으로서, 「희생자」는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 및 폭행을 당한 청소년으로서 부모를 적으로 생각하고 귀가는 위험한 일이라고 인지한다. 「추방자」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난 청소년이며, 「반항자」는 부모와의 심각한 싸움·갈등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이다. 청소년 자신이 갖는 문제가 원인이 되어 가출하는 유형으로서, 「도망자」는 자신이 범한 문제행동에 대한 처벌, 구속 등이 두려워 도망나온 청소년이며, 「피난자」는 가족은 없고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도망나온 청소년이다. 「이민자」는 즐겁지 않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벗어나 자유와 모험을 찾아 가출한 청소년이다.

Roberts(1987)는 비가출청소년·가출 탐험가·가출 조작자·가출피난자·위기에 처한 가출청소년으로 분류하였다. 「비가출청소년」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에 갈등이 크지 않고, 어떤 갈등이 일어나도 청소년이 가출하지 않고도 해결된다. 「가출 탐험가」는 모험심 때문에 그리고 독립을 과시하기 위하여 혼자 혹은 때때로 친구와 함께 여행하고자 가출을 갈망

한다. 흔히 청소년은 부모에게 여행의사를 알리지만, 부모는 자녀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느끼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청소년은 허락받지 않고 집을 떠난다. 「가출조작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형제와 친구는 자신과 비교해서 차이나게 대접받고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인식한다. 가출조작자는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서 “냉각기”(cooling off period)를 갖게 되면, 부모는 걱정을 하게 되고 자신의 뜻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희망으로 집을 떠난다. 가출조작자의 가출행위는 부모를 다루는 계산된 책략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관계를 거부하기보다는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가출을 시도한다. 「가출피난자」는 가출조작자가 직면한 갈등보다도 더 강한 갈등을 경험하고 갈등으로부터 충동적으로 달아나고자가출한다. 「위험에 처한 가출청소년」은 신체적 학대나 성적인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출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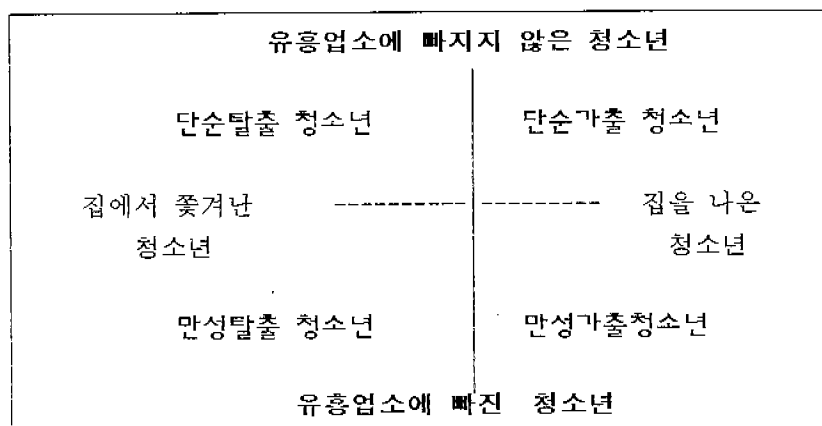
그러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출유형은 어떤 특성을 가지며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1992년 10월 28일 개설한 서울YMCA 청소년쉼터에는 1년5개월간 550명의 가출 청소년이 다녀갔다. 가출상담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볼 때 가출의 주요원인은 교우관계 41.8%, 가족관계 38.1%, 학교생활부적응 12.0%,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8.3%, 비행 7.8%,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7.9%, 약물이나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1.7%, 기타요인 4.2% 등으로 나타났다(서울YMCA, 1995).

이용교(1996)는 Homer의 탈출형·추구형 가출구분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유흥업소취업문제를 다른 요인으로 삼아, 4가지 가출유형을 제시하였다. 단순가출·만성가출·단순탈출·만성탈출 등 4가지 유형이다. 단순가출과 만성가출은 Homer식 추구형으로서 유흥업소에 취업하면 만성가출이 되고 업소에 취업하지 않으면 단순가출로 끝난다. 단순탈출형과 만성탈출형 가출은 괴로운 가정에서 벗어나고파 집을 나온 경우로서 단순·만성의 갈림길은 유흥업소라는 것이다(그림 1 참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의 연구에서는 가출의 결과에 따라 시위성·도피성·추출형 가출로 구분하고, 가출준비 여부에 따라 충동적·계획적 가출로 구분하며, 가출횟수에 따라서는 일과성·반복성 가출로 구분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 연구(1997)에서는 Homer의 분류를 기본으로 하면서 추방형 한가지를 덧붙여서 추구형·탈출형·추방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추방형 가출은 가정에서 버림을 당해 쫓겨난 청소년을 말한다. Roberts(1987)가 분류한 가출탐험가나 가출조작자가 추구형 가출에 속하고 가출피난자가 탈출형 가출에 속하고 위험에 처한 가출청소년이 추방형 가출과 유사한 형태의 가출로 볼 수 있다.



출처 : 이용교, 1996.

[그림 1] 가출청소년의 유형분류

최근에 발표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1997)에 따르면, 실제로 가출해 있는 소녀들이 응답한 가출동기는 과반수가 가족요인 때문이다. 현재 가출 중에 있는 소녀들이 직접 진술한 가출동기 중 57%가 가족요인 때문이고, 학교 및 또래 요인은 24%, 개인적 요인은 17%를 차지한다(표 2-1 참조).

<표 2-1> 가출소녀들의 가출동기

문제 유형	가출중인 소녀들의 의견		보호전문 실무자들의 의견	
개인적 인 요인	17%	· 집, 학교가 무조건 싫어서, 답답해서(4) · 일시적 충동(3) · 자유롭고 싶어서, 노는 것이 좋아서(2) · 사회에 대한 호기심(2)	16%	· 집, 학교가 싫어서(5) · 가정파괴로 인한 불안감, 소외감, 가정에 대한 기대감 상실(4) · 돈을 벌기 위해서(3) · 자유로움을 찾아서, 마음껏 놀고 즐기기 위해(3)
가족 요인	57%	· 부모, 가족의 신체폭력(11) · 부모의 이혼, 재혼, 가출(10) · 부모의 잔소리, 부모와 갈등(8) · 부모 불화(5) · 부모의 무관심, 차별대우(4)	37%	· 부모의 이혼, 재혼, 결손가정(8) · 부모의 불화(7) · 부모와의 갈등(불만, 반발), 부모의 이해부족(6) · 가족내 정서적지지 결여, 대화 부족(5) ·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가정환경(5) · 부모의 간섭, 방임, 무관심(5) · 부모의 신체학대, 가정폭력(4) · 알콜중독 부모(4) · 부의 강압적 태도, 이중모습(3) · 가정교육의 부재(3)
학교 및 또래요 인	24%	· 학업에 대한 흥미상실, 태만, 입시위주의 공부가 싫어서(6) · 또래부적응(놀림, 친구없음, 열등감) (3) · 가출친구의 유혹(3) · 체벌, 단체체벌(2) · 이성문제(2)	30%	· 입시위주 교육, 편협한 진로교육(10) · 성적비판, 학업에 대한 흥미상실(8) · 학교 중도탈락(자퇴, 정학)(7) · 친구의 유혹, 좋지못한 친구, 선후배관계(8) · 이성문제(5) · 억압된 학교환경(4)
사회적 요인	2%	· 취업광고의 영향(2)	17%	· 향락문화와 쾌락주의문화 만연, 향락, 소비문화에 접근용이(7) · 사회의 가치관 혼란(5) · 지나친 경쟁주의(5) ·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부재(3) · 권위주의와 신세대문화의 갈등(3)
총 계	100 %	응답수 72개	100 %	응답수 142개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 1997: 표V-1 및 표V-6을 본 연구팀에서 재구성함.

소녀들이 가출하게 되는 가족요인으로는 부모나 가족의 신체폭력, 부모의 이혼·재혼·가출, 부모의 잔소리와 갈등, 부모불화, 부모의 무관심·차별 등이 지적되었고, 학교 및 또래요인에는 학업에 대한 흥미상실, 태만, 입시위주의 공부가 싫어서, 또래 부적응, 가출친구의 유혹, 체벌, 단체체벌, 이성문제 등이 포함된다. 소녀들이 가출하게 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집·학교가 싫어서, 무조건 모든 것이 싫어서, 일시적 충동으로, 자유롭고 싶어서, 노는 것이 좋아서 사회에 대한 호기심 등으로 자유응답하였다.

이들을 직접 지도보호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에서도 가족요인(37%), 학교 및 또래요인(30%), 개인적 요인(16%)의 순서로 가출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 자신과 지도자와의 견해 차이는 청소년에 비해 지도자들이 가족요인에 비해 학교 및 또래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더 많이 지적하였다는 점이다. 가출소녀들이 사회적 요인으로 지적한 것은 “유흥업소 취업광고”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청소년지도자들은 이외에도 향락문화와 쾌락주의 문화의 만연, 향락·소비문화에의 접근 용이, 사회의 가치관혼란, 지나친 경쟁주의,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부재, 권위주의와 신세대 문화의 갈등 등을 가출을 부추이는 사회적 요인이라 지적하고 있다.

2. 가출청소년의 실태

<가출 청소년의 글- “가출한 서울”>

서울 그곳엔 차도 있고 전철도 있고 남대문, 동대문도 있지만 내가 간 서울은 부산보다 못했다. 그곳엔 뱃고동 소리도 못듣고 뱅뱅한 전철 소리, 기차 소리, 자동차 소리 밖에 없었다. 그곳엔 우리 집도 없고, 엄마 아빠 동생도 없다. 그래서 아줌마 아저씨 조그만 애들을 보면 우리 가족이 그리워진다. 우리 나라의 중심지라지만 인정은 매마르고 각종 매연이 내뿜어진다. 가는 곳마다 나쁜 형님이 있고

잠 잘 곳도 없는 도시이다. 아이들은 서울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간 서울은 부산보다 못했다. 학교엘 안 가니 길거리 상인,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이상히 쳐다보고 경찰만 보면 무서워진다. 날씨는 부산보다 추워 덜덜 떨었고 그때마다 우린 집 생각이 났다. 집에 가고 싶다. 그러나 차비가 없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사정도 할 수 없다. 눈을 감으면 코를 배어간다는 서울. 아이들은 무엇이 좋을까? 하루가 갈수록 우린 걱정이 되고 후회가 된다. 학교가 그렇다. 집이 그렇다. 친구도 보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된다. 잠 잘 곳이 없어 전화 박스에서 자고, 취직하려다가 전화비만 날렸다. 신문사엔 안 받아 주고 가는 데마다 우린 가솔 소년이라 안된다 했다. 강패를 만나면 도망갔다. 그럴수록 집이 그리워졌다. 우린 역 대합실에서 잤다. 배는 고파도 잠은 잘 왔다. 한참 자다 눈을 떴다. 어느 아저씨가 우릴 경찰서에 넘겼다.(청소년 가솔 어떻게 할 것인가, 1994)

1) 신고된 가출청소년 현황

(1) 경찰청 신고 현황

요보호청소년은 미아, 가출 등 사회보호를 요하는 청소년을 말하는데, 경찰은 이런 소년을 발견한 경우 소년경찰직무규칙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 보호하면서 24시간 이내에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보호시설, 의료시설 등을 통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미아, 가출청소년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182신고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수용시설(영아원, 육아원, 양로원, 복지원)에 보호된 자들의 인적사항도 전원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청소년백서, 1997: 524-525).

그러나 현행 미아·가출인 수배방법은 대상자의 인상착의, 인적사항, 신체적 특징 등을 문자식으로만 전산입력 관리하므로 신속히 찾지 못해 가족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1995~1997년간 4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행 문자식 검색방법을 첨단사진 영상처리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완료 운영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182 신고센터'에 1995년 한해동안 신고된 20세미만 가출 청소년의 수는 16,013명인데 비해 1996년에는 19,320명으로서 20.7%(3,307명) 증가하였다. 청소년가출이 과거에는 주로 봄철에 발생했으나 근래에 와서는 연중 발생실태가 비슷한 추세이다. 이는 레저산업의 급증과 다양해진 생활환경에서 오는 것으로 풀이되고 또한 청소년의 가출은 지나친 간섭에 대한 반항심리와 가정에서의 무관심에서 오는 탈선이라고도 볼 수 있다.

<표 2-2> 연도별 보호대상자 발생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1993	1994	1995	1996
계	46,854	40,261	43,843	47,050
미 아	6,651	4,396	3,726	3,111
가 출	40,203	35,865	40,117	43,739

출처 : 청소년백서, 1997.

<표 2-3> 가출인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명)

구분	발 생	연 령		처 리			
		20세미만	20세이상	보호자인계	수 용	수 배	합심운용
1993	40,203	11,933	28,270	18,170	606	19,740	1,147
1994	35,865	13,522	22,343	21,848	590	12,433	994
1995	40,117	16,013	24,104	19,141	928	20,048	125
1996	43,739	19,320	21,419	23,574	742	19,423	812

출처 : 청소년백서, 1997.

(2) 교육부 신고 현황

교육부에서는 전국의 중고교를 대상으로 가출학생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고교 재학중인 가출청소년의 수만 집계되기 때문에, 미진 학자나 취업중인 청소년, 그리고 초등학생 가출은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다.

표에서 보듯이, 가출학생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연도별로 볼 때 매년 가출학생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95년도에는 21,517명으로 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전년도 대비 89%)하는 시점이 있음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 어떠한 사회문화적·교육적·경제적 사건이 있어서 이처럼 학생가출이 급증했는지를 세밀히 분석해 봐야 할 것이다. 가출학생의 남녀 비율면에서는 여학생 가출('96년간 11,711명)이 남학생 가출(9,445명)을 앞서고 있다.

<표 2-4> 신고된 가출학생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인원(명)	6,984	10,500	11,008	9,235	11,363	21,517	21,156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 1997: 41쪽의 본문내용을 재구성함.

2) 발견된 가출청소년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출청소년을 발견하면 우선 귀가조치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경찰, 지방 행정기관 등은 물론이고 민간단체에서도 가출청소년을 발견하면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인계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청소년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도아동상담소로 인계되는 처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방 경찰이나 행정기관에 의해 적발된 가출청소년의 수는 현

재 집계되지 않고 있으므로(한국여성개발원, 1997), 본 보고서에서는 서울 지역에서 발견되어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 입소된 가출청소년의 수와 일부 민간단체에서 1996년 한해동안 발견한 가출청소년의 수를 예시하고자 한다.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 입소된 18세미만 가출청소년은 연간 738명으로 보고되어 있으나(한국여성개발원, 1997), 이 중에는 6세이하 아동이 71명을 차지하고, 7- 12세 아동이 194명이고, 중고교생 연령대인 13- 18세 청소년은 373명에 불과하다.

한국청소년선도회에서 1996년 한해동안 선도한 가출청소년은 853명으로서, 이중에 가출소년이 154명인데 비해, 가출소녀는 698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보아, 가출아 중 소녀의 비율이 소년보다 4.5배이상 많았다. 이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여자청소년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수치이다.

3)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현황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사

1997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및 정책연구」를 통하여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중고교에 다니는 일반청소년집단과, 근로·무직·학교중퇴 등 경험이 있는 요보호청소년집단의 2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의 표본을 추출하여 가출비율을 보고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청소년은 9.9%가 가출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요보호청소년은 52.5%가 가출경험을 보고하였다. 다시말해, 요보호청소년은 중고교 재학생에 비해 과거의 가출경험이 5배이상이 되었다. 이는 가출은 곧 학교중퇴, 무직, 근로자 등으로 연결되는 비행의 지름길임을 시사하는 수치이다.

<표 2-5>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가출경험율

	일반 청소년 (중·고 재학생)		요보호 청소년 (중퇴·무직·근로)	
	가출경험자	가출경험율	가출경험자	가출경험율
남자 청소년	85명	11.5%	83명	50.6%
여자 청소년	84명	8.4%	52명	55.9%
계	169명	9.9%	135명	52.5%

출처 :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 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1997

(2) 서울YMCA 조사

1991년과 1996년에 걸쳐 3차례 실시한 서울YMCA의 가출실태조사에서도 종교교에 다니는 일반청소년의 10%내외가 가출을 경험한 적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서울시정연구원의 연구결과(9.9%)와 거의 근접하는 수치이다.

또한, 실제로 가출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가출 충동을 느꼈고(74%), 중고생의 14%는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 중 24%가 유흥업소에 취직한 경험이 있고, 가출청소년찾기 본부에서 구출한 가출청소년의 절대다수가 유흥업소에서 먹고 자고 일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출경험자중 70%는 1-2번의 가출에 그쳤으나, 30%는 3번이상 가출한 상습자였다. 이는 ‘단순가출자’와 ‘상습가출자’를 구분하여 대책을 세워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공통적으로 상습가출자나 만성가출자가 장기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유흥업소 등에서 먹고 자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가출하고 일단 나오면 가출이 장기화된다는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표 2-6> 서울YMCA가 조사한 가출경험률

조사 시점	1차 조사(1991. 11)	2차 조사(1996. 1)	3차 조사(1996. 11)
대 상	서울거주 중고생 2,409명	7대도시 거주 중고생 5,232명	서울거주 중고생 2,123명
남자 청소년	13.3%	19.7%	24.7%
여자 청소년	5.1%	8.7%	10.8%
계	8.4%	14.3%	14.8%

출처 : 가출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나 (1991. 11)

서울 YMCA 청소년쉼터 개설 3주년 기념 워크숍 자료집 (1996. 1)

청소년 가출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1996. 11)

4) 가출이후 당면문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1997: 84-85)에 따르면 가출 소녀들이 표출한 문제로 주거문제, 경제적 어려움, 직업문제, 교육문제,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문제, 건강문제, 가족 문제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주거문제, 경제적 어려움, 직업문제는 모두 의식주 해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서,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식주 해결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1) 의식주 해결의 문제

가출청소년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의식주 문제이다. 경찰이나 공권력을 피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가출청소년들은 노동착취나 성적인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의식주 해결을 위해 비행을 저지르기도 쉽다.

(2) 교육 문제

가출청소년들은 무단가출로 인해 자퇴 처리되어 자의·타의에 의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거나,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교과과정 이수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고연령의 문제와 자퇴한지 오래되어 일반학교에 복귀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대안교육과 직업교육, 위탁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갖게되는 문제이다.

<표 2-7> 가출소녀의 가출이후 당면문제

문제 유형	가출중인 소녀들의 의견		보호전문 실무자들의 의견	
주거 문제	20%	· 현 주거지 이후 갈 곳이 없음 · 간섭없는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지만 그런 곳이 없음	15%	· 가출촌에서 집단생활로 불량집단화 · 무책임한 동거 · 보호받으며 거주할 공간부족 (단기/장기 쉼터) · 무절제한 생활습관
경제적 어려움	19%	· 돈이 부족함	3%	· 돈이 없어 비행에 빠짐 · 빚을 지고 있음 · 불안정한 소득/무계획적 지출
직업 문제	17%	· 원치않는 직업에 종사 · 희망하는 직업을 위한 준비부족 · 희망하는 직업이 없음	7%	· 불법취업으로 노동/임금 착취 · 원하는 직업과 실제자격의 차이 · 희망직업이 없이 쉽게 돈버는 일에 관심
교육 문제	15%	· 연령문제로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없음 · 공부에 집중되지 않음/교과과정을 따라갈수 없음 · 학력에 대한 고민 · 특기교육을 받을 수 없음	12%	· 공교육으로부터 단절 · 성취동기가 약해 체계적 교육(공교육·직업교육)이 곤란 · 학교복귀를 원하나 실체는 어려움 · 학교복귀해도 학교에 부적응 · 공부에 집중력 부족 · 직업교육교과와 희망직종간 차이 심함
정서 문제	13%	· 외로움/우울감 · 장래/현재생활/귀가 불안감 · 사회의 낙인에 대한 두려움 · 분노/참을성 부족 · 타인에 대한 신뢰감 부족	20%	· 불신감, 분노 · 외로움, 고립감, 소외감, 단절감 · 열등감, 자책감 · 안정, 수용에 대한 갈망 · 돌아다니고 싶은 충동 · 현재생활, 장래, 귀가에 대한 불안감
건강 문제	4%	· 식사불규칙으로 건강이 우려 · 건강아빠나 진료받지 않음	11%	· 성병, 낙태문제 · 흡연, 음주, 약물남용 · 위장병 · 무보험, 의료기관 불이용
가치관 문제	0 (응답 없음)		20%	· 건전한 가치관 부재 · 향락주의, 쾌락주의, 소비주의 · 노동의욕 없이 돈만 벌고자 함 · 부정적 미래관, 결혼관 · 원조기관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 · 무책임한 자유 동경
기 타	12%	· 새사람 사귀기 곤란 · 친척관계가 나쁨 · 가족으로부터 거부 · 아버지에게 구타당하는 가족들	12%	· 가정폭력 · 부모-자녀관계 악화, 가족거부 · 열악한 가정환경 · 피상적, 일회적 인간관계/이성관계

출처:한국여성개발원, 1997: 표V-3 및 표V-7을 본 연구팀에서 재구성함

(3) 정서 문제

가출은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언어적, 신체적, 성적 학대의 경험은 가출청소년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일이다. 가출청소년들은 이러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의 신체적·언어적 학대에 의해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기 쉽고, 그로 인한 많은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출이 후에는 이러한 정서문제가 더욱 나빠져서 심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으로 발전하여 극히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게 됨으로써 공격적, 우발적, 자포자기적 행위를 표출하며 비행으로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3. 가출과 비행과의 관계

가출의 원인으로는 ‘가출로 떠나는 혐오요인’과 ‘가출로 끌어내는 매력요인’의 두가지 요인이 있다. 가출로 떠나는 혐오요인은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나 성적위주의 왜곡된 학교교육 등이 포함되고, 가출하도록 이끌어내는 매력요인은 친구집단의 압력, 유흥업소의 환락적 분위기와 향락산업 등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가출청소년을 필요로 하는 향락산업의 변창은 매우 중대한 사회적 매력요인이다. 도시와 시골, 상가와 주택가를 구분하지 않고 우후죽순처럼 퍼져있는 카페, 레스토랑, 룸살롱 등 서비스업과 사창가 등의 ‘성(性)산업체는 끊임없이 ‘영계’ 종업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서비스업체와 성산업체는 ‘초보환영·숙식제공·선불가능’ 등을 미끼로 하여 가출청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종업원을 모집하고,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낮에 거리에서 청소년들을 유인하거나 납치하여 ‘인간시장’을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가출 경험 청소년이나 가출하지 않은 중·고등학생들도 청소년이 가출하면, 유흥업소나 공장에 취업한다는 것을 거의 모두 알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 1> 「가출에서 보도집까지」

10대 고교생이 보도집을 운영, 6개월만에 3천여만원을 벌고 가출여학생들의 상당수가 보도집을 통해 유흥업소 등에 접대부로 생계를 이어가는 등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황금만능주의에 물들고 있다.

광주시내에만 50여개 이상의 「보도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 정도가 10대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지난해 10월부터 「라인보도집」을 차려놓고 윤락을 알선해 온 혐의로 고교생 김모군(18. 광주 모고교 2년)과 이모군(18. 중학중퇴)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군 등은 17-23세까지 여성 70여명을 모집한 뒤, J단란주점 등 시내 유흥업소에 접대부와 매춘부로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지난 6개월 동안 3천 2백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과 이군에 따르면 『시내에 명함만 뿌리면 가출 여중·고생, 여대생, 직장여성들이 줄을 선다』면서 『가출 여학생의 경우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데다 사치를 하고 싶은 욕심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빠져 보도집을 찾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모여고 2년을 중퇴하고 가출한 김모(17), 홍모 양(17)의 경우도 집에서 훔쳐온 돈이 바닥하자 지난 3월부터 이 보도집에 전화를 걸어 접대부와 매춘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의 「보도집」은 대략 50개 이상이며, 보도집을 통해 접대부와 매춘생활을 하고 있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은 2천-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영남일보, 1997. 6. 2)

<사례 2> 「가출에서 단란주점까지」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과 심지어 티켓다방까지 가출여고생 등 청소년들을 무분별하게 유혹하고 있으며, 이들의 가출은 상당수가 불량학우의 꾀에 빠져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부산지방경찰청이 일선 구·군청 및 청소년선도위원들과 합동으로 연인원 1천1백8명의 인력을 동원해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펼친 「가출 청소년 찾기」유흥가 일제단속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총 1백 72명을 적발, 그중 1백47명을 부모에게 인계했

으며 22명은 자진귀가 조치했으나 만 20세가 넘는 3명은 본인들이 귀가를 거부해 부모에게 통보 조치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15명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종업원 생활을 하던 중 발견됐으며 티켓다방에서도 3명이나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무려가 주점과 주유소 등 기타 장소에도 1백 22명의 청소년들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면서 이곳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출 청소년들의 가출 동기로는 상당수인 61명이 학교친구의 권유와 꾀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불량학우와의 교제가 주요원인으로 드러났으며, 결혼가정을 비판해 가출한 청소년도 31명에 달하고 있다. (영남일보, 1997. 6. 2)

<사례 3> 「가출에서 영계촌까지」

실제로 「영계촌」, 「여고 가출촌」으로 불리는 유흥가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어처구니없게도 『성개방 풍조에 여학생들의 가출이 늘면서 미성년자들이 제발로 찾아오는 것도 성학대냐』고 반문한다. 잠실 신천역 부근에서 10대 접대부를 고용해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도씨는 『광고만 내면 소녀들이 한 달에 수십 명씩 찾아온다. 이들은 「무슨 일이든 할 테니 돈만 벌게 해 달라」며 매달리는데 굳이 마다해야 하느냐』고 했다.

이런 현상의 밑바닥에는 「어린 접대부」를 원하는 천박한 남성위주 문화와 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불건전한 상혼이 깔려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카페는 10대 접대부를 고용해 특특히 수입을 올린다. 접대부 2명중 1명은 불과 만14세의 여고생, 어른처럼 짙은 화장을 하고 긴 드레스를 입었지만 얼굴에 나타나는 어린 티를 없앨 수는 없었다. 이 술집 주인은 『손님들이 소문을 듣고 이 아이를 보기 위해 찾아온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처음에는 술 따르는 일만 하다 20세도 되기 전에 본격적인 윤락녀로 나서는 경우도 흔하다. 『1년전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영등포에서 6만원씩 받고 술자리에 앉기만 했어요. 하지만 주인이 자꾸 「외박」을 강요해 할 수 없이 몇번 웅했어요. 그러다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수입도 괜찮아 이 길로 나섰어요』 서울의 대표적인 윤락가인 「미아리 텍사스」에서 만난 접대부 이모(16)양의 고백이다. (영남일보, 1997. 6. 2)

4. 가출청소년보호의 법적 근거

1) 관계법령 개관

우리나라의 청소년관련 법령에서는 가출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탈하는 자”,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자” 등으로 주로 처벌과 규제를 염두에 둔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에 대한 복지적 보호조치는 미흡하고, 싫어서 나온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1차적인 보호조치로 규정하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따라서, 경찰이나 아동복지지도원과 같은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가출청소년을 발견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돌려보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쉼터와 같은 민간시설의 보호지도자들은 청소년이 원하지 않으면 가정에 억지로 돌려보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미 양육능력을 상실한 가정으로 청소년을 억지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모순은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보호시설을 청소년들이 회피하는 여러 가지 이유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가출청소년을 귀가만 시킨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관련법에서는 향후 이러한 보호개념상의 법적 모순을 해소하고, 민간의 청소년보호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청소년관련 법률의 두 번째 문제는, 청소년복지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보호법에는 유해매체물·약물·업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정들만 있을 뿐, 가출, 폭력과 같은 유해한 행위나 행태로부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지원규정들이 빠져있다.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서도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수련활동, 교육, 직업훈련, 의료보호 등을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출청소년, 불우청소년과 같이 요보호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시설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이 단지 선언적인 규정에 머무르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도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긴 하나, 이 법 역시 가출청소년을 귀가시키는 것이 우선적이고(제11조), 귀가조치시킬 가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2조). 그래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에도 보호자가 없는 고아, 기아, 미아 등을 양육하는 「육아시설」과 가출아, 부랑아 등을 일시적으로만 보호수용하는 「아동일시보호시설」에 관한 규정만 들어 있다. 무엇보다도 가출청소년을 위하여는 아동복지시설에 그룹홈과 같은 소규모 장기주거시설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요청되는 바이다.

2) 복지시설 수용아 보호

아동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키워지며, 가정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다. 그러나 아동이 이러한 환경을 가질 수 없거나 가정에서의 양육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저해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하여 정부는 아동을 복지시설에 수용하여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게 된다.

아동복지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11조 (보호조치)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를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훈계하거나 서약서를 제출시키는 것
2.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3.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4.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그 보호를 위탁하는 것
5. 특수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아동 및 임산부에 대하여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성격과 행동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다른 선도기관에 의뢰하는 것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아동 또는 임산부를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2조 (시설보호조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요보호아동과 요보호임산부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동보호 시설의 설립은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수용 보호해야 했던 사회적 요구의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그 이후 아동 보호시설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 되었는데 1970년대 이후 요보호 아동의 발생 감소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요보호 아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조치는 아동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인데 이는 대리 양육환경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로는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시설 형태별로 보면 영·육아시설 등 수용보호시설과 아동상담소와 같은 이용시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수련장, 과학관 등 전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96년 12월말 현재 수용보호시설은 273개소에 17,319명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조 (아동복지시설)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다음의 시설로 한다.

1. 아동상담소: 아동 및 입산부의 복지에 관하여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영아시설: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육아시설: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이상 18세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89·9·19>
5. 아동일시보호시설: 가출아동·부랑아동 기타 요보호아동을 일시 입소시켜 보호하고 아동의 내력·성정 및 희망 등을 조사·감별하여 그 아동에 대한 장래의 양호대책 기타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직업보도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12세이상의 아동과 빈곤한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조산시설: 요보호입산부를 입소시켜 조산을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삭제 <89·9·19>
9.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 전시시설, 아동휴양숙박시설, 야영장등으로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정서를 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교호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아동입양위탁시설: 요보호아동을 일반가정에 입양 또는 위탁하여 보육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2. 정서장애아시설: 정서장애의 정도가 가벼운 아동을 단기간 입소시켜 수용·보호하거나 보호자로부터 위탁받아 통원시켜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3.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한 기간 숙소 또는 음식을 실비로 제공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성적 착취·폭력으로부터 보호

청소년가출은 곧바로 범죄 및 성비행과 직결된다. 매년 최소한 2만명이상의 청소년이 가출하는데, 단속기관의 추산으로는 이중 85%가량은 가정으로 복귀하고 나머지 15%는 계속 가출상태로 사회내에서 가정없이 떠도는 장기 가출아로 추정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1998).

최근들어 나이 어린 소녀들-다수가 여중생-의 성(性)을 상품화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업주들의 부도덕한 상업주의와, 어린 소녀들을 성탈선의 대상으로 찾는 성인남성들의 퇴폐적·변태적 성욕구와, 돈만 준다면 몸도 아깝지 않게 줄 수 있다는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의식이 맞아 떨어져 여자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락행위가 성행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윤락행위의 타겟이 되는 집단이 가출한 소녀들이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돈이 필요하고 저연령·저학력으로 돈을 쉽게 벌수 있는 방법은 윤락이 가장 손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출소녀들이 티켓다방, 단란주점 등에 고용되어 윤락행위까지만다 하여도 이들을 이용하여 중간에서 돈을 뜯어 내는 업주와 빼끼, 보

도집 등으로 번돈을 빼앗기고 실제로 소녀들은 돈을 벌지도 못한채 빚만 뒤집어 쓰고 몸만 버리는 등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적 착취 또는 성폭력의 개념에 관하여는 '94년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범죄”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첫째, 형법상 ‘성폭속에 관한 죄’ 중에서 음행매개(242조), 음화등의 반포(243조), 음화등의 제조(244조), 공연음란(245조) 등의 죄가 대상이 된다.

둘째, 형법상 ‘약취와 유인의 죄’ 중에서 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등(288조), 약취·유인·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292조), 상습범(293조), 미수범(294조) 등의 죄가 대상이 된다.

셋째,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중에서 강간(297조), 강제추행(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299조), 미수범(300조), 강간등 상해·치상(301조), 강간등 살인·치사(301조의2),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302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305조) 등의 죄가 대상이 된다.

넷째, 형법상 강도강간(339조)의 죄가 대상이 된다.

다섯째,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8조), 13세미만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8조의2), 강간등 상해·치상(9조), 강간등 살인·치사(10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11조), 미수범(12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14조) 등의 죄가 대상이 된다.

형법 제242조는 성적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18조제5호에서는 18세미만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자에 대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4조에서는 윤락행위를 금지하고,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기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및 윤락 행위를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그 처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풍속영업소에서 윤락 행위 또는 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43조·244조에서는 반포 또는 판매 등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음란물의 제조·반포를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형법 제245조에서는 공공연히 연극등 음란한 공연을 하는 자에 대하여도 음란물배포와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특별히 금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없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18조제11호에서 아동에게 음란물을 전시·공연·방송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나, 이 규정의 실제적 효과가 모호하다.

성폭행의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은 스스로 고소할 수 없으며 법정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가 법정 대리인일 경우(아버지 또는 시설 내 아동의 경우는 시설장)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를 인지한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특히 아버지 등 직계 존속인 경우 어머니가 대리 고소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가정의 파괴를 원치 않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없는 경우 고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성적학대와 성폭력의 경우 결정적 증거는 아동에게 있으나, 아동의 진술이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159조는 16세미만자를 선서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법정의 모든 절차를 견딜 만큼 강하다면 증언할 수 있지만 그 증언의 채택 여부는 법정의 권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어린이·청소년 권리연대회의, 1997:224).

4) 경제적·노동 착취로부터 보호

IMF체제로 인해 국내 노동시간의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일반 실업율의 증가와 함께 청소년들의 실업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의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97년도에 청소년실업율이 7.7%이었던 것에 비해 98년 4월에는 15.1%로 2배 증가하였다. 또한, 인문계 고교생에 비해 일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뒤떨어지거나 가정경제가 빈곤한 실업계 고교생들의 중도탈락율도 상당히 높다. '97년도에 중도탈락한 중·고생 중에서 실업계 고교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50.5%에 달한다(청소년보호위원회, 1998). 실업고생이 전체 학생인구 중에서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중퇴생 비율이 과반수라는 사실은 실업고생이 청소년문제의 최대위험집단임을 시사한다.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 실직가정이 늘어나고 청소년가출과 중퇴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노동여건 역시 악화되고 있다. 가출청소년들이 법규정에 무지하고 주로 소규모 사업장(주유소, 패스트푸드점, 가내공장 등)에 불법취업하는 악점을 이용해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소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동법 제62조·63조에 따르면 15세이상인 자만을 고용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인 자를 연소근로자로 보호하고 있다. 15세 미만자가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의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직종을 지정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취직 인허의 금지직종으로는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사용금지 직종은 물론,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숙박·요식업소 업무, 엘리베이터의 운전업무 등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직종 등이 있다(제63조). 18세 미만자는 갱내

작업, 고압전기 기구 취급, 5미터 이상의 땅굴에서의 업무, 진동이 심한 업무, 2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 취급 업무 등 유해 위험 직종에 대해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시행령 제37조)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18조에서는 누구든지 14세미만의 아동에게 공중의 오락·휴식을 목적으로 곡예를 시키거나 주점 등 접객영업에 종사 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형법 제274조에서는 아동의 친권자 또는 보호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아동을 혹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친권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6세미만 아동을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를 시킬 영업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를 5년이하의 징역에 처벌함은 물론이고, 아동을 인도받은 영업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덧붙여,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청소년이 신체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18세미만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18세미만 연소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반면 18세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67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 근로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는 1주일에 12시간 범위내에서 가능한 반면, 18세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 보호를 하고 있다.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야업 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 사이)와 휴일 근로를 금지하고(제68조), 갱내근로도 금지하고 있다(제70조).

연소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과 최저임금을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하면, 친권자 등은 아동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친권자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8세 미만 근로자도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이후에는 최저 임금법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여 연소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보호하고 있다(제5조).

연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12장에서는 각각 별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동 특별보호 규정의 준수를 위해 전국의 45개 지방노동사무소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및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와 시간제 임시노동의 경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민간단체에서는 비판하고 있다(어린이·청소년 권리연대회의, 1997: 223).

5. 가출예방 보호대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1)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유형 분류

Kahn(1973)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세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다. 접근서비스, 원조·치료·재활 서비스, 및 사회화·발달촉진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한국여성개발원(1997)에서 수행한 가출청소년연구에서 사용한 Kahn의 서비스 분류체계를 그대로 따라 현행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고 대책을 정리하였다.

(1) 접근서비스

접근서비스(access services)는 서비스대상자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결시키고 서비스로의 접근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기 위하여 양자를 중개하는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대상자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옹호, 법률지원, 긴급지원, 음부즈만(ombudsman), 대상자 교육, 자조집단 구성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원조·치료·재활 서비스

원조·치료·재활 서비스(social services for therapy, help and rehabilitation)는 개인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켜 주거나, 가족과 같은 일차적 사회화 주체(socializing agent)의 기능을 보강하거나 대신함으로써 문제를 가진 개인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의 목표는 손상된 개인의 적응기능을 가능한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 위협하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탈에 대한 사회통제를 담당하기도 한다.

(3) 사회화·발달촉진 서비스

사회화·발달촉진 서비스(social services for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는 가족과 같은 일차적 사회화 주체가 담당했던 양육, 생활교육 등의 기능을 더 이상 가족이 담당할 수 없을 때 사회복지서비스가 담당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물리적인 양육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규범으로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가치관, 태도, 행동방식 등을 아동에게 가르치는 인지적·정서적·도덕성 학습 등 전반적인 발달수준의 향상과 관련된다. 말하자면, 의식주 제공은 물론이고, 생활교육 또는 인성교육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2)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출청소년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분류하면, 가출청소년을 위한 접근서비스는 각종 상담실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서비스, 선도서비스, 거리상담을 들 수 있고, 치료·원조·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로는 아동상담소, 청소년쉼터, 선도보호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상담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회화 및 발달촉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한국여성개발원, 1997.)

<표 2-8> 청소년관련 상담기관 현황(1996년)

유 형	운영주체	운영 개소	상 담 요 원	상 담 영 역
학교상담실	교육부 (각급 학교 및 교육청)	○ 2,850개소 - 중 1,422 - 고 1,363 - 교육청 65	○ 5,819명 - 진로지도교사 : 2,785명 - 자원봉사자 : 3,034명	○ 학습·진로 등에 관한 상담
아동상담소	보건 복지부	○ 51개소 - 공립 : 13 - 사립 : 38	○ 379명 (아동복지지도위원 등)	○ 아동상담, 일시보호
부녀상담소	보건 복지부	○ 120개소	○ 691명 - 부녀상담원 : 372명 - 부녀전담요원 : 319명	○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사후선도
노동상담실 지방노동 사무소 민원상담실	노 동 부	○ 46개소	○ 66명 - 신입상담원	○ 여성 및 근로 청소년들의 제반 고충 상담
경찰서산하 청소년 상담실	경 찰 청	○ 223개소	○ 1개소당 선도위원 등 자원봉사자 1- 2 명 배치 : 300여명	○ 가출청소년 선도 및 비행예방 상담
청소년대화의 광장	문화 관광부	○ 1개소		
시·도 청소년 상담실	문화관광부 (시·도)	○ 15개소	○ 153명 - 상담요원 : 90명 - 자원봉사자 : 63명	○ 청소년생활 고충 상담 및 자아개발 등 인성교육 실시
시·군·구 청소년 상담실	시·군·구	○ 43개소	○ 136명 - 상담요원 : 69명 - 자원봉사자 : 67명	○ 청소년생활 고충 상담 및 자아개발 등 인성교육 실시
민간상담실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법 인 등	○ 130개소	○ 594명	○ 청소년생활 고충 상담 및 심리검사 등
합 계		3,452개소	8,139명	

출처 : 청소년백서, 1997.

(1) 접근 서비스 현황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반 문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공공 또는 민간의 기관·단체는 전국적으로 3,452개소에 달한다. 이와같이 청소년상담기관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상담의 전문화와 상담의 성과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상담소가 생활 전반의 고충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긴 하나, 특별히 가출청소년의 보호에 필요한 전문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가출청소년을 중점대상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에 불과한 실정이다.

선도서비스도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공무원이나 민간선도위원이 선도활동을 벌일 때 발견된 가출청소년들은 경찰에 연락하여 귀가시키거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상담소로 이송한다. 그리고 가출청소년이 비행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면 경찰에서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범죄로 처리한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선도서비스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일종의 긴급지원(outreach service)서비스로 볼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7).

그러나, 이와같은 현행 체제는 바람직한 현장긴급지원서비스로 볼 수 없으며, 좀더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의뢰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가. 청소년상담소

가정에서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교육의 일반원칙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고 학교는 지식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어서, 가정과 학교가 청소년들의 인간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정, 학교, 사회의 교육으로는 미흡한 인간교육을 전문화된 인간교육에 기초한 상담활동 등을 통해 보완하는 청소년 지도육성 정책이 절대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같은 사회적, 시대적 요구의 결과로 문화관광부는 1990년에 상담을 청

소년정책의 주요과제중 하나로 채택하였고, 1991년 12월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상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법에 근거하여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의 건전육성 차원에서 청소년 상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청소년 상담정책을 적극 추진하려는 방침 아래, 청소년 상담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중앙차원의 청소년 상담기관인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 광장』을 설립하였다. 이외에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이 전국에 15개소가 있다.

나. 여성복지상담소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됨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와 각종 산업재해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요보호여성(가출여성, 저소득모자가정, 미혼모, 윤락여성 등)의 발생 개연성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선도를 위한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2-9> 여성복지상담소 상담실적

(단위 : 명)

연도	부녀 상담원수	상담자 총 수	조치 현황						
			선도 귀가	시설 입소	보호 알선	직업 알선	치료 의회	교육및 조언	기타
1992	372	308,074 (3,319)	16,790	2,632	32,991	17,553	7,230	188,989	41,889
1993	375	301,122 (4,145)	13,158	2,809	30,608	19,329	5,891	196,821	32,506
1994	376	299,839 (3,589)	11,579	2,860	24,496	22,142	5,681	186,094	46,987
1995	408	275,069 (3,326)	7,968	2,902	15,992	32,272	3,812	179,039	33,084
1996	406	244,884 (3,741)	9,494	2,876	16,834	16,347	3,724	172,750	22,859

주 : 상담자 총수중 ()는 가출자임.

출처 : 보건복지부, 1997.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사후 선도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30개소의 여성복지상담소와 주요 역 및 터미널, 관광지역 등 요보호여성 발생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62개소의 간이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소에는 여성복지상담원을 배치하고 여성복지상담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상담하고 있다. '96년에는 여성복지상담소에서 가출여성 3,741명을 대상으로 상담하였는데, 이는 92개 상담소에서 실시한 전체 상담건수의 1.5%에 불과하다. 상담을 받은 3,741명의 가출여성 중에도 미성년 여성은 일부이므로 사실상 여성복지상담소의 실적 중에서 가출청소년 상담은 1.5%도 못되는 것이다. 여성복지상담소 사례에서도 시사하듯이 기존의 상담기관 중에서 가출청소년 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은 없고 부수적으로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요보호여성을 수용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 현재 선도보호시설 12개소, 미혼모시설 8개소, 모자보호시설 37개소, 모자자립시설 2개소, 모자일시보호시설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182 신고센터 운영

현재 경찰에서는 미아, 가출청소년들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182신고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수용시설(영아원, 육아원, 양로원, 복지원)에 보호된 자들의 인적사항도 전원 전산입력 관리하고 있다.

(2) 원조·치료 서비스 실시현황

가. 가출청소년보호시설

우리나라에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시설보호서비스는 일시보호시설을 갖추고 있는 서울시립아동상담소, 경남종합상담실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와 YMCA와 같은 시민단체, 민간기관의 '청소년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장기보호서비스는 일부육아시설과 일부 민간기관에서 제공한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서비스는 일시보호시설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과 장기보호시설로 육아시설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는 민간에서 설립한 몇몇 개의 시설 외에는 전무하다는 문제와 일시보호시설과 중장기보호시설의 대부분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서비스 연계체계가 원활하지 못해 가출청소년들이 보호서비스기관에의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7).

청소년을 위한 상담서비스는 대부분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부분적이며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문적인 상담인력의 부족, 상담시설의 미비, 정부의 지원미약, 상담에 대한 국민일반의 인식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출청소년을 표적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서비스로는, 윤락우려 여성으로서 가출소녀를 위한 선도보호시설이 유일하다. 그 외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용가능한 기관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직업보도시설과 교호시설, 직업훈련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직업훈련기관 등이 있다. 공공직업훈련원은 교육대상을 분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출청소년이 부모나 원조기관의 도움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아동상담소 현황

1960년 이후 도시화, 핵가족화 및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으로 아동인구(18세미만)는 계속 줄어들어 1980년도 아동인구는 15,621천명으로 전체인구의 41%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12,037천명으로 27.5%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표 2-10> 아동인구추계(18세미만)

(단위 : 천명)

구 분	1980	1990	1994	1996	2000	2020
총 인 구	38,100	44,056	44,453	42,248	46,789	50,578
아 동인구	15,621	13,026	12,904	12,711	12,037	9,967
비 율(%)	41	29.6	29.0	28.1	25.7	19.7

출처 : 청소년백서, 1997.

한편, 이혼 등 가정해체의 발생가능성 증가, 현대생활의 긴장 및 각종 산업제해의 증가는 피해가정의 아동들을 요보호대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으며, 일반가정 내에서 자라는 아동의 경우도 성격 및 정서장애, 유기, 학대 등 문제가 다양하게 표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아동의 발생 및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아동상담 사업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아동상담소는 1995년말 현재 공립아동상담소 13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에 5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군·구 등에 아동복지지도원 380명을 배치하여 상담과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로 아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 가운데 7,000여명을 아동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사회내에서 발생하는 아동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필요한 복지조치 등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표 2-11> 아동상담소의 아동상담실적(1996년)

(단위:명)

상 담 총 계			상 담 아 동 유 형						상 담 조 치				
계	남	여	비행 가출 아	기아	학 대 방 치 아	미 아	일반 아동	기타	귀가연 고자 인계	시설 입소 기관 의회	취업 알선 후원 자연 계	가 정 위 탁 보 호	기타
33,132	18,957	15,075	6,310	1,914	911	753	16,182	7,062	15,858	3,918	1,743	381	11,232

출처 : 청소년백서(1997)

3) 가출청소년보호를 위한 인적자원 현황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변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등으로 인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전국에 걸쳐 청소년 보호·육성 등 청소년지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지도자는 35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현황은 표 과 같다.

(1) 청소년지도사

정부는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지도자 양성계획을 반영하는 한편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에서 공인하는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해오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7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기타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자 양성기관(청소년

단체, 대학, 기타단체)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표 2-12> 청소년육성업무 관계자 현황

구 분		소 관	인 원
합 계			
공 무 원	소 계		
	국가공무원(청소년보호위원회·문광부청소년국)	행정자치부	80
	지방공무원	행정자치부	4,140
	청소년상담실(시도,시군구)	시도·시군구	159
	소년경찰	경 찰 청	677
	소년원교사	법 무 부	269
	분류심사관	법 무 부	32
	보호관찰관	법 무 부	50
	교도교사	교 육 부	2,785
	아동복지지도원	보건복지부	379
	부녀상담원	보건복지부	691
	노동상담실	노 동 부	66
민 간 지 도 자	소 계		
	청소년단체·시설	각 부 처	155,392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시도·시군구	130
	민간 상담실 상담원	각 부 처	594
	지방청소년위원회위원	문화관광부	4,961
	청소년지도위원	문화관광부	57,102
	소년선도위원	법 무 부	7,093
	갱생보호위원	법 무 부	14,174
	보호위원	법 무 부	8,283
	종교지도위원	법 무 부	368
	방문지도위원	법 무 부	692
	경찰선도위원	경 찰 청	77,359
	학부모상담자원봉사자	교 육 부	3,034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보건복지부	3,894
	아동위원	보건복지부	7,112

출처 : 청소년백서, 1997.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수련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는 1급, 2급, 3급 청소년지도사로 등급을 분류하여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 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을 지도한다. 청소년지도사 양성계획에 따라 1997년말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375명, 2급 청소년지도사 1,728명, 3급 청소년지도사 1,009명 등 총 3,112명의 국가 공인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다.

(2) 여성복지상담원

정부는 가출여성의 선도보호를 위해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에 30개소의 여성복지상담소와 주요 역, 터미널 등 취약지역에 62개소의 간이상담소에 전문상담원 406명을 배치하여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군·구 여성회관과 여성복지상담소 등에는 상담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구: 사회복지전문요원)

생활보호를 포함한 공적부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대상자 선정과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행정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해서는 개개 가정의 생활실태와 욕구의 변화 등을 계속적으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복지행정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87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왔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사 1, 2, 3급 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을 거쳐 지방별정직 7급 또는 8급으로 임용한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주요 담당업무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생업자금 융자, 직업훈련 알선 등 각종 자립자활시책 추진과 자립·자

활 상담 및 취업알선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배치계획은 '94년도 519명의 증원배치를 마지막으로 별정직 임용을 종결하고, 기 배치된 전문요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아가갈 계획이며, 추가 소요인력은 '92년 12월 26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신설된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 임용·충원하는 방안을 내무부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4) 가출청소년을 위한 대책방향

보호조치된 가출청소년들은 상담 분류되어 단순가출인 경우는 즉시 귀가조치 시키고(전화, 전보, 서신, 동행) 가출벽이 있는 청소년이나 귀가를 거부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상담지도를 받게 되며, 귀가도 안되고 상담지도도 필요치 않는 부모 없는 가출청소년은 장기보호시설로 보내지게 된다(이영희, 1992). 가출벽, 도벽, 허언벽, 비행, 학업부적응, 본드흡입, 부탄가스흡입, 학대로 인한 귀가 거부, 가정부적응 등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렇다면, 가출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더 개발되어야 할 것인가?

최근에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현재 가출중에 있는 소녀 30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심층면접조사한 결과를 보면(표 참조), 앞으로 이들을 위하여 어떠한 보호서비스가 개발·제공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출의 다양한 경우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검토 없이 가출청소년을 단순한 행정적 절차에 의해 무조건 귀가조치시키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는 경찰보다는 아동상담소 등의 사회복지사가 맡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전문적인 상담교육 과정을 거쳐 양성된 이들은 가출청소년을 통제의 대상으로보다는 이해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출한 청소년들을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내는 조치 때문에 가출청소년들은 경찰이나 법을 피하고, 경찰이나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가출청소년들은 이러한 입지의 취약성 때문에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또한 사회적 범죄 및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또한 가출청소년 자신에게 변화가 없는 한 다시 가출한다. 가출청소년에게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상담을 포함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집에 돌아갈 처지가 못되는 가출청소년들이나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노동착취나 성적인 착취를 당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직업을 마련해 주거나, 그룹홈과 같은 대용가정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가출한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복지서비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무엇보다도 주거시설이 가장 필요하고, 정보제공, 상담 등의 서비스도 필요하며, 이에 못지 않게 청소년이기에 교육에 대한 욕구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여성개발원(1997)에서 가출소녀들 30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한 결과를 보면(표 13 참조), 청소년들이 원하는 주거시설은 장기시설과 단기시설(쉼터)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출소녀들이 머무르고 싶어하는 장기주거시설은, “개방적 분위기나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가족적 분위기이며 또래간에 폭력도 없고 지도자의 간섭이 없는 독립된 공간” “친구끼리 살 수 있는 독립된 주거공간” 등의 시설특징을 요구한다. 가출아들을 지도하는 실무자들 역시 가출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장기시설들은 “소규모의 독립된 주거” “개방적·가족적 분위기의 가정과 같은 공간” “소규모 가정” 등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규모 그룹홈이라는 의견

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가출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장기 주거 시설은, 「성인의 직접적인 지도나 도움은 최소한으로 받고 자신들의 독립된 자율적 생활을 최대한 누리되, 지도자가 부모같이 가까이에서 조언해 주고 위급시에는 즉시 도와 줄 수 있는 관계」를 유지시키는 시설특징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단기주거시설(청소년쉼터)의 시설특징은 “수용받고 편하게 설수 있는 곳” “위험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 자유로운 곳” “단기가출시 귀가를 도울 수 있는 곳” “며칠동안 자신의 문제를 조용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청소년쉼터의 바람직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유흥가나 가출아 밀집지역에 위치” “전문상담과 숙식을 함께 해결”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문화공간도 있는 것” 등이다.

이외에도 가출청소년들은 가정문제, 학교문제, 심리부적응,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학대 등의 고민을 상담하고 싶어하며, 직업훈련, 기숙사아닌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직업학교, 학교복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받고 싶어한다. 이들을 실제로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청소년을 위한 약물치료, 주민등록증 없이도 성병관리나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건전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표 2-13 참조).

<표 2-13> 가출소녀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종류

문제 유형	가출중인 소녀들의 의견		보호전문 실무자들의 의견	
장기 주거시설	18 %	· 개방적 분위기,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 · 가족적 분위기, 또래간에 폭력이 없는 곳, 간섭이 없는 독립된 공간 · 친구끼리 살 수 있는 독립된 주거 공간	19 %	· 소규모의 독립된 주거 · 개방적, 가족적 분위기의 가정과 같은 공간 · 소규모 청소년 그룹홈
단기 주거시설	14 %	· 수용받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 위험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 자유로운 곳 · 단기가출시 귀가를 도울 수 있는 곳 · 몇일동안 내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곳	17 %	· 유흥가, 가출아 밀집지역에 쉼터 · 전문상담과 숙식을 함께 해결 ·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문화공간도 있는 곳
정보제공	14 %	·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과 연결 · 가출후 당장 갈 곳과 도움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제공 · 직업정보제공(안전한 취업 알선) · 학교보다 쉬운 학력인정 학교에 대한 정보제공	21 %	· hotline전화 설치 · 가출아의 초기상담으로 서비스를 결정, 의뢰 · 청소년종합센터(정보제공, 상담, 문화, 의뢰서비스 등)
상담	13 %	· 가정문제 상담 · 학교내 상담 · 고민 들어주고 위로받고, 문제해결 도움주는 곳 · 가정학대 상담, 치료 · 가정폭력 및 성폭력 · 장기 상담	17 %	· 초기상담, 위기개입상담 · 가정문제 상담 · 가출예방교육 및 상담 · 문제해결능력 향상,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
교육	11 %	· 직업교육(직업훈련원, 학원) · 사회적응위한 가정교육, 인성교육 · 기숙사 아닌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직업교육 · 학교 재입학 상담 · 학습지도	12 %	· 대안학교 설치 (교육, 숙식, 문화, 상담 등) · 다양한 직업교육 직종 개발, 저연령 가출아 직업교육 개발 · 학교-지역복지관이 연계 ·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 학교 재입학 상담 · 부모, 자녀 동반 캠프
기타	30 %	· 무료의료서비스 · 임신, 피임 상담 · 노래부르고 춤출 수 있는 곳 · 약물치료 · 돈없을 때 식사할 수 있는 곳 · 무료 법률서비스	14 %	· 약물치료 ·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 주민등록증 없이 성병관리, 무료진료
총계	100 %	응답수 125건	100 %	응답수 84건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 1997: 표V-5와 표V-8을 본 연구팀에서 재구성함.

6. 외국의 청소년가출 실태

1) 일본

일본 경찰청에서 집계한 청소년의 가출실태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먼저 1988년 경찰에 의해 발견, 보호된 가출청소년은 45,614명으로 학직별로 보면, 중학생이 전체의 37.7%를 점해 가장 많다. 또한 남녀별로 보면, 여자가 56.8%로 남자와 비교해 조금 많다. 1989년도는 46,356명으로 전년에 비해 741명(1.6%) 증가했다. 이것을 학직별로 보면, 중학생이 전체의 36.7%를 점해 가장 많다. 또한 남녀별로 보면, 여자가 56.7%로 남자와 비교해 조금 많다. 한편 같은 해 봄·가을의 '전국가출청소년발견보호강화의 달'에 보호된 가출청소년 중 8.9명의 1명은 비행을 저질렀고, 29.7명의 1명은 범죄피해자가 되었다.

1) 이하의 내용은 일본의 총무청청소년대책본부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청소년백서」 1989년판과 1993년부터 1996년판을 참고해 종합·분석한 것이다.

<표 2-14> 일본 청소년가출 현황

(단위 : 명, %)

연도별	학직별	총계	미취학 아동	학 생						직업무직	
				소계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대학생	기타	청소년	청소년
1988년	총계	45,614	100	30,630	2,059	16,726	10,156	325	1,364	7,082	7,803
	여자	25,928	34	17,624	497	9,316	6,754	225	832	3,872	4,398
	여자비율	56.8	34	57.5	24.1	55.7	66.5	69.2	61.0	54.7	56.4
1989년	총계	46,356	108	31,942	2,188	17,497	10,492	344	1,421	7,753	6,553
	여자	26,287	45	18,339	559	9,740	6,915	230	895	4,277	3,626
	여자비율	56.7	41.7	57.4	25.5	55.7	65.9	66.9	63.0	55.2	55.3
1993년	총계	28,302	271	20,115	1,872	10,613	6,369	256	1,005	3,734	4,182
	여자	14,877	100	10,519	490	5,250	4,011	178	590	2,060	2,198
	여자비율	52.6	36.9	52.3	26.2	49.5	63.0	69.5	58.7	55.2	52.6
1994년	총계	27,377	186	19,627	1,730	10,160	6,638	242	857	3,144	4,420
	여자	14,793	58	10,636	461	5,129	4,366	177	503	1,555	2,544
	여자비율	54.0	31.2	54.2	26.6	50.5	65.8	73.1	58.7	49.5	57.6
1995년	총계	24,895	199	18,688	1,548	9,680	6,433	310	717	3,088	2,920
	여자	13,063	78	9,759	437	4,731	3,987	204	400	1,580	1,646
	여자비율	52.5	39.2	52.2	28.2	48.9	62.0	65.8	55.8	51.2	56.4
1996년	총계	26,139	265	19,763	1,603	10,035	7,139	235	751	2,749	3,362
	여자	13,745	104	10,427	423	4,932	4,519	162	391	1,294	1,920
	여자비율	52.6	39.2	52.8	26.4	49.1	63.3	68.9	52.1	47.1	57.1

출처 : 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 青少年白書, 1990, 1994, 1995, 1996, 1997.

1993년도는 28,302명으로 전년에 비해 4,083명(12.6%) 감소했다. 이것을 학직별로 보면, 중학생이 전체의 37.5%를 점해 가장 많고, 남녀별로 보면 여자가 52.6%로 남자와 비교해 조금 많다. 1994년도는 27,377명으로 전년에 비해 925명(3.3%) 감소했다. 이것을 학직별로 보면, 중학생이 전체의 37.1%를 점해 가장 많고, 남녀별로 보면 여자가 54.0%로 남자와 비교

해 조금 많다. 1995년도는 24,895명으로 전년에 비해 2,482명(9.1%) 감소했다. 이것을 학식별로 보면, 중학생이 전체의 38.9%를 점해 가장 많고, 남녀별로 보면 여자가 52.5%로 남자와 비교해 조금 많다. 1996년도는 26,139명으로 전년에 비해 1,244명(5.0%) 증가했다. 이것을 학식별로 보면, 중학생이 전체의 38.4%를 점해 가장 많고, 남녀별로 보면, 여자가 52.6%로 남자와 비교해 조금 많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가출청소년 수는 198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조금 증가했으나 1993년도에는 18,054명이나 줄어 38.9%가 감소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계속되어 1995년까지 매년 줄어들었고, 1996년도에는 다소 늘었으나 80년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고 있다. 학식별로는 줄곧 중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고,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조금 많은데 이러한 경향은 1978년 이래 계속되고 있다.

2) 미국²⁾

미국에서의 가출청소년과 집없는 청소년의 정확한 인구파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파악이 정확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길거리에 있는 많은 가출청소년들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미국의 가출청소년 현황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되어져 왔다. 전화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한 가출청소년의 파악과 가출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기관 요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내용에 기초한 가출청소년의 파악이다.

1984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미국 청소년들 중 73만명에서 130만 명의 청소년들이 집을 나간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이 조사에

2) 미국의 가출청소년실태에 나온 통계자료 중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은 1995년 서울YMCA에서 출간된 '외국가출청소년 연구자료집'에 나온 통계자료들을 인용하였음

서 이들 중 50만명 정도는 집없는 청소년들이라고 추정하였다.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쉼터의 가출청소년과 집없는 청소년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21%가 집없는 청소년이었다. 1988년 사법부의 소년사범·비행예방 부서에서 행해진 조사를 살펴보면, 45만 7백명이 가출했고 12만 7천 1백명이 집에서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과 청소년서비스를 관장하는 전국망은 매년 1백만명에서 130만명의 가출청소년과 집없는 청소년을 추정하고 있고 이들 중 50만명은 집없는 청소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5년 9/10호 정책보고서(Policy Report)에서는 매년 130만명의 청소년들이 가출청소년이나 집없는 청소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97년 10월 29일 미국청소년위기센터(Youth Crisis Center)는 일초에 27명, 일년에 150만 명의 청소년이 가출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1990년 전국가출청소년돕기전국연합회는 위기청소년보호시설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시설의 가출청소년들 중 39%가 미연방정부가 설정한 빈곤선 이하의 가정출신이었고, 중산층이 21%, 중상층 이상이 6%였다. 미국의 사회복지사전국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 NASW)는 1991년 미국 전역에서 기본적인 숙소, 위기개입서비스, 일시보호를 제공하는 360개 기관과 51개 주의 사회복지법의 Title IV-E 독립생활 서비스 담당자에게 설문한 결과 시설의 가출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Bass, 1992: 9).

<표 2-15> 미국의 가출청소년과 집없는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시설의 가출청소년들이 가진 문제들	문제를 가진 청소년의 %
교육/학교 문제들	53
부친 부재	45
가정의 오랜 경제적 빈곤	41
위탁보호를 받았었음	38
부모에 의한 학대(성적학대 외에)	38
생활수단 부재	37
부모의 알코올중독	29
법적 문제가 있음	27
정신건강 문제가 있음	26
부모 외의 가족 성원에 의한 폭력	26
부모의 약물중독	24
부모에 의한 성적학대	23
청소년의 약물중독	23
돌봐줄 사람의 부재	23
자살기도	20
청소년의 알코올중독	19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	18

출처: Bass, 1992, p 99.

1991년 11월에 수행된 스탠포드센터의 가족, 아동 및 청소년의 연구(the Stanford Center for the Study of Families, Children, and Youth)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된 50명의 10대들 중 52%는 길거리에 머물고 있었고 어떤 사회서비스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8%는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쉼터와 오다가다 들르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자살기도, 약물남용, 비행, 성관계, 매춘 등의 빈도가 적거나 없다고 보고하였다.

3) 영국³⁾

(1) 가출의 정의

영국에서 통용되는 「가출청소년」은, 보호자의 허락없이 ‘의미있는(significant)’ 기간동안 집 또는 보호시설을 떠나 있는 18세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기아(throwaways)’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16세이상된 청소년에게는 적용여부가 다소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부모는 자녀가 집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일단 청소년이 16세만 넘으면 청소년 스스로 가출이나 부랑아(homeless)가 될 수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부모의 동의없이도 합법적으로 집을 떠날 수 있다.

(2) 가출 현황

경찰에 신고된 가출청소년의 수는 연간 43,000명 정도이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치를 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단지, 청소년에게 가출에 관하여 질문한 설문조사 연구에 의하면, 16세미만 청소년 7명 중 1명이 하룻밤이상 가출한 경험이 있고, 10,000이상의 청소년은 16세가 되기 이전에 이미 10번이상 가출한 경험이 있다(Rees, 1993).

「1989년 아동법」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refuge)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에 힘입어 가출청소년에 관한 자료는 현재 운영중인 많지 않은 쉼터와 현장지원 프로젝트(outreach project)에서 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가출청소년(68%)은 14- 16세 연령대이고(Abrahams & Mungall, 1992), 가출청소년의 7%정도는 11세이하 청소년이다(Stein, Rees, & Frost, 1994). 가출청소년의 남녀 성비율은 거의 반반이

3) 본 내용은 인터넷상의 자료를 참조했음.

인터넷 주소: <http://www.hoy2000.org.uk/the-facts/runaways/runaways1.htm>

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가출아 중에는 소녀보다 소년의 비율이 더 높다.

대부분의 가출청소년은 단지 짧은 기간동안만 가출했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통계에 의하면, 4분의 1 정도의 가출청소년만이 48시간 이상 집밖에서 머무른다고 한다. 14일 이상 가출해 있는 청소년은 가출자 중에서 2%를 차지할 뿐이다(Abrahams & Mungall, 1992).

시설수용과 시설가출의 관계를 보면, 영국에서 18세미만 청소년 중 1%이하가 각종 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다. 청소년가출연구에 의하면, 복지시설 보호 청소년 중에서 적어도 3분의 1 가량이 가출한다. 시설에서 가출하는 대부분의 청소년(90%)은 이미 시설입소 전 가정에 있을 때부터 가출을 시작한 아이들이다. 시설에 들어온 후 처음 가출하는 청소년은 전체 가출청소년의 10% 정도가 된다(Abrahams & Mungall, 1992).

(3) 가출의 원인

가정폭력이 청소년가출의 가장 큰 이유로 보고되곤 한다.

보호시설에서 가출하는 이유는 보호체계안에서 경험하는 좌절로 인한 것이 가장 많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은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아무런 이유도 들지 못한채 어떤 규칙을 그대로 따르기만 해야 하는 것 등에서 좌절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청소년들은 보호시설에서 가출하여 이전 시설로 되돌아가거나 친구 또는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무엇보다도, 가출청소년을 집밖으로 내모는 지속적인 요인은 가족해체와 대리양육의 문제로 압축된다. 첫째, 적어도 가출청소년 중 60%는 가정결손 경험이 있는 가정출신이다. 둘째, 가출청소년 중 70%는 대리양육 서비스(아동의 집, 위탁가정, 보호시설 등)를 받은 경험이 있다.

(4) 가출의 결과

가출 인구 중 9%는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집단이다(Abrahams and

Mungall, 1992). 가출해서 6개월이상이 경과하면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 예컨대, 가정,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과 같은 공식적인 보호체계와의 접촉이 끊어지는데, 이 기관들은 청소년기에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준비시키는 주요한 사회화 대행자이다.

영국에서는 장기 가출로 인해 청소년들이 공식적 보호체계와 분리되는 것이 성인이 된 후에 부랑자(homeless)가 될 소지가 높다고 본다. 장기가출을 하게 되면, 우선 교육이 단절되고 그 결과 학력이 낮아 직업을 갖기 어려워 무직 빈민계층으로 남게 된다. 그러면 결혼도 어려워지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기가 곤란해진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부랑자가 될 수밖에 없다.

가출후 단기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는 청소년자신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을 손상당하거나 또는 비행, 매춘, 구걸 등 반사회적 수단에 의해 생존을 영위해 가게 된다.

가출청소년 중 5분의 2는 가출해 있는 중에 공포를 느낀다

가출청소년 중 4분의 1은 신체적 손상을 입는다

가출 청소년 중 9명중 1명은 성폭행을 당한다

3분의 1은 동맥끊기, 약물 과다복용 등 자해행위를 한다

반이상은 약물복용을 한다

반이상은 우울증을 호소한다

반이상은 가출 중에 도둑질 또는 상점에서 물건훔치기에 개입한다

7명 중 1명은 매춘을 한다

나머지는 구걸을 한다

(5)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현황

영국에서는 현재 가출청소년 쉼터가 민간단체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다. 그 숫자도 소수에 불과하다. 앞으로 영국사회에서 취약한 가출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더많은 자원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본다.

(6) 향후 가출청소년보호대책의 방향

가. 취약 가정과 위기집단 청소년 예방보호

가출청소년은 취약가정에서 나오므로, 이들 가정이 자녀보호를 잘 할 수 있도록 취약가정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정내 위험요인을 최소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복지시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가출예방은 최우선적 위기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데, 최우선 위기집단은 학교 중퇴자와 상습 가출자, 그리고 복지시설 중도 방출자이다. 이들에게 시급한 서비스는 안전한 주거공간이다.

나. 가출청소년의 주거보호

향후 공공 주택공급계획의 수립시, 가족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주거 요구를 현실적으로 측정하여 이들을 위한 주거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관할 지역내에 가출청소년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를 조사·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치를 기초로 하여 가출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서간, 기관간 통합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법적의무로 규정하여야 한다. 주택당국과 복지당국은 공동예산 지원을 통해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의 건립과 운영을 확대시켜야 한다. 이미 민간단체, 종교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사업들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다. 청소년의 자립능력 배양 정책 : 교육·직업훈련·고용

가출청소년의 직업훈련과 고용을 위한 효과적인 국가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계, 노동조합, 정부, 민간단체 사이에 파트너십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우선 시행해야 할 두가지 과제는, 첫째, 가출청소년의 직업훈련과 고용에 성공적인 지역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정보수집이다. 둘째, 발굴된 좋은 사례를 모델로 체계화하여 전국에 전파하는 것이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가출청소년들이 훈련기관을 찾거나 직

장을 찾는 것을 돕는 것과 더불어,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체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개발하여야 한다.

직업세계에 대한 가출청소년의 기대와 고용주의 요구가 상당부분 괴리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수의 가출청소년은 결손가정이나 하류계층 가정출신이므로 성장하면서 가족이 직장 충실하고 책임있게 일하는 모습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때로는 부모가 무직으로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가정에서 자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출청소년보호시설에서는 이들의 직업관, 사회생활 태도 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있어야 한다. 가출청소년들은 교육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후에라도 야간교육 등의 기회가 주어져야만 고용도 안정되고 진정한 자립능력을 키워갈 수 있다.

4) 독일

(1) 가출청소년의 실태

가. 가출청소년의 수

독일에 있어서 “가출청소년”(Strassenkinder)의 의미는 영어의 “streetkids”의 의미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는 최근에 와서야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다.⁴⁾ 그간에 조사된 독일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태는 그 조사 결과가 일정치 않은데 대략 2,000명에서 50,000명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DJI Bulletin, 1995: 7) 먼저 1980년 구서독의 Köln시에서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당시 서독 전역의 가출청소년 수는 약 40,000명으로 집계되었고(Jordan/Trauernicht 1981), 통독후 1994년의 M.H.Seidel의

4) 독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독일청소년연구소’(Deutsches Jugendinstitut; DJI)에서는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94년부터 1997년까지 3년에 걸쳐 구서독의 München과 구동독의 Leipzig의 양대 도시에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였는데 본 연구보고서를 위하여는 아직 그 결과가 입수되지 못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대부분 ‘독일청소년연구소’에서 나온 소식지 ‘DJI bulletin’(1995/11)의 특집 “가출청소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하였다.

조사에는 훨씬 적은 2,500에서 3,500명의 가출청소년의 수가 집계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통계로는 독일연방정부가 1995년에 언론을 통해 발표한 숫자인 약 5,000명에서 7,000명으로 나타나 있다.(Jogschies, 1997: 193) 이렇게 독일의 가출청소년의 수가 정확하지 못한 것은 모든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가출청소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어떻게 가출청소년의 범주 기준을 정하느냐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가출청소년은 신고가 되어있는 수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 가출청소년의 실태

독일의 가출청소년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절도나 협박, 폭력 등의 범법 행위를 통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돈과 생필품을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음식만을 무상으로 항시 제공하거나, 긴급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거나, 그 밖에 만남의 장소 등의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고, 식료나 주거를 보장해주는 친구나 친지들의 비공식적인 도움의 길 그리고, 최종적 수단인 구걸 등의 기회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서독 통일후 가출청소년들의 실태는 높아지는 실업율에 따라 점차 악화일로에 있는데 이는 일용 아르바이트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자연히 범죄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절도와 강도행위, 자동차 무단탈취 등의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비록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고 주로 일회성 내지는 우발적 형태가 많은데 점차 그 빈도수가 늘게되면서 습관적 범죄의 길을 걷게되고 마침내 마약거래와 약물남용, 매춘 등의 심각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가출청소년들이 거리에서 겪는 경험들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말하자면 가출청소년들이 닥치는대로 상황에 따라 주어진 여러 경험을 쌓게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 가출의 원인

이들의 가출 원인으로는 주로 친부모가 아닌 가정에 돌아가지 않으려 하고, 학교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소에도 가기를 두려워하여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 비슷한 이유를 가지고 가출한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대한 불신감과 도시의 부족한 사회적 배려로 인하여 공격적인 폭력이외에 같은 처지에서의 동질감을 토대로 그룹을 지어서 자기들만의 소속감과 안전, 그리고 협력체제를 만들어 자신들에게 결핍된 가정생활의 향수를 스스로 보충하려는 사회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반면에 구서독 지역의 역주변이나 대도시에서는 뚜렷한 서열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착취하며 날로 잔인해져 가는 가출청소년들의 범죄조직화 현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독일사회에 있어서도 역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가출 청소년들을 장기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들을 돌보아 줄 가정들이 없다는 사실이다. 비록 구동독에는 아직 폐허가 된 집들이 있어 최소한 가출청소년들의 주거지로 유용히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도 또한 가출청소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므로 독일정부가 가출청소년들의 증가에 깊이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가출청소년을 위한 대책

가. 기본원칙

독일의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은 크게 지원과 통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의 가출에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욕구가 납득할 만한 관계에서 충족되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쉽게 말하자면 성인들은 청소년들에게 너무 많이 요구하고 너무 적게 주는 관계의 반복 속에서 청소년들은 늘 기대치에 못 미쳐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에서 가출의 상황에 빠지게 되며 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은 이들을 위

한 대책으로 지원과 통제라는 기본원칙 안에서 청소년들과 가정, 사회, 국가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회적 지원으로는 사회지원 단체나 기관들이 먼저 경찰과 끊임없는 대화와 접촉을 통해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가출청소년들의 비행을 드러내어 법적 적용을 받게 하거나 범법자 수용소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들의 신원에 대한 기록이나 비행행위들을 밝히지 아니하고 사회교육자나 거리지도사(streetworker)들의 은밀한 활동을 통해 가출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길을 최우선적으로 시도하도록 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러한 가출청소년들의 주어진 상황에 따른 삶과 욕구에 대한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은 이러한 배려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이들을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가출청소년들이 마약이나 매춘 등의 더 심각한 다음 단계의 비행상황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결국은 가출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나. 문제점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민간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시설에서 종사하는 청소년가출 관련 전문가들과 거리지도사와 같은 사회지도사들의 견해에 따르면 기대와는 달리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때로는 가출청소년들의 가출에서의 탈피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문제점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가) 가출청소년 관련 정부기관들의 신속한 협력부재

청소년가출 관련 전문가들과 거리지도사와 같은 사회지도사들의 말에 의하면 가출청소년 관련 정부기관들 예를 들면, 각 지역사회 소구역 관청마다 배치되어 있는 청소년담당과와 사회봉사과는 가출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거리지도사나 사회지도사들과의 협력에 있어서 매우 지지부진하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가출청소년들의 선도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부기관들이 가출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실태에 대해서 아주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하여 멀리 수수방관하는 식의 전형적인 사회관료주의적 대처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정이 수요에 비해 너무 늦게 이루어지거나 가출청소년들의 관련시설 이용 절차나 직업기회 알선에 있어서의 수용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가출청소년 선도관련 시설제공의 부족

독일은 유럽에서도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있는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과 관련하여 이들이 손쉽게 주거를 확실히 하고 견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직업훈련의 기회에 대한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고 제공되어 있는 기회도 이용할 수 있는 요구조건이 높아 가출청소년들이 여러 제공들을 전전하는 경향이거나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다) 약물중독된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처 부족

가출청소년중에 가장 심각한 상황에 있는 마약과 같은 약물에 중독된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치료와 상담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쉼터와 같은 주거시설이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시설에서 이들 약물에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거부감과 아예 수용조건에 이들을 배제하는 조항을 넣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미래의 전망

독일에 있어서의 가출청소년에 관한 대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민관의 협조체제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개인적 상황에 따른 단계적 보호·

선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가출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선도원칙과 이들의 지원 임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사이의 갈등이 깊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기관들은 가출청소년들이나 이를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며 선도하는 거리지도사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들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상호육구의 수용자세보다는 지원에 따른 일방적 요구를 내세우기 때문에 가출청소년들이 사회교육자들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어서 이는 결국 가출청소년들이 가정이나 사회에 다시 통합(integration)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독일의 가출청소년 문제에 있어서의 이러한 갈등은 제한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독일의 가출청소년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시각을 바꾸어서 가출청소년과 관련 기관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동안에 가출청소년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들을 초기에 선도·보호하려는 시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7. 가출청소년쉼터의 의미와 내용

1) 가출청소년쉼터의 의미

가출한 청소년들은 가출후 며칠 내에 먹고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든, 약물에 노출이 되든, 어른들의 착취 대상이 되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희생물이 되기 쉽다. 가출청소년을 위해서든 사회를 위해서든 이러한 가출청소년들을 빨리 거리에서 안전한 장소로 옮겨 놓는 것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들이 그대로 범죄, 약물, 성적 착취, 폭력 등에 노출이 되었을 때에는 그들 자신의 불행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막대할 것이다.

가출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게 일시적인 보호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갈 시간적 여유와 전문적 도움을 제공해주기 위해 설치된 곳

이다. 가출청소년들은 이곳에서 단기간 동안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사나 상담자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출청소년쉼터의 의미에 대해 김영지(1994: 118)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출청소년은 홀로 세상에 던져져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상황을 맞게 되면서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황에 떠밀려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우려할 상황에 대해 안전판 역할을 하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쉼터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 며칠 동안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으며 사회복지사와 상담할 수 있는 곳으로 가출청소년이 의식주 때문에 비행을 하거나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것을 제고하게 해주며 ‘의미있는 자’ 역할을 통해 주체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출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1992년 4월 30일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개최한 ‘청소년가출의 예방과 대처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 및 중장기 보호소의 설치방안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국청소년선도회 회장인 박부일은 가출청소년 선도대책으로 가출청소년쉼터 운영을 제안하고, 그 기능이 가출청소년이나 가출을 생각하는 청소년에게 단기적인 침식제공을 하는 것이며 쉼터의 위치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쉼터는 충동적인 가출이든 계획적인 가출이든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당장 침식을 제공받기 위해 유흥업소나 윤락가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침식제공처가 되어야 하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도 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가정을 떠나보고 싶다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아 일시 쉬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쉼터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는 침식은 유료로 하되 저렴한 실비로 하여 청소년들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오고 갈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청소년쉼터의 연구보고서에서도 가출청소년쉼터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가출청소년에게 일정기간 숙식제공 및 보호와 지도를 행함으로써 비행을 예방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상담실, 1997: 9).

가출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일정기간동안 숙식제공 및 보호와 지도를 행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가정과 학교로 복귀하도록 돕고, 더 나아가 비행 예방은 물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가출청소년쉼터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지침을 살펴보면 가출청소년쉼터의 목적으로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각종 비행의 유혹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 일시보호 및 선도를 통하여 가정과 학교에 복귀시킴으로써 청소년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는 것이며, 셋째는 집으로 복귀할 수 없는 가출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 이들을 의뢰하는 것을 들고 있다.

가출청소년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원조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청소년쉼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출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결정하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 쉽게 방문해서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자유롭게 모색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2) 가출청소년쉼터의 내용

가출청소년쉼터는 기본적으로 가출청소년에게 14일 이내의 일시적인 보호를 제공하면서, 그 기간 동안 가출청소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시설, 인력, 재원, 사업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출청소년쉼터는 우선 가출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단기간동안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침실, 식당, 개별상담실, 집단 활동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가출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 직원들은 24시간 긴급전화상의 위기전화를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전화를 한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프로그램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광범위한 자원들로부터 적절한 의뢰기관을 찾아내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표 2-16> 미국 일시보호 시설들의 서비스

서 비 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
정보제공 및 의뢰	98
개인상담	98
진단/입소(screening/intake)	96
일시보호	95
case management (사례 운영-개별적 문제해결)	94
약물남용 프로그램에 의뢰	94
식사제공	93
소년법정조직과 조정	93
가족상담 제공	92
정신건강서비스에 의뢰	90
가출청소년찾아나서기 (outreach)	89
의료기관에 의뢰	89
자살행동 치료기관에 의뢰	89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제공	87
가출청소년을 대변(Advocacy for clients)	87
알콜중독 프로그램에 의뢰	86
다른 보호시설에 의뢰	82
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의뢰	82
가족상담 의뢰	81
개인상담 의뢰	79
에이즈 예방교육 제공	78
의뢰 확인 (follow-up to referral)	77
사후지도 제공	76
교통편 제공	75

출처 : Bass, 1992, p. 15.

<표 2-17> 미국 일시보호 시설들의 퇴소후 서비스

퇴소후 서 비 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 %
개인상담	93
가족상담	88
case management (사례운영-개별적 문제해결)	82
약물남용 상담	77
집단상담	75
알콜중독 상담	74
부모 상담	72
정신건강 서비스	69

출처 : Bass, 1992, p. 16.

청소년쉼터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위기청소년에게 일정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을 통하여 청소년의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일이다. 이들은 집에서 쫓겨났거나, 집이 없거나, 가정의 상황 때문에 일시적인 거처가 필요한 청소년들이다. 쉼터에 거주하는 상담자들이 시급한 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들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작업을 하며, 미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장기적인 가족구조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작업한다.

미국의 사회복지사전국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 NASW)에서 1991년 미국 전역에서 가출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숙소, 위기개입서비스, 일시보호를 제공하는 360개 기관과 51개 주의 사회복지법 Title IV-E의 독립생활 서비스 담당자에게 설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75% 이상의 쉼터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서비스와 퇴소후 서비스는 <표 2-17>과 같다(Bass, 1992: 15).

위와 같은 서비스 외에 가출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믿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은 긍정적 자아존경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험은 가출청소년들의 가정으로의 복귀를 평화롭고 지속적으로

게 만든다. 캐나다의 한 쉼터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쉼터의 운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키와니스 쉼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안전한 환경이란 고객들을 위해서 뿐 아니라 직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안전한 환경이란 사람들을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믿을만한 행동을 보여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Kiwanis emergency youth shelter 인터넷 자료).”

그리고 입소 청소년들은 생활지도를 위해서 쉼터의 규칙을 준수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가출 청소년들이 서로 그리고 직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도우며 청소년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쉼터에는 입소 청소년들의 공부, 식사준비, 잡일, 활동, 집단 토의, 그리고 자유시간을 포함하는 매일의 활동들을 지도하는 정규 직원들이 있어야 한다. 2주간의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구조화된 환경을 제공하며, 그 속에서 청소년들은 전담 직원과 함께 그들을 쉼터에 오게 한 문제에 적응하거나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작업의 초점은 가능하면 가출청소년이 가족과 다시 화합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출청소년쉼터의 운영계획서 상에 나타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출청소년 보호활동 : 가출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가출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을 방지하고, 탈선 및 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상담활동 : 청소년들의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인 욕구와 문제의 올바른 파악 및 건전성장 유도를 목적으로 전화상담, 면접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인성검사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있다.

- **가출청소년 찾아나서기 활동 (Outreach Program):** 거리상담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직접 거리로 가출청소년을 찾아 나서는 활동이다.
- **교육활동 :** 정서교육, 진로교육, 공동체놀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가출청소년의 심성순화를 하며, 필요시 전문상담 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
- **청소년 문제 예방활동 :** 청소년의 욕구와 청소년 문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세미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가출예방을 위해 학부모교실, 또래상담교실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홍보활동 :** 소식지 발간, 가출예방캠페인, 언론매체, 사회단체, 학교, 지역사회 등에 쉼터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기관에 대한 소개서 배포, 가출생활의 위험에 대해 학교에서 설명회, 청소년과 부모에게 정보제공 등의 활동이 있을 수 있다.
- **사후지도 :** 퇴소 후에도 가출청소년 및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적응을 돕고 있다.
- **연계·협력활동 :** 어떤 한 기관에서 모든 가출청소년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위해 이용 가능한 교육·훈련, 건강, 사회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확인과 서비스 연계체제를 만드는 것이 요청된다. 가출청소년 쉼터에서는 가출청소년 개인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파악을 하고, 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쉼터에서 제공하고,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는 연계된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기존의 공공·민간기관에 대한 전국적인 편람이 작성되고, 전국적인 연합회가 결성되어 서비스의 연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계에 필요한 자료작성 및 연결망 확보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하여 각 기관에 제공해 주는 것이 요구된다. 가출청소년쉼터와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장기주거서비스** : 집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해 집단가정과 같은 대안적 가정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 **교육서비스** : 교육을 원하는 가출청소년들이 대안교육, 위탁교육, 직업교육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야 한다.
- **직업알선서비스** : 청소년에게 알맞은 취업의 길을 공개적으로 열어 놓아야 한다. 집안환경이 가출청소년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청소년자신이 독립해서 생활해보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다면 건전한 직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청소년에게나 사회에 이익을 주는 일일 것이다.
- **의료서비스** : 가출청소년들은 거리생활로 건강상태가 나빠지기 쉽다. 기본적인 건강진단과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치료해 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어야 한다.
- **법률서비스** : 가출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게 해주고 필요한 경우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가출청소년들은 어른들의 착취의 대상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어야 한다.

III. 가출청소년쉼터의 운영현황

1. 개관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출청소년쉼터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2개소의 청소년쉼터와 2개소의 아동상담소, 5개소의 장기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1998년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이루어졌고, 조사의 실시는 먼저 질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12개 청소년쉼터 중 10개소와 아동상담소 2개소, 장기보호시설 1개소는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회수 및 담당자와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방문하지 못한 청소년쉼터 2개소와 장기보호시설 4개소는 전화를 통한 면접과 질문지 회신결과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기관은 청소년쉼터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는 곳과 순수 민간의 예산으로만 이루어지는 곳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정부지원 가출청소년쉼터에는 강남구 청소년쉼터, 구로공단지역 청소년쉼터,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 서울YMCA 청소년쉼터, 신림지역 청소년쉼터,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의 7개소이다. 순수민간 가출청소년쉼터에는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청소년쉼터, 살레시오 노랑진 청소년쉼터, 살레시오 영등포 청소년쉼터,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열린문쉼터의 5개소이다. 아동상담소는 서울시립 동부아동상담소와 서울시립아동상담소의 2개소이다. 장기보호시설에는 나자렛의 집,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마자텔로센터, 살레시오 나눔의 집, 들꽃피는 마을의 5개소이다. 이중 청소년쉼터는 가능한 전국의 모든 청소년쉼터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홍보가 적게 된 곳은 누락되었을 수도 있다. 아동상담소는 서울에 위치한 곳만 대상으로 하였다. 장기보호시설은 규모가 크거나 여러 곳에 지부를 갖고 있는 곳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영역은 쉼터 위탁단체의 성격, 쉼터 설립준비과정, 쉼터 목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요 부분, 건물의 위치, 내부공간, 장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 부분, 정규직원이나 봉사자의 자격, 급여수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홍보 및 지역사회 협력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내용의 5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2. 정부지원 가출청소년쉼터 운영현황

1) 강남구 청소년쉼터

(1) 개요

강남구 청소년쉼터는 1998년 1월에 설립되었다. 사회복지법인인 태화종합사회복지관이 강남구청 가정복지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강남구 청소년쉼터에서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일시보호 뿐 아니라 비행, 도박, 약물사용, 학교부적응 등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한 치료 및 청소년문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시설

강남구 청소년쉼터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인근 지역이 대규모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하는 지하철역과 다소 거리가 있어 교통편이 약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표 3-1> 강남구 청소년쉼터 건물구조 및 용도

위치	실명	용도	비고
2층	프로그램실	집단활동 프로그램, 집단상담, 시청각 활동	
	침실	가출청소년 중기보호 대상자(2- 6개월) 침실	4- 5인용
	공부방	개인학습, 독서	4- 5인용
	응접실	휴식, TV시청	
	세탁 건조실	세탁물 건조	베란다 활용
	화장실	용변, 세탁	세탁기 비치
1층	쉼터 사무실	쉼터 사무행정업무 (직원 4명)	책상 4개, PC 4대
	개별상담실	Intake, 청소년·부모 개별상담, 각종 심리검사	2- 3인용 정도의 작은방
	생활지도사 숙직실	생활지도사, 숙직 자원봉사자 침실	
	침실	가출청소년 단기보호 대상자(2개월 미만) 침실	4- 5인용
	응접실	휴식, TV시청, 손님접대	거실 활용
	식당 / 주방	식사, 설거지	
	목욕실	세면, 샤워, 세탁, 용변	세탁기 비치
지하	놀이문화실	놀이시설(게임기, 노래방, 포켓볼, 탁구 등)	자유시간 활용
	연구자료실	연구서가 비치,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 recording	주로 외부인 활용
	시청각실	교육·영화Video 상영, 음악감상	시청각 기재 비치
	부식창고	부식 보관	대형냉장고 비치
	물품 창고	공동물품·개인소지 금지물품·기타물품 보관	시건창치 캐비닛 비치

강남구 청소년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으로 대지는 50평, 건평은 100평이다. 2년 계약의 전세로 임대하였다. 1층에는 사무실과 개별상담실, 생활지도사 숙직실, 침실, 응접실, 식당, 욕실이 있다. 특기할 만한 것

은 1층에 있는 침실인데, 이 방은 처음 입소한 청소년의 경우 갑자기 다른 아이들과 함께 둘 경우 소외를 당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 있으므로 따로 방을 쓰게 하여 안정을 취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2층에는 침실, 프로그램실, 공부방, 응접실, 화장실이 있다. 아이들이 많을 경우 프로그램실과 공부방도 의자와 탁자를 치우고 침실로 활용한다. 침실은 모두 온돌방이다. 지하는 놀이문화실과 연구자료실, 시청각실 및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데, 출입을 하려면 마당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주 이용될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다. 각 실의 용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강남구 청소년쉼터에서 갖추고 있는 설비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장비로는 VTR 1대, TV 1대, 오디오 1세트 외에 카세트 동을 갖추고 있고, 청소년용 비디오테이프 및 청소년권장도서, 음반 및 카세트테이프 등도 갖추고 있으나 아직 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수량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다. 이 외에도 원탁 및 의자, 책장, 책상, 소파 등이 있다. 상담 및 사무 장비로는 전화,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이불 및 요, 베개 각 15인용, 속옷 등과 세탁기, 식탁, 의자, 냉장고, 각종 주방용품, 욕실용품, 응급약품, 운동기구 등을 갖추고 있다.

(3) 인력

강남구 청소년쉼터의 조직은 관장 1명, 선임사회복지사 1명, 사회복지사 2명, 생활관리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학교장, 대학교수, 구의원, 관계공무원, 지역유지, 청소년회관 관장 등 외부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다. 실무조직은 6명이고 자원봉사자는 현재 22명으로 이 중 10명이 활동하고 있고 12명은 대기중이다.

전문인력으로는 관장과 선임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사가 있고, 생활관리인은 임시직으로서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인력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관장은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면서, 재정통제, 대·내

외적 사업홍보업무,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결, 교육 기획 및 실행, 쉼터 관련 연구조사, 긴급상황시 위기개입, 사회사업 및 사회교육실습지도, 후원자 개발 및 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관리, 타 기관 연계활동(관공서, 학교, 병원, 직업훈련원, 긴급구호기관, 장단기 보호기관 의뢰 등), 부모 및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선임사회복지사는 쉼터 청소년의 생활지도를 비롯해 보건, 위생, 안전 관리, 청소년 의·식·주 관리, 인간관계훈련 및 그룹활동 프로그램지도, 정서적 교육활동(레크리에이션, 시청각교육, 독서, 음악 지도 등), 진로진학 정보제공, 봉사활동 및 기관 견학 지도, 상담, 가출 다발지역 청소년 거리상담, 자원봉사자 홍보 및 모집, 관리, 학교지원프로그램, 후원자 개발 및 관리, 생활지도사 업무지도, 자문위원회 협조, 사회사업 및 사회교육실습지도, 교육 기획 및 실행, 행정업무 실행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쉼터 청소년의 생활지도와 보건, 위생, 안전관리, 청소년 의·식·주 관리, 인간관계훈련 및 그룹활동 프로그램지도, 정서적 교육활동, 진로진학 정보제공, 상담, 가출 다발지역 청소년 거리 상담, 학교지원 프로그램, 봉사활동 및 기관 견학 지도, 쉼터 청소년 사후관리 등 선임사회복지사와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생활관리인은 한명은 가옥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한명은 가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가옥관리자의 경우 청소년 야간생활지도, 쉼터청소년 생활지도, 시설유지 및 설비관리보수, 외부인 출입 점검, 쉼터 청소년 의·식·주 관리, 차량운행, 일반용품 및 소모품 구입, 전화상담,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연락, 안전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보수, 청소년 생활일지 기록, 야간 전화상담, 가스사용시설 및 냉·난방보수, 유지관리, 도난방지 및 물품의 반출·입 점검, 청소 및 오물질 수거 감독, 건물의 내·외부 화재, 방화, 파손방지를 위한 순찰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가사담당자의 경우 청소년 영양관리 및 급식제공, 쉼터 청소년 의·식·주 관리, 시설유지 및 설비관리, 소방시설 사용 및 관리, 일반용품 및

소모품 구입, 응급상황 발생시 연락, 안전관리, 가스 및 냉·난방시설 사용, 관리, 청소 및 오물질 수거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직원의 성별은 관장과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중 1인, 생활관리인 중 가옥관리자 4명은 남자, 나머지 직원 2명은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야간 업무는 이곳이 남자청소년을 위한 쉼터이므로 남자직원들이 맡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중 남자 1인과 가옥관리인이 전담하고 있고, 1주일에 1일 이들의 휴식일에 관장과 선임사회복지사가 숙직을 서고 있다. 이들 직원의 급여수준은 대략 연봉으로 볼 때, 관장이 2,300만원, 선임사회복지사가 1,800만원, 사회복지사가 1,200만원, 임시직원이 1,000만원 정도로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비교할 때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4) 재원

강남구 청소년쉼터의 재원은 거의 전액 강남구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주택임대료가 2억원이고, 운영비가 약7천8백만원, 인건비가 약6천2백만원이다. 태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올해 천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쉼터에서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개발할 계획이다.

(5) 사업내용

가. 가출청소년 보호활동

19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강남구 청소년쉼터에서 보호처우를 받은 가출 청소년의 수는 총 46명이다. 강남구 청소년쉼터의 보호 대상자는 만 9세부터 18세까지의 남자 청소년으로 비행집단·비행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가출한 청소년이나 부모로부터 방임, 유기된 청소년, 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 받는 청소년, 비행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 학교나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청소년 등이다.

이들 청소년의 직접 방문을 받거나 가출청소년을 찾아나서기도 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의뢰를 받기도 한다. 현재까지 이용한 청소년 중

직접 방문한 청소년은 주로 지역정보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경우가 대부분이고, 관련기관의 의뢰는 경찰서, 다른 청소년쉼터 등이다. 퇴소한 청소년들의 퇴소사유는 귀가가 대부분이고, 장기보호시설로 이관한 경우 3명, 행방불명이 3명이었다.

입소절차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에 대한 인테이크(intake) 과정을 통해 가정으로 돌려보낼지, 타 기관에 의뢰할지, 입소시킬지를 나눈다. 가출 청소년 입소는 본인의 동의를 기본 전제로 한다. 입소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에 대해 1차 사례회의를 통해 입소여부를 결정한다. 단, 입소자의 1차적인 욕구가 시급할 경우 초기면접 전에 우선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입소 대상자는 입소전에 본인, 의뢰인, 쉼터사회사업가가 동석한 자리에서 입소 동의서와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소시 소정의 소지품 검사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물품이 발견될 경우, 퇴소시까지 쉼터에서 보관하거나 집으로 보낼 수 있다. 입소자는 입소 전에 기관의 소정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서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청소년쉼터의 한 구성원으로서 쉼터에 머무는 동안 다음과 같은 제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 ① 나를 돕기위한 쉼터의 서비스가 나의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② 쉼터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 쉼터 생활수칙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 ③ 쉼터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 ④ 쉼터 선생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 ⑤ 동료에게 해(害)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동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숭선수범 하겠습니다.
- ⑥ 동료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는 절대로 싸우지 않고 담당선생님과 의논하여 대화로 해결하겠습니다.
- ⑦ 쉼터 내에서는 약물을 흡입하거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⑧ 쉼터 일일계획표 시간을 준수하겠습니다.
- ⑨ 쉼터 내에서는 술, 담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 ⑩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파손하지 않겠습니다.
- ⑪ 항상 몸을 청결히 하겠습니다.
- ⑫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는 담당선생님의 허락없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 ⑬ 위의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나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퇴소절차는 2주이내의 일시보호, 2개월 이내의 단기보호, 6개월 이내의 중기보호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각 기간이 만료된 경우 2차 사례회의를 통해 퇴소시킬지와 6개월 이상의 장기보호를 할지를 결정한다. 퇴소자로 결정될 경우 가정으로 귀가할 것인지, 타기관에 의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곳에서는 퇴소시 귀가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퇴소가 결정된 후 본인, 의뢰인, 쉼터사회사업가 간의 합의가 있어야 퇴소가 가능하다. 퇴소시에는 쉼터 생활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다짐의 시간을 갖

기 위해 퇴소식을 한다. 퇴소자는 퇴소 전에 기관의 소정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강제퇴소를 하게 된다. 3회 이상 무단 외출한 경우, 2회 이상 무단 외박한 경우, 쉼터의 제반 프로그램에 계속적으로 무단 불참하여 전혀 참여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다른 동료에게 해를 끼치는 언행을 상습적으로 되풀이 할 경우, 쉼터의 의무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 다음에서는 강남구 청소년쉼터에서 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수칙을 원문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식사규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식사는 특별한 이유없이 거르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식사시간은 꼭 준수해야 합니다.
- ③ 식사 전에는 용모를 청결히 해야 합니다.
- ④ 매 식사 전에는 모두가 식탁에 앉았을 때, 한사람씩 대표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 ⑤ 식사 후에는 자신이 사용한 수저와 그릇을 각자 설거지 통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 ⑥ 조식, 석식 설거지는 2명씩 당번제로 실시합니다.
- ⑦ 설거지 당번은 설거지를 한 후에 항상 주방을 청결히 유지하고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 ⑧ 인스턴트 식품은 되도록 삼가야 합니다.

청소·세탁·개인위생 규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이불정리는 각자가 해야 합니다.
- ② 매일 1회 자신이 맡은 장소를 청소해야 합니다.
- ③ 매주 1회 대청소를 합니다(유리창, 도어, 계단, 정원 등 평소에 청소하기 어려운 곳을 포함하여 쉼터 전반을 청소합니다).
- ④ 세탁물 관리(세탁물은 각자 빨래 수거함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다른 옷들은 2명씩 당번제로 세탁기를 사용하여 세탁 및 건조를 합니

다. 이불은 한달에 한번씩 세탁을 하고 일광소독 후 방별로 정리를 합니다).

- ⑤ 개인위생(하루 2회 이상 양치질을 합니다. 하루 1회 이상 간단한 샤워를 합니다. 매주 1회 목욕을 합니다).

예절규칙은 다음과 같다.

- ① 동료간에 욕설이나 거친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 ② 선생님이 계신 사무실에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노크를 하여 허락을 받고 입실해야 합니다.
- ③ 프로그램실, 상담실, 옥상 등은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 ④ 실내외에서는 큰소리를 내거나 소란스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품관리 규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입소시 개인 소지품 목록을 작성하여 본인 스스로 관리할 물품과 쉼터에서 공동관리할 물품을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 ② 개인 소지품중 귀중품은 쉼터에서 보관하였다가 퇴소시 돌려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보호자에게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 ③ 위험하거나 해로운 물품은 개인이 소지할 수 없으며, 비디오 테이프나 만화책 등은 쉼터에서 공동 관리하게 됩니다.
- ④ 비상구급약은 쉼터에서 공동관리하며, 만약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⑤ 쉼터 내의 모든 물품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잘 정리 정돈 합니다.
- ⑥ 사물함은 1인 1개를 사용하고, 개인용품(의류, 책, 학용품, 용돈 등)만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⑦ 개인 보관 물품에 대한 검사는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이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외출규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외출은 매주 토·일요일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외출대상자는 단기보호대상자 이상이며, 외출 허용여부는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 ③ 외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④ 외출을 희망할 경우 외출 하루 전까지 외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외출할 수 있으나 승인되지 않을 경우 외출은 불가능합니다.
- ⑤ 단, 외출대상자 외의 입소자가 외출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외출 1시간 전까지 외출신청서를 제출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고 쉼터의 담당선생님과 함께 외출할 수 있습니다(단, 위급상황 발생시에는 특별상담 후 즉시 외출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⑥ 쉼터로 귀가한 후 쉼터 선생님께 귀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외박규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외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 ② 외박일수
 - 부모, 직계가족 병환시 : 1일(단, 위독한 정도에 따라 7일까지 연장 가능)
 - 부모, 직계가족 사망시 : 7일
 - 직계가족 외의 친척 사망시 : 2일
 - 보호자가 직접 외박 요청을 할 경우 : 1일

- ③ 쉼터로 귀가한 후 쉼터 선생님께 귀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전화·우편물 규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전화는 원칙적으로 쉼터 선생님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② 부득이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통화 상대방을 쉼터 선생님께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③ 편지는 자유로이 보낼 수 있으며, 편지내용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④ 단, 편지 수발신이 교육목적상 본인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지이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흡연, 음주, 약물사용, 도박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 ② 무단외출 했을 경우 : 1시간 이상 임의로 쉼터를 이탈한 경우
- ③ 무단외박 했을 경우 : 임의로 쉼터를 이탈하여 당일 밤 11시까지 귀가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쉼터의 선생님이나 동료들에게 의도적인 거짓말을 했을 경우
- ⑤ 동료들과 싸웠을 경우
- ⑥ 일일 계획표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행동하는 경우
- ⑦ 당번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⑧ 단체생활에 저해되는 거친 언행을 하였을 경우
- ⑨ 기타 제반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칙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먼저, 당사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 ② 다음, 쉼터 선생님이 해당 경위서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 ③ 그리고, 자체 생활회의 시간에 공개하여 벌칙을 결정합니다(단, 아래의 벌칙종류 중 ⑤, ⑥, ⑦은 쉼터 사례회의에서 결정합니다).

벌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가사노동 : 설거지, 청소, 빨래
- ② 전화사용 금지
- ③ TV시청 금지
- ④ 반성문 쓰기
- ⑤ 외출/외박 금지
- ⑥ 나홀로 시간 갖기 : 동료들과 일정시간 (1시간- 6시간) 격리된 공간에서 반성
- ⑦ 강제퇴소

입소한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 단계에서는 각종 심리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쉼터이용의 효과성 측정을 위해 사전검사 설문지를 실시하고자 현재 설문지를 개발중에 있다. 다음의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상담, 교육, 집단활동, 자원봉사, 취미활동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하고 있다. 먼저 상담에는 개별상담과 집단상담, 부모상담,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이 있다. 교육에는 약물교육, 성교육, 예절교육, 시간관리교육, 학습지도, 부모교육 등이 있다. 집단활동 프로그램에는 가치관정립 프로그램, 분노조절훈련 프로그램,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 심성개발 프로그램,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 공동체훈련, 가족 프로그램, 캠프 등이 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는 지역 거리 청소, 사회복지시설 방문, 재가복지 대상자 가정방문, 농촌봉사활동 등이 있다. 취미활동 프로그램에는 사회체육 프로그램(수영, 해양체육, 농구, 등산 등), 미술, 컴퓨터 학습, 악기연주, 외출 및 여가 프로그램 등이 있다. 사회체육은 태화종합사회복지관의 체육관을 이용해 실시하고 있다. 진로지도 프로그램에는 직업윤리교육, 진로상담, 직업적성검사, 현장견학, 취업장 체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한달에 한번 이용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 중 특별한 기능을 요하는 취미활동이나 이용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강남구 청소년쉼터의 주간 일일생활계획표는 <표 3-2>와 같다.

<표 3-2> 강남구 청소년쉼터 주간 일일생활계획표

요 일 시 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00-8:00	기 상 / 세 면 / 침 구 정 리						
8:00-9:00	아 침 식 사						
9:00-10:00	쉼터 예배	일과준비	일과준비	일과준비	일과준비	일과준비	일과준비
10:00-11:00	일주일 계획	견학/직 업탐색 프로그램	사회체육 활동	악물/성 교육	집단활동	성경공부	종교활동
11:00-12:00	자원봉 사활동						
12:00-1:00	취미활 동 - 풍물패	점 심 식 사					
1:00-2:00		견학/직 업탐색 프로그램	사회체육 활동	개별상담	개별상담	외출 / 여가활동 프로그램	휴 식
2:00-3:00				휴 식	휴 식		
3:00-4:00		휴 식	휴 식	놀이문화 I -노래교실	놀이문화II		쉼터 대청소
4:00-5:00	휴 식						
5:00-6:00	학 습 지 도					휴 식	
6:00-7:00	저 녁 식 사						
7:00-8:00	자 유 시 간 (7:00 - 7:30)						
8:00-9:00	책 좀 보 시 다 (7:30 - 8:30)						
	간 식 시 간 (8:30 - 9:00)						
9:00-10:00	청 소 시 간 (9:00 - 9:30)						
	생 활 회 의 (9:30 - 10:00)						
10:00-11:00	세 면 (10:00 - 10:30)						
	취 침 (10:30)						

나. 홍보·협력활동

홍보활동은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를 비롯해 관련 기관과 경찰서를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달에 1회씩 거리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을 찾아나서고 있다. 거리상담은 가출청소년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관찰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상 그들을 쉼터로 데리고 오는데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앞으로는 가출 다발지역에 스티커를 붙일 예정이다.

협력활동은 지역사회와 지지망을 확보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역학교장, 구의원, 관계공무원, 지역유지 등을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반상회를 통해 청소년쉼터를 홍보함과 동시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양해를 구하고 있다. 설립한지 100일째 되는 날에는 백일떡을 만들어 쉼터 주변 주민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쉼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는 청소년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 기타활동

강남구 청소년쉼터에서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처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이상과 같이 가출청소년의 처우와 직결되는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가출예방 사업의 차원에서 일반청소년과 부모 및 청소년관계자에 대한 상담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 상담시간은 직원이 24시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가능하다. 또한 가출 및 비행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나 연구활동, 부모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6) 평가

강남구 청소년쉼터는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청소년쉼터이다. 이 쉼터는 전통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운영을 실시함으로써 아직 설립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운영계획

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곳을 이용했던 청소년은 총 46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를 통한 평가는 어렵겠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는 퇴소후에 귀가한 청소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처우의 효과에 대해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또한 사업내용에 있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처우에 주력함으로써 수용된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평가된다. 인력면에서도 야간근무자가 2명이기 때문에 안전이나 청소년처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적고 전체적으로 직원수가 적정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시설면에서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위치에 있어서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고 버스이용도 그다지 편리하지 않은 곳에 있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알고 찾아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한 주택의 지하가 내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 효용성이 떨어지고 마당이 좁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 주택은 2년 계약의 임대이므로 차후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구로지역 청소년쉼터

(1) 개요

서울특별시립 구로지역 청소년쉼터는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일시보호 쉼터로서, 1998년 5월 20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계획서 상에 나타난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사업 대상은 주로 12- 20세 가출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가출청소년 학부모, 학교 부적응 청소년, 일탈 청소년, 노숙하는 장기가출청소년, 부모, 학교, 경찰서 의뢰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이다. 사업내용은 일시보호 숙식제공,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진로지도, 또래상담자 교육, 가출예방활동, 홍보 등이다. 구로지역 청소년쉼터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청소년에게 일시적 안식처를 제공하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 조기 가정에 복귀시킨다. 둘째, 일시적 충동으로 가출한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선도 보호하며 탈선과 비행을 예방한다. 세째, 정신적 안정과 정서순화를 통하여 부모와 친구를 이해하고 건전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2) 시설

<표 3-3> 구로지역 청소년쉼터 내부공간

구 분	개 수	1개당 면적(평)	총 사용 면적(평)	비 고
숙 소	6	6.2	37.36	5인용 온돌방
교육장	1	7.64	7.64	
사무실(3층)	1	6.56	6.56	
상담실	1	5.17	5.17	
숙직실	1	1.9	1.9	
거 실	1	30.85	30.85	
식당(주방)	1	20.27	20.27	
화장실 및 샤워실	1	9.18	9.18	
사무실(2층)	1	43.08	43.08	소장실/사무실
계	14		162평	

서울특별시립 구로지역 청소년쉼터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58로 서울특별시립 공단복지관의 2층 일부 및 3층 전체에 위치하고 있다. 가리봉역에서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건물 옆으로 커다란 고가도로가 지나고 있고, 건물 앞으로 큰 도로가 지나고 있으나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 건물밖에는 복지관 간판과 국민은행 간

관만 붙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서울시립 구로지역 청소년쉼터 현판이 붙어 있다. 1층에는 은행이 자리잡고 있다.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서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일시보호를 제공하기에는 취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쉼터 실무자는 일시보호를 하는 쉼터의 설립상의 유의사항으로 쉼터위치선정 즉, 청소년밀집지역과 인접한 교통 편리한 지역을 꼽았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구로지역청소년쉼터는 2층에 사무실과 소장실이 있고, 사무실 옆에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집단활동실이 있다. 3층으로 올라가 아파트처럼 신을 벗고 들어가면 집단상담실, 침실 여섯개, 주방이 거실을 중심으로 둘러 있다. 각 방에는 옷장이 있고, 나이별로 거주하는 방이 따로 있다. 내부공간이 아늑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비교적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쉼터 면적은 건평 162평이고, 일일 최대 수용은 30명이다. 갖추고 있는 설비는 TV(2), VCR(1), 오디오셀(1), 노래방 기구, 헬스기구(1), 탁구대, 옷장 및 이불장, 목욕장, 선풍기, 잡지서가, 헤어드라이기, 다리미, 진공청소기, 컴퓨터(3), 팩시밀리(1), 에어컨, 침대(2) 등이다.

(3) 인력

구로지역청소년쉼터의 조직은 소장 1명, 부(과)장 1명, 총무과 4명, 교육지도과 3명, 상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위원회가 있다. 자문위원회는 심리학과 교수 및 관련인사, 사회사업(복지)교수 및 관련인사, 정신과교수 및 의사, 청소년학과 교수 및 관련인사, 상담학 교수 및 관련인사로 구성하며, 사업추진 및 활동방향제시, 치료계획 및 방법 자문, 개별, 집단, 부모상담 자문을 받고자 하고 있으며, 자문은 월 1- 2회로 상담기록과 활동기록 및 분석자료를 가지고 받을 계획이라 한다.

총무부에는 총무, 사무원, 조리원, 경비가 있어서 예산집행 및 결산, 물품구입 및 조달, 경리 및 서무,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위생, 방역, 의식주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도과에는 교육, 지도, 사감이 있어서 정서교육, 생활교육, 입·퇴소, 직업보도, 자치활동, 수용의뢰, 조사연구, 보호관찰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상담실에는 상담교사 2명이 개별·집단·부모상담, 심리검사(직업흥미, 성격, 적성검사 실시), 조사연구, 생활교육, 보호관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운영인력의 정원과 현원은 다음과 같다.

<표 3-4> 구로지역 청소년쉼터 운영인력

구 분	계	소 장	부(과)장	총무과	교육지도과	상담실
정 원	12	1	1	4	4	2
현 원	11	1	1	4	3	2

직원은 각자 직책에 따라 사회복지사, 레크레이션지도자, 중등2급 정교사, 상담심리사, 워드3급 등의 경력과 자격증을 지니고 있으며, 직원의 급여수준은 연봉 1,000만원- 1,500만원 정도이다. 현재 개원해서 바쁜 관계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각 분야별로 자원봉사인력을 확보하여 10- 2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자는 상담봉사 및 각종 행사보조진행, 이동상담 보조 등에 도움을 받을 계획이다. 쉼터를 24시간 개소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감이 야간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직원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4) 재원

1998년 현재 운영비 전액이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8년 재원으로 는 국고보조금 2,950만원과 서울특별시에서 지급되는 지방비 2억 9,584만 9천 원으로 총 3억 2,534만 9천원이다. 예산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12명의 인건비로 수탁제 봉급체제 기준에 따라 1억 573만원, 복리후생비, 보상금, 일반

수용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 1,372만 1천원, 전화가입, 컴퓨터구입, 에어컨구입 등의 자산취득비로 732만 8천원, 사업비로 9,857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다. 재정상의 문제점으로는 운영비 전액이 보조금으로, 합리적이고 융통성있는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5) 사업내용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프로그램은 계획서상에 나타난 것으로,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입소 청소년을 위한 1개월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지만, 입소해 있는 4명의 청소년들의 연령, 능력 등의 차이로 현재는 생활지도와 개인상담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장소가 청소년 밀집지역이 아니고 교통도 그다지 편리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입소자가 스스로 오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홍보활동을 통해 10개월 이내에 가출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쉼터의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쉼터 소식지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와의 연계를 통하여 문제청소년 교육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입소청소년 생일잔치,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연계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제, 명화극장, 청소년연맹과 연계 프로그램으로 통일대행진, 수상훈련, 등반대회, 민속놀이경연대회, 거북선 나루터, 청소년전용광장 등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음의 <표>는 쉼터에서 제시한 전체 사업이다.

<표 3-5> 구로지역 청소년쉼터 사업내용

(단위: 천원)

사 업 명		인 원		예 산
		회 수	계	
상 담 사 업	보 호 활 동	연 중	7200	52,400
	개 별 상 담	8	240	1,500
	거 리 상 담	16	480	1,760
	집 단 상 담	8	240	2,800
	가 족 상 담	8	240	800
	심 리 검 사	8	240	1,920
	미 술 진 단	8	240	2,800
	소 계	56	8,880	63,980
교 육 사 업	성 교 육	8	240	800
	장애자 시설방문	8	240	800
	기술학교 방문	8	240	800
	예 법 교 실	8	240	1,200
	마 인 드 콘 트 롤	8	240	1,600
	인 생 설 계	8	240	1,600
	소 계	48	1,440	6,800
활 동 사 업	취 미 교 실	연 중	3,440	2,920
	자 치 활 동	연 중	6,720	비예산
	특 별 활 동	16	480	4,080
	수 상 훈 련	6	180	1,140
	소 계	22	10,820	8,140
조 직 관 리	자 문 위 원 회 운 영	8	40	2,000
	자 원 봉 사 자 운 영	8	160	2,400
	사 후 지 도	16	480	1,600
	소 계	22	680	6,000
조 사 연 구	활동 및 연구보고서 발간	1	300부	5,120
	관련기관 방문, 홍보물 배포, 매스컴 활용	연 중	-	8,620
	소 계		300부	13,740
총 계		159	21,820명 300부	98,660

가. 가출청소년보호활동

보호대상은 가출 및 약물남용으로 인하여 숙박보호가 필요한 12- 20세 여성으로 1- 2개월 이내의 일시보호 및 단기보호를 하고 있다. 활동의 목적은 안식처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적 안정 및 정서순화를 통하여 건전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현재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의 수는 4명으로, 3명은 대방동 아동상담소, 은평구 소녀의집, 구로복지관에서 의뢰받았고, 1명은 홀어머니가 1달만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보호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쉼터의 위치 때문에 입소자가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출청소년이 들어오면 입소에서부터 퇴소까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①입소 ②소지품검사 ③방배정 ④소지품정리 및 일용품 지급 ⑤목욕 ⑥intake sheet 작성 ⑦생활안내 및 시설견학 ⑧건강진단 ⑨심리검사 ⑩개별상담 ⑪집단상담(각종 프로그램 병행) ⑫가족상담 ⑬치료 ⑭퇴소(혹은 중·장기 보호시설 및 전문기관 연계) ⑮사후지도.

입소청소년에 대한 4주의 일정이 짜여져 있으나, 현재 집단 프로그램은 실시하고 있지 않고, 우선 생활이 편안해지도록 돌보아주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일정표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로 되어있다.

나. 상담활동

상담활동의 대상은 보호여성 및 일반청소년으로 활동의 목적은 문제를 인식시키고, 원인파악을 하여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으며, 개별상담(본인, 부모), 집단상담, 각종 검사(직업흥미, 적성, 성격)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 교육활동

교육활동으로는 아이들 공부지도 계획이 있으며, 야외활동은 일주일에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청소년문제 예방활동 및 치료활동은 보호여성 및 일반청소년에게 교육 및 문화활동을 통하여 원인분석을 하여 사회기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적성검사, 취업정보센터운영, 기술학교 확보,

기업체와 유대관계형성, 현장학습을 통하여 투철한 사명감 정립 및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과 협동력 배양을 시키고자 한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비행 및 치료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로지역청소년쉼터는 교육활동의 목적을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사회적응으로 삼고 있으며, 4단계의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다. 제 1단계는 생활지도를 하면서 원인과악과 치료계획을 확립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Intake 상담을 통해서 문제정리 및 문제인식을 하고, 각종 상담을 실시하며, 각종검사를 실시하고, 자치활동과 생활지도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서서히 마음을 열어나가게 한다. 제 2단계는 치료 혹은 문제해결의 단계로 치료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 단계에서의 활동들을 살펴보면, 감수성훈련(심성개발, 정신건강, 역할극), 문화활동(레크레이션, 컴퓨터교실, 어학교육), 학예활동(합창, 음악감상, 공연, 자기발표회, 독후감발표), 체육활동(탁구, 볼링 등), 생활예절 등이다. 제 3단계는 사회적응의 단계로서 직업에 대한 준비 및 대인관계 향상에 중점을 둔다. 이 단계에서의 활동들을 살펴보면, 직업흥미검사에 맞는 직업보도 및 취업알선, 취업정보센터운영, 기술학교확보, 기업체와 유대관계형성, 사회봉사, 현장학습, 야외활동 등이다. 제 4단계는 사후관리로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비행을 예방한다. 사후지도의 기간은 1년이며, 가정방문, 서신, 전화 및 월1회 정기모임을 통해 이루어진다.

라. 홍보·협력활동

가출청소년 확보를 위한 홍보로는 유관기관(복지관, 보호시설, 상담실, 부녀상담소, 동부아동상담소, 종합복지관, 구로경찰서, 남부경찰서 등) 방문홍보, 주요일간지, 지역정보지 활용, 서울시내학교나 구청복지과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관련기관에 공문 및 전단배포를 통한 홍보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내 초(523개교)·중(252개교)·고(381개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30개 경찰서에 공문과 전단을 배포하였으며, 11개

교육청 및 25개 구청에 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하였고, 6개 역 및 주요 21개 지하철역에 공문 및 전단을 배포하였다. 쉼터 차량을 이용하여 시내 주요 지점순회로 가출청소년 모아오기를 주 2~3회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중 청소년연맹에 가입활동중인 710개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가출학생들을 쉼터에 입소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벼룩시장, 구민일보, 반상회, 세미너장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 그림은 구로지역 청소년쉼터에서 전철역에 붙이고 있는 스티커들이다.



[그림 2] 구로지역청소년쉼터 홍보 스티커

현재 입소 청소년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보건소와 섭외 중에 있다.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문제청소년들이 입소하여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학교명예 때문에 다소 꺼리는 것 같다고 한다. 위탁단체인 청소년연맹의 활동과 연계하여 일요일에 통일대행진, 한강수상훈련장, 한강시민공원에서의 활동 등의 야외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 사회복지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6) 평가

구로지역 청소년쉼터는 30명을 단기보호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시설로, 내부구조, 장비, 인력,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쉼터 쪽지나 학교연계 프로그램에 있어서 나름대로 특색있는 사업을 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위탁단체인 청소년연맹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오랜 경험 때문에 프로그램도 잘 짜여져 있고, 소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열의도 강하다. 문제는 쉼터의 위치가 청소년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가출청소년들이 스스로 찾아와 도움을 받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가출청소년 및 일반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개발하고, 그러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청소년들이나 가출청소년 관련 기관들에 홍보하여 쉼터의 존재와 쉼터 사업의 내용이 잘 알려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및 가출청소년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많은 가출청소년들이 구로지역 청소년쉼터의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3) 대전광역시청소년쉼터

(1) 개요

대전광역시청소년쉼터는 대한성공회 대전 나눔의집의 한 사업으로 1997년부터 가출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 중장기 보호활동을 해 왔다. 1998

년에는 국고보조와 지방비 지원을 받아 ‘대전광역시청소년쉼터’라는 공식 명칭으로 9세에서 24세까지의 여자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시보호를 하게 되었고,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3동 38-16번지로 새로 이사하였으며, 1998년 6월 19일 개소할 예정이다. 아직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여기에서는 대전시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시설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는 대전 시내 중심에서 가까운 주택가에 위치한 한옥 주택이다. 쉼터가 청소년 밀집지역이 아닌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가출청소년들이 오가다 들리기에는 부적절한 편이다. 몇 달에 걸친 탐색작업 끝에 이 주택을 선택한 것은 입소 청소년들이 가정적 분위기와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 시설은 총 50평 규모로 내부공간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6>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 내부공간

구 분	갯 수	1개소당 면적(평)	총사용면적(평)	비 고
사무실	1	6.5	6.5	
상담실	1	3	3	
침실	2	3.5, 6	9.56	
학습실	1	2.5	2.5	
집단활동실	1	5	5	
주방	2	1.5, 7	8.5	
세면실	1	2	2	
화장실	1	1.5	1.5	
창고	1	4	4	
체육실	1	4.5	4.5	실외공간
화단	1	3	3	실외공간
계	13	50	50	

(3) 인력

운영인력은 소장 1명, 실장 1명, 책임상담원 1명, 상담원 2명, 자원봉사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인력의 주요경력을 살펴보면 성공회 사제, 대학원교육상담학 전공, 빈민여성교육교사, 모자가 정상담,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 보육시설아동상담 등이다. 실무자의 급여 수준은 연봉 1,200만원이다. 숙직도 하고 생활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엄청’ 부족하다고 한다.

(4) 재원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는 1997년부터 성공회 자체 재원으로 운영해 왔으며, 1998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2950만원과 대전시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2950만원을 확보하고 있다.

(5) 사업내용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는 사업목적을 각종 비행의 유혹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각 학교와 청소년관련단체를 통해 위탁된 부적응 청소년과 현장 접근방법을 통하여 조기 발견된 가출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편안한 숙식을 제공하고 선도하여 가정과 학교에 복귀시킴으로써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가. 가출청소년 보호활동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의 주된 보호활동은 공식적으로는 9세에서 24세까지의 여자 청소년에게 일시보호를 제공하며, 수용인원은 5명이다. 5명의 입소정원은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연구자의 질문에 예산상에 5명으로 되어 있고, 실제 수용능력은 10- 15명이며, 또 그렇게 수용하게 될 거라고 한다. 1997년부터 자체예산으로 가출청소년보호활동을 하면서 평균 6- 7명의 중장기보호를 요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였다고 한다. 보호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가정에서의 성폭행, 가정폭력, 학대로 집에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 장기적으로 가출하여 집단을 형성해서 같이 살고 있었던 청소년들, 미혼모, 집과 연락이 두절된 청소년들, 전화통화가 되어도 집에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쉼터에서 맡아달라고 한 청소년 등이 있다. 대부분이 단순가출이 아니고 복합적 요인에 의해 가출한 것이었다. 친구따라, 혹은 부모의 이혼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지도를 한 후 귀가시켰다. 중장기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가능하면 학교에 보내주었다고 한다.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 상황이 바뀌어 어렵다고 한다. 일시보호로는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가 어렵고, 아이들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시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폐쇄형의 중장기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일시보호의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시청 직원에게도 호소하였다고 한다.

나. 상담활동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활동은 거리상담, 위기상담,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또래상담이 있다. 거리상담으로는 실무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거리상담원이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 나가 리플릿, 소책자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기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상담활동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행을 예방하려고 하고 있다. 거리상담은 월 1회 실시할 예정이다. 위기상담은 가족의 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약물중독, 자살욕구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실시하며, 지역사회 연계망을 통하여 위기 청소년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인성검사, 전화, 면접, 서신, 정기상담 등 대상자의 상담욕구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쉼터에서 보호중인 청소년들을 위한 개별상담을 상시적으로 실시하며, 변화과정을 확인하고 가정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다. 보호청소년

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주제로 집단상담을 진행하여 집단의 역동성을 이용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한다. 자아성장, 사이코드라마 등의 전문적 프로그램을 통해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되어 사회적 이탈이 반복되지 않도록 돕는다. 보호청소년의 부모 및 상담요청 부모들을 대상으로 독립된 장소에서 상담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이해, 바람직한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 등 가족의 기능적 역할강화에 힘쓴다. 또한 또래상담을 통하여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긍정적 자아가 형성된 지역 청소년과 매월 다양한 주제로 상호 대화함으로써 건전한 또래문화를 습득하게 한다.

다. 교육 문화활동

보호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비행문화에 접촉하지 않도록 다양한 문화활동의 장을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월1회 계룡산으로 등산하여 심신수련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다. 주1회 민요교실을 통하여 우리 전통민요를 익힌다. 주1회 책, VTR, TV 중 교육적 내용을 담은 주제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동료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민주적 대화방식을 터득하고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돕는다. 주1회 성/약물교육을 통해 성, 약물에 관해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며 청소년 중심의 접근방법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주1회 명사들을 초청하여 보호청소년들과 좋은 대화의 시간을 나눈다. 주1회 인근지역 청결작업을 실시하며 대전지역 시설(장애, 보육, 노인 등)과의 연계를 통해 봉사활동을 경험하게 하여 나눔의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라. 사후지도 및 예방활동

상하반기 두차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소년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나

관심있는 부모에게 청소년이해, 올바른 양육태도 등에 대해 강의하고 실질적인 사례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방학중에 보호 및 퇴소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프를 실시하여 자연 속에서 정서를 순화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여 사회적응을 돕는다.

마. 홍보·협력활동

청소년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모임을 마련하여 청소년 문제를 공유하고 연계사업을 실시한다. 상담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청소년에게 전문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한다. 자문위원회회의를 통하여 쉼터사업 및 운영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고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소식지 발간, 리플릿 배포 및 발송, 세미나 개최, 언론홍보 (대전시보, 반상회보, 생활정보신문 등), 보고서 발간 (가출청소년문제 원인 및 대책연구), 쉼터 운영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쉼터 홍보를 해 나간다.

(6) 평가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는 대한성공회 나눔의집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쉼터이기 때문에 비교적 시행착오가 적고, 사업에 대한 열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출청소년 중장기보호를 해오다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일시보호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실무자들은 그룹홈 형태로 쉼터를 운영하고 싶어하는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시보호를 요구하는데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 사업대상 청소년들도 일시보호보다는 중장기 보호에 적합한 대상으로 보인다. 약물남용 및 폭력 등의 비행청소년이나 비행으로 사법기관 및 경찰서로부터 처벌을 받은 청소년들은 청소년쉼터의 일시보호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가정의 빈곤, 결손, 해체, 학대, 유기, 방임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은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다.

4)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

(1) 개요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는 1996년 11월 1일 쉼터 상담원 3명을 임용하여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동년 12월 13일 개소식을 하였다. 보호활동 대상은 여자 가출청소년들이고 최대 수용인원은 15명이다.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의 선도 및 보호를 위해 문화관광부와 부산광역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설치되었으며 한국청소년부산연맹 소속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상담실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다.

(2) 시설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는 부산에서 가출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광안리 바닷가 부근의 쾌적하고 조용한 주택가 지역에 아담한 정원을 갖춘 2층 가정집으로 청소년이 접근하기 용이하며, 청소년들에게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고 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설규모는 대지 65평, 건평 39평의 슬라부조로 내부공간은 <표 3-7>과 같다.

<표 3-7>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 내부공간

용도별 사무실명	개 수	1개소당면적(평)	총사용면적(평)	비 고
개별상담실·사무실	1	1	3	
집단상담실·도서실	1	7	7	
시 청 각 교 육 실	1	4	4	
침 실	4	5(1), 3(3)	14	
음 악 감 상 실	1	4	4	
식 당	1	4	4	
화 장 실	2	2(1), 1(1)	3	
계	10		39평	방 6개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에서 갖추고 있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 장비로는 도서 631권(구입 211권, 기증 428권),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14개, 음악테이프 14개, CD 7개를 갖추고 있고, 사무장비로는 전화기 4대(유무선전화기 1대 포함), 팩시밀리 1대, 사물함 10개, 컴퓨터, 레이저프린트기 각 1대, 생활장비로는 냉장고, TV, VTR, 세탁기, 오디오, 가스렌지, 가스난로, 각 1대, 침구류 2인용 2채, 1인용 8채, 책장 3개, 책상 3개, 생활식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3) 인력

기본조직은 실장 1명, 부장 1명, 상담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장은 쉼터를 대표하는 운영책임자로서 본 쉼터의 위임단체인 청소년상담실의 상담부장이 겸직하고 있다. 부장은 낮근무를 하면서 쉼터 업무를 총괄하며, 상담원 2명이 교대로 야간생활지도를 하며 입소자에 대한 숙식제공 및 실질적 상담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담원 중 한명은 학부모교실, 따로 또 함께, 거듭나기 프로그램과 상담실적정리 업무를 맡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또래상담, 나만들기, 특별교육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인력상의 문제점으로는 한 사람의 직원이 상담, 입소자관리, 업무, 식생활관리 등의 다역을 소화해 내기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활지도사 또는 관리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인력의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상담학 전공, 사회복지사, 교사자격 등이다. 종합상담실에서 위탁 운영해서인지 상담부장이나 상담원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의 특징으로 실장에서 상담부장, 그리고 상담원 2명, 행정요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10명까지 모두 여성이었다. 급여는 예산에 편성된 것을 살펴보면 상담원 3명의 경우 월평균 75만원에 3달에 한번의 상여금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관련학과 재학생에서부터 졸업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을 요일

별로 1명씩 배치하여 입소자의 생활지도 및 상담, 식사봉사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예산에 나타난 자원봉사 관련 비용으로는 2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자원봉사실비가 178만 2천원 책정되어 있고, 야간생활지도를 분담할 유급 상근자원봉사자를 1명 더 확보하기 위해 월 50만원의 예산신청을 해 놓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 회의비로 4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자원봉사자 회의의 목적은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자간, 자원봉사자와 직원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1997년 6월에는 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5명을 대상으로, 1997년 12월에는 7명을 대상으로 사업실적보고, 사업계획공고, 자원봉사자역할 토의를 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자회의가 이루어졌다.

(4) 재원

1998년 재원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2,950만원과 부산광역시청에서 지급되는 지방비 2,950만원, 도합 5,900만원이 전부이다. 중간에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쉼터에서는 1998년 2월에 상근 상담자원봉사 배치와 청소년 쉼터 입소자 상담사례 연구집 발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다.

예산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출장비로 3,710만원, 가출청소년 식비 및 직원식비로 지출되는 급량비로 1,314만원,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으로 459만 6천원, 생활용품비 및 사무용품비 등의 수용비로 343만 8천원, 학부모교실 및 또래상담교실 등의 프로그램운영비 52만원, 의료비 및 기타로 20만6천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5) 사업내용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과 청소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입소자는 여자 가출청소년

만을 받으며, 프로그램 운영도 거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입소자의 경우는 가출청소년으로서 보호가 필요해서 스스로 찾아온 경우, 경찰이나 관련기관에 의해 발견되어 부모에게 보내지기까지 임시보호가 필요해 의뢰된 경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실질적인 보호가 행해질 수 없어 장기시설로서의 입소가 불가피한 청소년들이 장기시설에 가기 전에 중간처우의 단계로 보호가 의뢰된 경우 등이다. 또한 잦은 가출로 인해 가정 및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청소년들로서 학부모나 학교에 의해 상담이나 교육을 의뢰받는 경우, 자녀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학부모들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는 학교 및 지역사회단체의 청소년지도 및 선도를 위한 정보교환의 장소인 동시에 이들의 방문이용도 가능하며, 또한 사회복지학, 교육학, 상담심리학 전공자들의 실습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가. 가출청소년 보호활동

가출청소년이 입소하면, 성명, 주소, 가출동기, 가족관계, 입소경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intake sheet를 작성하고, 면접상담을 하며, 청소년의 문제를 진단하고 입소기간을 정하게 된다. 입소경위를 살펴보면, 학교의뢰가 52%로 제일 많았으며, 부모의뢰가 19.3%로 다음으로 많았고, 경찰서 의뢰가 11.8%, 친구소개가 7.0%, 상담소나 복지관 등의 타기관 의뢰가 6.1%, 다른사람 소개가 2.2%, 언론매체가 1.3%였다.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는 0.4%로 전체의 입소인원 중에 1명이었다. 주로 학교, 경찰서, 상담소, 복지관 등의 타기관이나 부모의뢰에 의해서 입소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나 학교의 의뢰를 받아서 교육시키는 경우가 입소자의 71.3%를 차지하고 있었다.

쉼터에서는 규칙에 따라 생활을 하며 생활지도를 받고,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부모와 학교를 연계하여 상담을 하여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에서의 적응을 돕고 있다. 쉼터에서의 생활은 쉼터 생활수칙과 일정에 따라

운영되며, 입소자들의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입소자들은 인형전시회 관람, 이집트문명전 관람, 영화감상, 연극감상 등의 문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타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쉼터에서는 옷, 세면도구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 제공, 1일 2차례의 간식제공, 교통비지급, 청소년권장도서 비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7년도 한해동안 쉼터에 입소한 입소자 실인원은 298명이었다. 이를 다시 입소자들의 입소 일수에 따라 인수로 환산한 연인원은 총 1,737명으로 1일 평균 5명이 쉼터에 입소하였다. 입소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달은 4월달(200명)로 1일 평균 7명의 인원이 이용하였으며 가장 적게 이용했던 달은 7월달(80명)로 1일 평균 3명이 이용하였다. 4월에 입소자가 가장 많은 것은 새학기가 시작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가출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3-8>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의 일정표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07:00- 09:00	기상 및 청소·아침식사					
09:00- 10:00	자유시간					
10:00- 12:00	독서 및 독후감 쓰고 발표					
12:00- 13:30	점심시간					
14:00- 16:00	나의 자랑	필통 속의 다섯자루 연필	궁금한 성	버리고 싶은 나	지역봉사 또는 문화활동	어머니 일기
16:20- 17:40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 그리기	비디오감상	역할놀이	합동화 그리기		생활계획표 작성
18:00- 19:00	저녁식사					
19:00- 21:00	휴식 및 TV시청					
21:00- 22:30	프로그램 또는 일기쓰기·취침					

<표 3-9>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 월별 이용인원

(단위: 명)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이용 인원	144	178	97	200	153	126	80	149	140	155	143	172	1,737
1일 평균 인원	5	6	4	7	5	4	3	5	5	5	5	6	5

쉼터에서는 기상, 취침시간지키기, 공동청소 및 음식준비, 간식시간 지정, 무단외출금지(위반시퇴소), 금연 등과 같은 규칙을 구두로 서약받고 있다. 흡연은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약속하에 한 두개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 보호 인원이 많을 때에는 무단외출 또는 비행모의 등을 하는 사례가 많아 관리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나. 상담활동

상담활동은 부산 쉼터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기능으로써 크게 입소자를 위한 상담과 일반청소년이나 학부모를 위한 상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입소자를 위해서는 입소기간동안 쉼터에서 정한 일정표에 따라 개별상담, 집단상담 및 교육을 행하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을 확립케 하고 더 나아가 입소 후 변화된 행동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사후지도를 행하고 있다. 집단상담은 주로 학교와 부모의 추천 및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가출, 성문제, 가정문제, 이성문제, 약물남용, 학교폭력, 비행예방, 학업, 진로, 여가활동 등이다. 일반청소년이나 학부모를 위해서도 전화상담, 면접상담, 집단상담, 서신상담 등을 하고 있다. 상담업무를 위해 업무일지, Intake Sheet, 상담기록대장을 비치·운영하고 있다.

다. 교육활동 및 사후지도활동

가출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자녀지도방법과 대화방법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사후 가출예방과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1997년에는 4차례 학부모교실을 실시하였다. 참가방법은 입·퇴소자 학부모들에게 전화연락을 통해 행사일정을 전달받거나 입·퇴소자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자녀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는 누구든지 전화나 면접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의사를 밝히면 된다.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가정과 사회적응상 문제를 공감하고 상호조력자의 역할 습득으로 가정 및 사회에 적응력을 높일 목적으로 또래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입·퇴소자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전문가 1명이 특강을, 쉼터 상담원과 자원봉사자는 조력자로 참가하여 입·퇴소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다양한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있다. 입·퇴소자들이 행사일정을 전화를 통해 전달받아 참가하게 된다. 1997년에는 4차례 실시되었다.

부산시내 여자중·고등학교 중 가출 등의 문제로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자 등의 처분을 받아 특별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또는 집단상담을 통해 가출의 예방 및 학교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도모하고 있다. 참가방법은 학교내 징계처분을 받아 특별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추천하여 공문과 함께 교육을 의뢰하면 된다. 쉼터의 상담원이 교육대상자의 수와 교육기간에 맞추어 교육 일정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교육이 끝난 후 교육 확인증을 각 학교로 발송하고 있다.

바. 홍보·협력활동

홍보활동으로는 언론매체 홍보, 각 학교별 프로그램 홍보, 지역복지관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협조공문 발송, 생활정보지에 광고 게재, 유락시설 주변에 가출예방캠페인 및 홍보물 배포,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위해 가출예방 캠페인을 행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찾아나서

기 프로그램은 현재 하고 있지 않다. 입소한 청소년들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어서, 반사회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주민들과의 관계개선 및 협조에 노력하고 있다. 일시보호 이상의 조치를 요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주로 구청을 통하여 다른 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가정이 없는 청소년은 구청에 의뢰하여 구청에서 선정해준 시설과 연락하여 보호 인도조치를 하고 있다. 부모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양육이 어려울 때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양육포기각서’를 받은 다음, 해당구청에 의뢰하여 구청의 승인하에 관계시설로 의뢰하고 있다. 장기가출로 부모와 연락이 끊긴 경우는 부녀복지관으로 이관하고 있다.

(6) 평가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에서는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른 가출청소년쉼터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찾아와서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비율이 적었다. 쉼터 운영의 애로사항으로는 24시간 문을 열어 놓는 관계로 실무자의 야간생활지도 문제이다. 3명의 직원중 2명이 교대로 밤에 기거하며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내지 상담전문가인 실무자들이 가사까지 담당하면서 문제를 치료한다는 것은 소집단공동체생활에서 가사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볼 때 치료를 위한 시간확보와 근무효율을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5) 서울YMCA 청소년쉼터

(1) 개요

서울YMCA 청소년쉼터는 1992년부터 우리 나라 최초로 청소년쉼터라는 이름으로 가출청소년 일시보호를 실시해오고 있다. 청소년단체인 대한YMCA 연맹의 지방조직인 서울YMCA는 이 쉼터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가출청소년 대상의 상담실 및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1991년 12월 체육청소년부에 쉼터의 설치와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제안하

였다. 그 후 1992년 3월 체육청소년부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였고, 7월에는 서울시청 청소년과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제출한 제안이 받아들여져 1992년 10월 예산지원이 확정되었고, 1992년 10월 28일 청소년쉼터를 개설하게 된다.

이 후 서울YMCA 청소년쉼터에서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일시보호사업 외에도 학교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의 교육이나 또래상담자 교육,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 청소년 의식조사, 청소년가출 실태조사, 세미나, 워크샵, 가출청소년 찾아 나서기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2) 시설

기존의 서울YMCA 청소년쉼터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은 한적한 주택가이기 때문에 이미 쉼터에 들어온 청소년의 경우 안정을 취하고 쉬기에는 적합한 곳이었다. 그러나 가출한 청소년이나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모일 만한 장소와는 다소 거리가 멀고 특히 주변에 지명도가 높거나 기준이 될 만한 시설이나 건물이 없어 찾아오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문화관광부 담당부서에서는 서울YMCA 청소년쉼터에 장소 이전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서울YMCA측에서는 홍대입구 지하철역 10분거리에 위치한 서대문구 창천동의 주택을 매입해 1997년 3월 31일 이전했다.

서울YMCA 청소년쉼터는 지하1층, 지상 2층의 주택으로 대지 70평에 건평 70평이다. 1층에는 방 2개와 거실, 부엌, 창고가 있는데, 방은 각각 사무실과 초기적응실로 쓰고 있다. 2층에는 방 3개와 거실, 베란다가 있는데, 방은 각각 일시보호실, 장기보호실, 상담실 겸 숙직실로 쓰고 있다. 또한 지하에 방 1개와 거실, 주차장이 있는데, 방은 독서실로 쓰고 있다. 침실은 모두 온돌방이다. 이전의 주택은 임대였으나 이번 주택은 서울YMCA에서 매입한 것이다. 비교를 위해 이전의 주택에 관해서도 소개하면, 2층 양옥집으로 대지는 70평이고 건평은 50평이었다. 1층에는 침실과 목욕실이 각각 2개씩, 응접실과 직원 숙직실, 식당, 비품실이 각각 1개씩 있고,

2층에는 사무실, 상담실, 비품실, 배관다가 각각 1개씩이었다.

서울YMCA 청소년쉼터에서 갖추고 있는 설비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장비로는 VTR 1대, TV 1대, 오디오 1세트, 카세트 3대, 청소년용 비디오테이프 150편, 청소년권장도서 500권, 음반 및 카세트테이프 60개, 원탁 2개, 의자 20개, 책장 3개, 쇼파 2개, 긴의자 4개 등이 있다. 그 외 윗, 자치기, 바둑, 장기, 배드민턴, 공 등의 각종 놀이기구가 마련되어 있다. 상담 및 사무 장비로는 전화 2대, 소형녹음기 1대, 복사기 1대, 컴퓨터 586 DX 2대, 486 DX 2대, 레이저프린터 1대가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이불 및 요, 베개 각각 20채씩, 운동복 및 평상복 40벌, 양말, 속옷 등과 이층침대 2개, 세탁기 1대, 팬히터 2대, 전기난로 1대, 가스난로 1대, 전화기 8대, 식탁 1개, 의자 6개, 냉장고 1대, 전자렌지 1대, 선풍기 4대, 에어컨 1대, 각종 주방용품, 목욕용품, 응급약품, 운동기구 등을 갖추고 있다.

(3) 인력

서울YMCA 청소년쉼터의 인력은 운영위원회, 실무조직,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전문연구원, 대학교수, 목회자, 정부관리, 경찰관계자, 전문상담가 등 9명의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조직은 4명이고 자원봉사자는 10명이다.

서울YMCA 청소년쉼터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에는 실장 1명과 상담원 1명, 사회복지사 2명이 있다. 실장은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또한 관계부처나 학교, 병원, 직업훈련원, 긴급구호기관 등 의뢰기관과의 연계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상담원은 상담심리사로서 가출청소년뿐 아니라 일반청소년에 대한 전화, 면접, 집단 상담, 부모, 가족, 교사 및 관계자와의 상담,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생활지도와 의식주 관리, 보건·위생·안전 관리, 인간관계 및 집단활동 지도, 레크레이션·시청각교육·독서지도 등 정서교육, 진로진학 정보 제공 및 교육, 자원봉사활동·기관견학활동 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중 상담원만이 여자로서 야간생활지도자를 겸하고

있다.

이들 전문인력 외에도 식사와 세탁, 청소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파트타임 파출부 한명 두고 있다. 또한 서울YMCA 청소년쉼터에서는 대학생 및 일반인으로 구성된 10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가출청소년 찾아나서기 프로그램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4) 재원

서울YMCA 청소년쉼터의 재원은 서울YMCA 자체 예산과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기금에서 교부하는 예산이다. 1998년도 예산 중 서울YMCA 자체 부담 예산은 총 3억6천4백1십9만2천원으로 가출청소년 찾아나서기 2천1백2십만원, 가출청소년 예방사업 2천만원, 가출청소년 지원비 1천4백4십만원, 쉼터 운영비 1백5십9만2천원, 운영위원회 진행비 및 자원봉사자일례회비 1백만원, 시설유지비 6백만원, 주택구입비 3억원 등이다.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급되는 예산은 총 9천6백9십만원으로 인건비가 실무자수당 6천3십2만원, 당직수당 1천1백5십만원, 파트타임가정부 4백8십만원 등 5천3백1십2만원이고, 가출청소년 식비 2천1백9십만원, 공공요금 5백5십8만원 등이다. 98년부터 문화관광부의 지원예산이 줄어 상담직원 1명을 감원한 바 있다.

(5) 사업내용

가. 가출청소년 보호활동

1992년 10월 28일부터 1997년 9월 30일까지 서울YMCA 청소년쉼터에서 일시보호를 받은 가출청소년의 이용횟수는 총 1,825회이고 이용인원은 총 14,806명이다. 하루 평균 약 8명 이상이 이용한 것이다. 서울YMCA 청소년쉼터의 일시보호 대상자는 만 13세부터 19세까지의 여자청소년이다. 처음에는 남녀 모두를 받았었는데, 처우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여자청소년만을 전담하고 있다. 일시보호의 경우 청소년의 직접 방문을 받거나 가출청소년을 찾

아나서기도 하고 다른 상담실이나 사회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기도 한다.

쉼터로 직접 찾아오는 청소년의 경우 상담자와 면접상담을 거친 후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일시보호 중에는 내담자의 자율적 결정과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 입소를 위해서는 먼저 신상조사표(intake sheet)를 작성한다. 신상조사표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현주소, 학교, 쉼터에 오게된 경위, 가출경험 및 최초 가출시기, 가출일수, 가출 후 지낸 곳, 가족관계 등과 가출이유를 가족요인, 학교요인, 친구요인, 심리요인, 기타로 나누어 적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박스와 같다.

현재 입소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생활안내’ 책자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안내책자에는 쉼터에서 하는 일이나 원칙, 시설, 인력, 이용대상자 등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생활규칙과 생활계획표, 식단 등에 관한 내용을 실을 계획이라고 한다. 주간 일일생활계획표는 다음과 같다.

일시보호 중의 가출청소년에게는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심리검사, 사후지도 등의 상담을 비롯해 진로교육, 정서교육, 영화감상, 시청각교육, 공동체놀이, 견학관람, 등산 등의 특별활동 등 여러 가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보호는 기간이 너무 짧아 편안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진지한 상담을 통해 가출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말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중장기보호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쉼터에서 지내는 동안 책임있게 행동하며 규칙을 지키겠습니다.」

- 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선생님과 협력하겠습니다.
- ② 싸우지 않을 것이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상처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 ③ 쉼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파손하지 않겠습니다.
- ④ 외출시 선생님들께 시간약속을 한 후, 정해진 시간내에 들어오겠습니다.
- ⑤ 약물이나 술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⑥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 ⑦ 방을 깨끗이 청소하겠습니다.
- ⑧ 쉼터에서의 취침시간(오후 12시에서 오전 9시까지)을 지키겠습니다.
- ⑨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표 3-10> 서울YMCA 주간 일일생활계획표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00-8:00	기 상 / 세 면 / 아 침 식 사						
8:00-9:00	쉼 터 정 리 및 청 소						
9:00-10:00	하 루 준 비						
10:00-11:00	쉼터예배	집단활동	대청소	VTR시	집단활동	공동체	종교활동
11:00-12:00	직원회의 청소	개별상담	빨래	청	활동	활동	
12:00-1:00	점 심 식 사						
1:00-2:00	오 후 준 비						
2:00-3:00	체육활동	지회 프로그램활 용	체 육 활 동			자유시간 문화활동	빨래/사물 함/방정리 놀이프로 그램
3:00-4:00	집단활동		학습지도	악물/성 교육	독서시간		
4:00-5:00			공동체 활동		생활교육 (이미용)		
5:00-6:00			휴식/정리			휴 식	
6:00-7:00			저 녁 식 사				
7:00-8:00	학습지도	문 화 프 로 그 램		창천교회	영상/자기 성장활동	자유시간/TV시청	
8:00-9:00	자유시간			문화쉼터			
9:00-10:00	간식시간/자기탐색프로그램/쉼터생활회의						
10:00-11:00	일기쓰기/ 하루일정 정리/ 세면/ 취침준비						

나. 상담활동

상담활동은 가출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청소년 및 부모, 교사 등 청소년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담시간은 전화상담의 경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면접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심리검사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1992년 10월 28일부터 1997년 9월 30일까지 전화상담은 11,321건, 면접상담은 6,428건, 심리검사는 2,875건이 이루어졌다.

다. 교육활동

교육활동은 학교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을 비롯하여 유기정학, 무기정학, 기타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의 자퇴 및 퇴학을 방지하기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학교 외에도 상담실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전문요원, 교정기관, 교회 등으로부터의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성인대상의 상담자원봉사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활동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또래 상담자교육, 상담자원봉사자교육을 들 수 있다. 먼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1997년 현재 모두 4회 실시되었는데, 1회는 96년 1월에 종로구내 중학생 15명을 대상으로 6일간, 2회는 7월에 역시 종로구내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6일간 이루어졌다. 3회는 97년 1월에 서울시내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3일간, 4회는 7월에 역시 서울시내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5일간 이루어졌다. 활동내용은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 기본적인 교육을 비롯해 각 봉사활동 내용별로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병행했는데, 봉사내용은 환경운동 캠페인, 거리 청소, 교통지도 만들기, 여군학교 청소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래 상담자교육은 1993년과 94년에 걸쳐 일반 고등학생 15명씩을 대상으로 총 4회 실시되었다. 교육내용은 또래 상담자로서의 기본적인 역할 이해와 상담기술 훈련, 교육생인 또래들과의 집단상담을 통한 가치관 및 자아개념 형성 등이다. 이들은 교육 후 차기 또래상담자교육에서 진행보

조를 하거나 타 기관과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상담 자원봉사자교육은 1997년 1월 23세 이상의 일반인이나 상담 관련 학과 3학년 재학 이상자를 대상으로 10일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에는 청소년문화, 상담자의 역할과 태도에 관한 강의 외에 여러가지 상담이론에 관한 강의가 있다. 이 외에도 가출, 성, 약물 등 청소년문제에 관한 세미나, 역할연습, 케이스발표, 야유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청소년문제 예방활동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문조사, 환경조사, 세미나 및 워크샵등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설문조사로는 청소년가출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1996년에 이루어졌다. 또한 1997년에는 가정환경과 가출의 관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환경조사로는 1997년에 지역의 복지관 및 청소년센터 등 교육문화 환경과 노래방, 비디오방, 단란주점, 오락실 등 유해환경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세미나 및 워크샵은 매년 1회 이상 개최되고 있는데, 1995년 청소년쉼터 3주년기념 워크샵에서는 청소년쉼터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미국 가출청소년 관계법령 및 운영사례, 가출청소년을 돕는 청소년정책 공동제안 등의 발표가 있었다.

마. 홍보·협력활동

홍보활동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비롯해 사회단체와 학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가출청소년 찾아나서기 프로그램의 홍보활동이 효과적이었다. 가출청소년의 타기관 연계활동으로는 직업훈련원, 학교, 병원, 긴급구호기관에의 의뢰가 있다. 의뢰기관에 의뢰된 청소년에 대해서도 사후지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홍보·협력활동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는 가출청소년 찾아나서기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가출청소년 찾아나서기 프로그램은 1997년도부터 시작되었다. 집중적인 활동은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저녁 8시에서 새벽 2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저녁 7시에서 새벽 2시에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4월, 5월, 6월, 9월의 첫째, 셋째주 금요일마다 실시하였다. 찾아나선 장소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장소인 종로구 대학로, 강북구 미아리 및 수유리, 동대문구 청량리, 송파구 신천동, 마포구 홍대입구, 영등포구 여의도고수부지, 성동구 왕십리 및 독점고수부지, 노원구 노원전철역 등이다.

활동내용은 가출과 유해환경의 관계에 관한 설문조사, 현수막 설치 및 안내지 배포,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청소년쉼터 홍보, 청소년들에게 음료 제공, 상담, 새벽 2시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숙박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쉼터로의 이동 등이다. 운영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쉼터의 위원 및 직원, 자원봉사자 등 23명이 2팀으로 나누어 교대로 활동했는데, 역할은 상담과 홍보, 관리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장비는 9인승 승합차와 음료 제공과 안내지 배포를 위한 탁자와 접는 의자가 이용되었다. 시간대별 진행일정은 저녁 6시부터 7시에는 미리 거리상담 실시지역에 도착해 현수막, 탁자, 난방기구, 음료 등을 준비한다.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거리상담과 쉼터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중간에 10시경 컵라면, 빵 등의 야식을 제공한다. 새벽 2시 이후에는 가출청소년을 데리고 쉼터로 이동한다.

활동내용에 대한 서울YMCA 청소년쉼터의 자체평가를 살펴보면, 활동시기에 있어서는 가출이 많이 발생하는 봄과 여름방학이 적절하고 겨울에는 계절적 특성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평일보다는 주말에 시간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장소에 있어서는 청량리역 광장과 신천역 주변이 가장 적절했다고 한다. 대상 청소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홍보효과도 높았다고 한다. 대상은 가출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설정하였는데, 실제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기도 어려웠고, 문제청소년이 아니더라도 가출의 가능성은 있

는 것이므로 적절한 설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거리상담의 케이스는 예상보다 매우 적었으나 차후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보활동에는 현수막 설치, 안내지 배포, 엽서, 불펜, 열쇠고리 등의 홍보물 배포가 있었는데, 청소년쉼터를 알리는데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음료제공은 이용자가 적어 차후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6) 평가

서울YMCA 청소년쉼터는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로써의 청소년쉼터를 운영함으로써 이후 문화관광부가 다른 청소년쉼터를 지원할 때마다 운영지침의 기준으로 삼을 만큼 체계적이고 모범적인 운영을 해왔다. 서울YMCA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에 있어 거의 불모지였던 상황에서 출발하여 청소년쉼터라는 것을 하나의 제도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은 쉼터의 위치였다. 이전의 위치는 특히 한적한 주택가라 문제가 더욱 심각했었지만 이전한 곳 역시 주택이기 때문에 이곳을 몰아서 찾아오려면 ‘서울YMCA 청소년쉼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그렇게까지 물어가면서 찾아올 것인지 의문이다. 차후 새로이 청소년쉼터를 개설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위치상의 문제는 아직도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새로 이전한 곳은 지하철역으로부터 걸어올 수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므로 이전보다는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었으리라 보고 또한 주택의 분위기나 내부 구조 등은 청소년쉼터로써 매우 적합한 것으로 보였다.

다른 하나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임에도 불구하고 일시보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들이 가출청소년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청소년 사업에 치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장기적으로는 가출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

업들은 다른 청소년단체에서도 실시할 수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청소년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일시보호하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더 다양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일시보호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97년부터 가출청소년 찾아 나서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인 방침을 가출청소년을 찾아나서기 보다는 찾아오는 청소년을 기다리는 것이다. 물론 매일매일 찾아다닐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알아서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위치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인데, 장소의 이전과 보다 적극적인 홍보, 가출청소년 찾아나서기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6) 신림지역 청소년쉼터

(1) 개요

대한성공회 신림지역 청소년쉼터는 1998년 5월 1일에 개소한 가출청소년쉼터이다. 종교단체인 대한성공회는 이 쉼터 외에도 봉천동에서 이미 나눔의 집 청소년쉼터를 1995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쉼터는 1998년 2월 서울시의 위탁단체 공모와 심사를 거쳐 그 간의 나눔의 집 청소년쉼터의 운영경험이 높이 평가되어 선정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시설

대한성공회 신림지역 청소년쉼터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상가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2호선 신림역으로부터 도보로 10분 정도의 거리이다. 신림동은 관악구의 중심지로서 유흥향락업소가 밀집해 있고, 노량진의 학원가나 구로동의 유흥가, 영등포역전의 매춘지역과 인접해 있어 문제있는 청소년의 접근

이 용이하다. 또한 봉천동, 신림동 일대 재개발지구는 결손가정, 저소득, 불량한 주거환경 등 열악한 가정환경과 건전한 청소년문화공간 부재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가출과 배회가 많은 곳이다.

대한성공회 신림지역 청소년쉼터는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을 임대하고 있는데, 총임대평수는 100평이다. 내부공간에는 침실 2개, 소그룹활동실 2개, 휴게공간, 식당, 소극장,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숙직실이 각 1개씩 있다. 침실은 온돌방과 침대방으로 나뉘어져 있다. 설비는 TV 및 VCR, 오디오 각 2개씩이 있고 침구 20채를 갖추고 있다.

(3) 인력

대한성공회 신림지역 청소년쉼터의 인력은 소장,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실장, 상담보호부, 교육문화부, 조사연구부, 총무부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위원회는 사회복지관련 학자나 청소년관련단체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해 연 2회 사업내용이나 방향 등에 관해 자문을 받고자 한다. 운영위원회는 기관대표와 실무자, 관련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해 월1회 회의를 통해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과 방향을 결정한다. 실무조직은 실장을 포함하여 총 8인이다.

대한성공회 신림지역 청소년쉼터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에는 실장 1명, 보호담당 3명(남자), 상담원 1명(여자), 조사연구원 1명(여자), 행정담당 2명(남/여)이 있다. 숙직은 보호담당직원 3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들 중 2명은 그곳에서 24시간 생활하고 있다.

상담보호부에서는 전화상담, 면접상담, 심리검사, 거리상담, 숙식제공, 피복, 의료 등의 서비스제공, 자율적 휴게공간 운영 등을 담당한다. 교육문화부는 문화소그룹활동, 공연 및 행사, 자율적 문화공간 운영, 정보이용방 운영, 직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 실습생 지도, 지역청소년 교육사업 등을 담당한다. 조사연구부는 사례집이나 조사보고서 발간, 세미나나 포럼 개최 등을 담당한다.

대한성공회 신림지역 청소년쉼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이들을 위해 월1회 자원봉사자 월례회의를 개최해 자원봉사 활동내용에 대한

교류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4) 재원

대한성공회 신림지역 청소년쉼터의 재원은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금과 서울시의 지방비, 자체예산이다. 1998년도 예산은 총 3억2천5백8십2만원이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2천9백5십만원으로 상담보호사업비 9백8십4만원, 문화사업비 1천2백6십만원, 교육사업비 7천6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비는 2억8천6백3십2만원으로 인건비 2억7만원, 운영비 4천8백만원, 사업비 3천8백2십5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예산으로는 건물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5) 사업내용

가. 가출청소년 보호활동

대한성공회 신림지역 청소년쉼터의 일시보호 대상자는 만 12세부터 20세까지의 남자청소년이다. 1일 최대 수용인원은 20명이고 한사람의 최대 수용기간은 1개월이다. 숙소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이다. 낮시간에는 자율적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곳도 최대 이용가능 인원은 20명이고 이용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이다. 이곳에는 책, 음악, 영화, 음료, 휴식에 필요한 기구들이 갖추어져 있다.

입소는 청소년의 내방이나 거리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입소후에는 상담과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그러나 퇴소의 경우는 이 쉼터가 개방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퇴소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시보호를 받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각종 심리검사 등 상담서비스를 비롯해 식사, 피복, 위생, 의료 등 생활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집단활동으로써 심성훈련 프로그램, 성이나 약물에 관한 프로그램, 지역봉사 프로그램, 야외활동, 교육활동, 문화활동, 취미활동이 실시된다.

이곳은 비교적 일시보호기간이 길어 단기보호의 기능을 겸하고 있고 중장기보호를 요하는 청소년의 경우 타 기관 의뢰를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여자청소년의 경우 이미 운영중에 있는 나눔의 집

청소년쉼터와 연계한다.

나. 상담활동

상담활동의 대상은 제한이 없어 가출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청소년, 부모, 가족 누구든 관계가 없다. 상담시간은 전화상담의 경우 24시간 운영하고 면접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심리검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이다.

다. 교육활동

교육활동으로는 지역청소년교육, 보호관찰청소년교육, 직원교육, 자원봉사자교육이 있다. 지역청소년교육은 비행이나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나 쉼터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중고등학교의 의뢰를 받아 심성훈련이나 성교육, 약물교육, 심리극 등 소집단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호관찰청소년교육은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보호관찰청소년을 보호관찰소로부터 의뢰받아 사회봉사활동 뿐 아니라 심성훈련이나 성교육, 약물교육, 심리극 등 소집단활동, 취업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직원교육은 주1회 2개월씩 일년에 2회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가출청소년을 위한 각종 사회사업적 접근방법,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제도 및 대안 개발을 위한 강의 등이다. 자원봉사자교육은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수별 30명씩 주1회 4주씩 일년에 2회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및 기술교육이다. 이러한 교육활동 외에도 가출관련 연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사례집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

라. 문화활동

일시보호 청소년 및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먼저 매주 1, 2회씩 문화교실을 열어 연극이나 영화, 노래창작, 영화감상, 노래부르기, 춤, 밴드, 풍물 체험을 하도록 하고, 연 2회 문화캠프를 개최한다. 또한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율적 문화공간 개

방을 통해 각종 문화관련 소그룹 활동장소로 이용하게 하고, 청소년정보 이용방도 같은 시간동안 개방하여 청소년이라면 누구든 정보교류의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월 1회 거리간이문화마당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연 1회 거리문화축제를 개최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고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개방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다.

마. 홍보·협력활동

주요한 홍보활동으로는 거리상담과 안전지대 설치가 있다. 거리상담은 관악지역의 유흥가 및 신림역, 보라매공원, 녹두거리, 학교주변, 재개발지역의 빈집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배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1회 저녁 9시부터 새벽3시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수행방법은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거리상담팀이 차량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 배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활동과 기관홍보물 배포, 식사제공 등의 서비스를 한 후 청소년쉼터의 일시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거나 타기관에 대한 정보 및 의뢰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사는 매회 30명 정도에게 제공할 계획이고, 홍보물로는 전화카드나 성교육, 약물교육 소책자 등을 나누어줄 계획이다.

안전지대 설치는 청소년들이 밀집하는 관악구내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카페, 호프집 등 유흥업소와 만화방이나 편의점, 분식점, 문방구 등 학교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비행이나 가출로 도움을 요청할 때 이들을 청소년쉼터로 연결시켜주거나 응급적인 구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지대 설치와 활성화를 위해 월 2회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타 기관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협력활동으로는 지역사회 청소년기관 연계, 교육기관 연계가 있다. 청소년기관 연계활동은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회관, 청소년상담실, 민간 청소년센터,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담당부서를 연계하여 연 1회 포럼을 개최

해 지역사회의 중요 청소년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연 2회 간담회를 개최해 청소년관련 자원 및 실무자간 연계망을 구축한다. 교육기관 연계활동은 중고등학교 학생부와 진로상담부 교사, 교원단체, 교육청 담당부서를 연계해 비행 및 가출, 학교부적응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를 학교와의 협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연계망을 구축하고 연 1회 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 외의 협력기관으로는 병원의 진료를 요하는 청소년이 있는 경우 주변에 있는 개인병원의 후원을 받아 무료로 진료를 받기로 되어 있다. 또한 직업훈련이 필요한 청소년의 경우는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관악자활지원센터’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한다.

(6) 평가

대한성공회 신림지역 청소년쉼터는 나눔의 집 청소년쉼터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행착오의 우려가 적고, 또한 한 기관에서 2개소의 쉼터를 운영함으로써 일시보호 대상자를 성별로 분화해 전문적으로 운영한다는 데에 주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위치에 있어 문제가정이 많고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선정했으며, 또한 상가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서대로 실제 사업이 운영될 지는 미지수인 상태이다. 또한 계획서상의 내용 대토라면 사업의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여 가출청소년쉼터가 아니라 지역청소년센터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소 또는 단기보호소는 본래의 기능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7)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

(1) 개요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는 각종 비행의 유혹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년을 보호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 일시보호 및 선도를 통하여 가정과 학교에 복귀시킴으로써 청소년 비행과 탈선을 예방할 목적으로 1997년 4월 9일 문화관광부와 인천광역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설치되었으며,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다. 업무 추진방향은 청소년보호는 일시보호를 원칙적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종합상담실과 연계운영하며, 지역내 자원봉사자 관리체계 확립으로 사업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쉼터 이용자는 만 9세부터 18세까지의 남녀 청소년으로 하고 있다. 일시 최대수용인원은 10명이다.

(2) 시설

지하철 1호선 동인천 역에서 내려 자유공원쪽으로 걸어가다보면 홍예문 골다리를 지나기 전에 인천청소년쉼터 홍보 간판이 나오고, 홍예문을 지나면 길안내 뜻말이 나오고, 옆길로 올라가는 길 입구에 쉼터 간판이 있고, 골목을 조금 올라가면 가정집 대문에 쉼터 현판이 직사각형으로 걸려 있다. 쉼터가 한갓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집은 일본사람이 살던 적산가옥이다. 조금 좁은 느낌이 든다. 주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2가 1번지로 되어있으며, 건물형태는 2층 단독주택으로 48개월 전세로 임대하고 있다. 시설규모는 부지 41평 건물 59평이다. 내부 공간은 <표 3-11>과 같으며, 이 밖에 조그만 마당과 화원이 있다. 불교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어서 그런지 참선실을 두고 있는 것이 다른 청소년쉼터와 다른 점이다. 주요비품 및 장비로는 컴퓨터(1), 프린터(1), 복사기(1), 책상(6), 전화기(1), 탁자(1), Fax(1), 세탁기(1), TV(1), 비디오(1), 오디오(1), 서고(3), 냉장고(1), 식기전조대(1) 등이 있다.

<표 3-11>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의 내부공간

구 분	개 수	1개소당면적(평)	총사용면적(평)	비고
사무실	1	9	9	1층
직원숙직실	1	3	3	
남자침실	2	5	10	
욕실	2	2	4	
식당	1	3	3	
상담실	1	5	5	2층
상담대기실	1	3	3	
프로그램운영실	1	10	10	
참선(명상)실	1	5	5	
여자침실	1	5	5	
욕실	1	2	2	

(3) 인력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의 조직은 실장 1명, 사감교사 1명, 지도교사 2명, 파트타임가정부 1명, 야간자원봉사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조직원수는 4명이나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밖에 연구지도위원 10명, 운영위원회 10명,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청소년지도사, 상담심리사, 중등2급교사자격, 사회복지사1급 등이다. 쉼터의 직책별 자격 및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3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 사람은 일주일에 이틀 숙직을 맡아주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웃 복지관에서 미술강사를 하는 사람으로 아이돌 미술지도를 해 주고 있다. 또 한 사람은 독일에서 상담공부를 한 사람으로 가출청소년 한명을 전담해서 퇴소할 때까지 직접상담, 전화상담을 해 주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3명으로 충분하고 더 많아도 관리가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다. 야간자원봉사에 한하여 월 100,000원의 예

산이 지출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에서는 팜플렛에 다음과 같은 자원봉사자 모집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자/원/봉/사/

❶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강하고,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
(직장인, 주부, 대학생 등 각 분야별 활동 가능)

❷ 봉사희망 가능분야 : 전화상담, 노력봉사 (청소보조, 식사보조)

업무보조, 야간 숙직, 거리선도, 심성훈련 등

❸ 봉사활동은 요일별 시간별로 구분하여 운영

❹ 자원봉사 가능한 일자 확인 후 개인사정에 맞춰 계획표 조정

** 야간숙직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입니다. **

☞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소중한 시간을 조금씩 나누어, 저희 청·교·련 「인천광역시」가
전개하고 있는 가출청소년 예방 사업에 함께 하시어, 보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761-4855)

<표 3-12>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의 직책별 업무분담

직 책	대 상	기 능
실장 1	· 청소년육성 관련분야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관련분야 자격취득 및 경력자 우대	· 운영책임 : 인사, 재정, 지도력관리, 연구활동 등 · 타기관 연계활동 : 각위원, 협력기관, 교사와 협력 각종사업관장 · 홍보사업 담당
지도교사3	· 청소년육성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우대	· 가출청소년 전화, 면접, 집단 상담 등 · 부모, 가족, 교사 및 관계자 상담 · 쉼터청소년 생활지도 및 관리 · 가족과의 연계활동 · 쉼터의 의식주 관리, 보건위생, 안전관리 · 위탁기관 선정 · 프로그램진행 및 진로, 진학 정보제공
운영위원회10	· 청소년지도사, 의료인, 대학교수, 경찰관계자, 청소년전문가 등	· 쉼터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자문 ·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방법, 기술, 지식제공 · 전문상담과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동 수행 · 운영위원회 개최 · 가출청소년 예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연구지도위원 10	· 학계 및 청소년관련 전문가 및 종교인	· 가출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 · 비행 사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자원봉사자	·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열의를 갖춘 자로 청소년에게 관심이 있는 지도자, 주부, 대학생 등	· 쉼터운영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자원연결활동 수행 · 상담세미나, 사례연구 발표회 개최

(4) 재원

1998년 재원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2,950만원과 부산광역시청에서 지급되는 지방비 2,950만원 그리고 민자 900만원, 도합 6,800만원을 확보하고 있다. 인건비 및 출장비로 3,084만원, 가출청소년식비 및 사후조치비 등으로 지출되는 급양비로 1,620만원,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으로 400만원, 생활용품비 및 사무용품비 등의 수용비 및 수수료로 796만원, 민자 900만원은 급식비, 운영비, 관리보조비로 사용되

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에서는 팜플렛에 다음과 같은 후원자 모집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후/원/회/원/

- 재정 도움을 주실 분 (1구좌 10,000원)
- 자료 도움을 주실 분 (책, 비디오테이프, 잡지 등)
- 계좌번호 : 017-13-1-00002168

예금주 : 청소년교화연합회

실무자는 운영상의 어려운 점으로 주로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을 들고 있다. “불충분한 예산으로 인해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으며, 현재 책정된 이용자 개인별 생활비로는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왕성한 식사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활동량이 풍부한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내려면 각종 오락도구와 운동기구가 필요하다(탁구대, 샌드백, 아령, 컴퓨터 등). 가정으로 돌아 갈 수 없는 집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장기적인 보호기관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어 사후 조치비용이 반드시 책정되어야 하며, 직원들의 보수개선이 필요하다. 급여 수준 및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5) 사업내용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는 하는 일을 일시보호사업과 가출예방사업으로 크게 나누고 있다. 일시보호사업은 다음과 같다. 일시보호서비스를 통해 무료숙식제공, 의복제공, 교통비지급 등을 하고 있다. 가출상담서비스로는 개별상담, 부모상담, 심리검사, 의뢰활동, 사후지도상담 등을 하고 있다. 교육문화서비스를 통해 진로교육, 심성훈련, 영화감상, 독서지도 등을 하고 있다. 위탁부모제 운영을 통해서도 거처할 곳이 없는 청소년을 연고지

내의 각 사찰과 연계하여 위탁부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거리선도(outreach)를 통해 밤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상담을 통해 귀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상담서비스로 면접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으로는 학교순회교육, 학부모교육, 또래집단 도우미 교육,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등을 하고 있다. 연구조사활동으로는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청소년문제 연구조사 및 사례 발표 세미나 등을 하고 있다. 출판 홍보사업으로 가출청소년 연구조사자료집, 상담사례집, 부모교육자료, 쉼터소식지 등을 출판할 예정이며, 언론매체, 사회단체, 학교, 지역사회 등에 쉼터 이용방법 및 안내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가정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가. 가출청소년 보호활동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의 가출청소년 보호활동은 순간의 충동으로 소속사회로부터 이탈된 가출청소년들에게 일시적 안식처 제공과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 가정과 학교에 복귀시키고, 지역사회 연결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7년 4월 9일 개소 이후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에서 보호처우를 받은 가출청소년의 수는 150명이고, 횟수로는 696회이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직접적인 도움 요청이나 학교 선생님 또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상담기관이나 관련기관의 의뢰를 받을 수 있으며, 직접방문 하였을 때는 의뢰자 및 내담자의 상담을 거친 후 입소를 결정한다. 보호기간은 가출청소년의 개인적 상황, 부모의견, 쉼터 운영위원회 의견을 고려하여 신중적으로 2주이내의 일시보호, 2개월 이내의 단기보호, 6개월 이내의 중기보호를 하고 있다. 가출청소년들이 하루이상을 쉼터에서 지낼 경우 재가출을 예방하고, 가정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며, 가출충동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있

다. 입소기간 동안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학습지도, 생활지도, 개인상담을 하며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마음을 열게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1층과 2층의 벽에는 쉼터의 규칙인 서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다음과 같은 ‘우리의 약속’이 붙어 있었다.

- ① 나는 쉼터에서 지내는 동안 책임있게 행동하며 규칙을 지키겠습니다.
- ②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선생님과 협력하겠습니다.
- ③ 나는 약물이나 술을 가져오지도, 사용하지도 않겠습니다.
- ④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 ⑤ 나는 싸우지 않을 것이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상처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 ⑥ 나는 쉼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파손하지 않겠습니다.
- ⑦ 나는 남자/여자의 방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선생님의 허락없이 사물실이나 상담실에 들어 가지 않겠습니다.
- ⑧ 나는 방을 깨끗히 청소하겠습니다.
- ⑨ 나는 외출시 선생님들께 시간약속을 한 후, 정해진 시간내에 들어오겠습니다.
- ⑩ 나는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을 14일 이내의 일시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쉼터의 위치 때문에 입소 청소년이 대부분 모두 중단기보호를 요하는 청소년들이다. 입소청소년들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주로 의뢰가 오며, 대부분 노숙아들로 가정에서 양육조건이 안되는 아이들이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에서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은 여자 아이 3명, 남자 아이 2명으로 모두 5명이다. 그 중에 고1 여학생은 모친의 결벽증과 학대와 폭행 때문에 모친과의 합의하에 쉼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야간학교에 다니는 중3 여학생이 있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여자아이가 있다. 남자 청소년은 18살의 정신지체 노숙아, 그리고 초등학교 4학

년이다. 초등학교 4학년은 본인의 이름조차도 자주 바뀌고 있다고 한다.

<표 3-13>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 생활일정표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08:30-09:30	일어나기, 아침식사					
09:30-10:30	휴식	청소, 휴식	청소, 휴식	청소, 휴식	휴식	청소, 휴식
10:30-12:30	미가엘복지 관(탁구) 산책(공원)	독서(화도진 도서관)	미가엘 복지관 (탁구)	상상하기 (심성훈련)	배드민턴, 농구, 스케이트 보드 타기	산책
12:30-13:30	점심식사	점심준비 및 식사	점심식사	점심준비 및 식사	점심식사	점심준비 및 식사
13:30-15:00	자유시간	청소년회관 나들이	자유시간	자유시간	자유시간	자유시간
15:00-16:00	약물예방교 육 및 성교육		1.음악감상 2.레크리에 이션	집단상담(심성훈련)	즐거운 미술시간	나는 요리사
16:00-17:00	개별상담		자유시간	개별상담		
17:00-19:00	TV시청					
19:00-20:00	저녁준비 및 식사					
20:00-22:00	자유시간 (간식·화,토)					
22:00-23:00	일기쓰기					
23:00	꿈나라					

* 전체 일정은 있으나 개인적인 상황(중퇴청소년, 등교 청소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됨.

입소자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일정표가 있지만 그대로 실행하기는 힘들고, 생활 속에서 마음을 열게 하려 하고 있으며, 형편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실무자는 프로그램 실행률을 50%로 평가하고 있다. 일정표가 있는 것이 교사들과 청소년들의 생활에 프로그램을 해야한다는 긴장감을 주고 있다.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생활하면서 대하는 태도, 말을 건내는 것, 같이 앉아 있는 것 등의 모든 상호작용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출청소년들은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나. 상담활동

상담업무를 위해 상담운영일지, Intake Sheet, 상담기록대장을 비치·운영하고 있으며, 내담자의 자율적 결정과 비밀보장을 우선시 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및 비행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용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서신상담, 심리검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있다. 1997년 4월 9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상담 횟수는 전화상담이 161회, 내방상담이 25회, 심리검사가 17회, 서신상담이 1회이다.

<표 3-14>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 상담서비스 유형

유형	과 정
전화 상담	· 시 간 : 오전 10시-오후 8시 · 소요시간 : 10-60분 · 장 소 : 개인상담실이용 · 상담방법 : 실무자상담 (고유번호 지정)
개인 상담	· 시 간 : 오전 10시-오후 8시 · 장 소 : 개인상담실이용 · 상담방법 : 실무자가 내담자(가출청소년) 1명을 첫면접에서 상담종결까지 책임을 진다(전용상담원제) · 상담과정 : 면접 → 심리검사 → 상담진행 → 상담종료 → 귀가 및 진로
집단 상담	· 목 적 : 쉼터를 이용한 가출청소년들의 인간관계훈련과 자아 이해를 증가시킨다. · 상담방법 : 가출청소년 5- 10명과 실무자(리더)1명으로 구성되어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 · 기 간 : 주 2- 3회 · 실시대상 및 과정 : 쉼터를 퇴소한 학생과 쉼터 이용청소년과 함께 2박3일과정으로 진행 · 프로그램의 종류 : 심성훈련 프로그램, 자기성장 프로그램, 현실요법집단 프로그램, 감수성훈련 프로그램 등 ※ 인원의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 조정
가족 상담	· 목 적 : 가족 중의 한사람의 문제는 가족 체제의 문제성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가출청소년 개인의 문제를 가족과 함께 상담에 참여하여 가족 내 갈등을 이해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가출 청소년의 문제를 온 가족이 돕도록 노력한다. · 실시방법 : 부모가 가출청소년과 동반하여 상담을 의뢰할 경우에 우선으로 실시하며, 상담진행 동안 필요한 경우 가족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심리 검사	· 목 적 : 초기 면접상담후에 실시하고, 내담자의 문제유형을 분석, 분류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진단을 내려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다. · 종 류 : 다면적 인성검사(MMPI), 성격유형검사(MBTI), 개인용 지능검사(K-WAIS), 성격진단 검사, 적성 진단 검사, 나무그림 검사, 미완성 문장검사, 직업흥미검사 등
서신 상담	· 편지를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문제를 상담 · 전화 대면 상담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적용

다. 교육활동 및 청소년문제 예방활동

청소년 스스로 자기의 현재모습을 되돌아보게 하고 앞날을 설계하게 하며, 자아존중과 또래집단을 이해하기 위한 청소년 자기진단 토론회를 열고 있으며, 학교징계청소년, 가출청소년, 학교 특별활동반, 수학여행잔류인원 등을 모집하여 집단상담, 문화활동, 일상생활활동, 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리 및 상담에 대한 이해, 상담자 반응 훈련, 의사소통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도교육 프로그램으로 연중 심리극, 공동체, 영화감상, 독서 및 토론, 생활체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어머니 모임을 만들어 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청소년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대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다.

징계 대상 중·고등학생을 위한 「특별교육이수」 프로그램 일정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날은 Intake 및 성격검사, 별칭짓기(자기소개) 나의 장단점, 나를 알아 맞추기, 약물예방교육(실험을 통해 본 흡연, 음주, 약물의 해), 문장 완성하기,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들, 나는 누구인가, 소감문 작성하기, 둘째 날 오전은 창문열기, 자아성찰(내가 본 내모습), 자원봉사 사전교육, 둘째날 오후부터 네째날까지 장봉 해림재활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 내용은 식당 설거지 및 식당청소, 기술실 보조, 외부화장실청소, 화단제초작업, 장애인복지관련 비디오시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섯째 날은 결혼관 정립을 위한 성찰, 결연자에게 편지쓰고 보내기, 삶에 대한 성찰, 화단가꾸기, 성교육 비디오,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그리기, 공격적인 나, 비공격적인 내 모습 살피기, 행복에 대한 성찰, 소감문 작성하기, 여섯째 날의 오전 일정은 쉼터 봉사활동, 길벗봉사단 자원봉사 활동으로 노인과 실직자를 위한 무료급식을 하고, 점심 이후 일정은 인생 목표 설정, 사랑의 이불덮기, 소감문 작성하기 및 마무리이다.

라. 홍보·협력활동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쉼터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은 1998년 4월 30일 밤

거리를 배회하거나 유흥업소를 전전하는 청소년을 직접 만나 쉼터를 소개해주고 쉼터에서 지내면서 상담을 통해 귀가하도록 유도하고자 가출청소년 찾아나서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장소는 월미도, 주안역 부근 및 유흥업소 주변이었고,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준비물은 프래카드, 홍보전단지, 쉼터 홍보용 기념품 등이었다. 작년에도 두 차례 가출청소년 찾아나서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가출청소년을 쉼터로 인도하는 성과는 미미했다.

홍보는 지역신문 등 지역사회에서 협조를 잘 해주고 있다. 홍보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으며,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의뢰할 곳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한다. 인천에서 아이를 보육원에 의뢰하려면 부녀복지관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거절하기 때문에 힘들다. 요새는 안산의 ‘동지 청소년의집’에서 스님이 30-4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서 그 쪽에 의뢰하고 있다. 각종 언론매체, 지역정보지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며, 유관단체에 안내지 발송을 하고 있으며, 사회단체, 학교, 지역사회 등에 쉼터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각종 보고서, 상담사례 연구집, 쉼터소식지 제작 배포를 통한 출판홍보를 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과의 관계개선 및 협조도 중요하다. 처음 쉼터가 들어설 때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작년에는 과출부가 자기가 굶으면 굶었지 나쁜 아이들(가출청소년들)에게 밥해주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만두어서 곤란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인근주민들이 김치 등의 밑반찬을 가져다 줄 정도로 주민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가출청소년들의 의식조사 및 실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홍보활동도 하고 있으며, 각 학교 지도교사 초청간담회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가출실태, 가출청소년들의 욕구조사 등 청소년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학교에 제공하여 주고 있다.

학대받는 청소년, 보호받을 곳 없는 청소년 및 상습적이고 장기적인 가출청소년들을 장기보호기관과의 연계, 위탁부모제 및 자매결연 추진 등

을 통하여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체 및 직업 훈련원과 연계하여 가출청소년의 취업알선 및 재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각급 학교 및 교육청과 연계하여 검정고시 및 재진학을 원하는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가정으로 복귀를 거부하는 가출청소년을 연고지내 사찰과 연계하여 사내 생활을 통한 정서순화와 자아반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사회사업(복지)학과 대학생, 사회교육 관련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담이론, 전화 및 면접상담 실습, 시청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5월에 청소년들이 흥미로워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청소년대축제, 6월에는 청소년을 초대하여 쉼터를 공개하고 쉼터에서 봄날의 축제를 여는 쉼터 오픈하우스를, 7-8월에는 청소년이 자연과 접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청소년캠프를 열 계획이다.

(6) 평가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는 일시보호를 주로 하기에는 현재의 위치가 너무 한적한 곳에 있다. 현재 노숙아, 만성가출청소년, 학대청소년 등 중장기보호를 요하는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쉼터의 위치와 무관하지 않다. 쉼터의 위치 및 시설에 대한 직원의 바램은 우선 쉼터의 위치가 학교와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해서 아이들이 많이 북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쉼터가 가출청소년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일반청소년에게 상담, 성격검사, 또래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규모도 현재의 2배 정도였으면 하고, 여러 문화시설을 해 놓아서 아이들이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리고 처음 쉼터를 만들려면 큰 침실 2-3개보다는 작은 침실을 5-7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혼자 있고 싶어하고, 또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며, 또한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비행학습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입소 아이들을 위한 생활비가 부족하고 설비도 부족한 형편이며, 낮은 급여수준 때문에 직원의 자아 존

중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3. 순수민간 가출청소년쉼터 운영현황

1)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청소년쉼터

(1) 개요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 중기보호시설로 지역사회에서의 필요성에 입각해서 미국의 집단가정을 주모델로 하여 1995년 5월에 빈곤지역 청소년들에게 예방적인 교육문화프로그램과 가정내 폭력이나 적절치 못한 보호로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이 쉼터의 목적은 빈곤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과 문화의 기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빈곤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곳은 복잡한 문제를 가진 가출청소년을 위한 ‘치료적 보호센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성공회쉼터는 결손가정 청소년, 가정내 폭력, 유기, 방임으로 가출한 13세에서 19세까지의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전문가들이 복잡한 문제를 가진 가출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문제행동을 고치고자 한다. 이곳은 갈 곳이 없는 가출청소년, 특히 중학교를 중퇴하거나 중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여학생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별상담, 가출청소년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종교활동 및 공부방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 시설

가출청소년 이용시설이 아닌 수용시설로서 8- 10명 정도(보통 8명)의 가출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집단가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봉천동 산

동네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며, 2층으로 내부공간은 식당, 생활방, 프로그램활동실, 침실 2개, 공부방, 상담실, 사무실, 화장실 2개로 되어 있다. 침실은 온돌방으로 1층과 2층에 각각 하나씩 있는데 각각 4명, 5명씩 생활하고 있다. 1층 침실은 부모와 학교의 위탁을 받아 단기보호를 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침실이며, 2층 침실은 장기적인 보호를 받으며 학교에 나가거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침실이었다. 설비는 TV 2대, VCR 2대, 오디오 2대, 소파 2개, 각종 운동기구들과 서적들(참고서, 정기간행물, 소설, 만화), 그리고 학교에 복학할 준비를 위한 공부방에는 책상이 3개 있었다. 아이들이 주로 외향형이 많아서 시설 내에 있는 것을 답답해 한다. 야외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넓은 마당이나 정원이 있어 운동을 하고,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는 활동을 하였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한다. 아이들도 바라는 점이 자유 그리고 공간이 넓었으면 하는 것이다.

(3) 인력

인원은 실장, 생활지도교사 1명, 상담 지도자 1명, 집단활동 지도자 1명 모두 4명, 그리고 9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 현재 실장은 새로 생긴 가출청소년쉼터에 지원나가 있어 직원 3명이 운영하고 있다. 직원의 급여수준은 연봉 900-1,000만원이라고 한다. 직원은 모두 사회복지사이자이다. 현재 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10명이며, 모집홍보도 하지만 대부분 인맥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인맥을 통해 들어온 봉사자가 더 책임감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쉼터 직원의 의견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사회복지 전공자이며, 집단활동 기획, 진행, 평가하는 일과, 장보기나 음식장만과 같은 생활보조의 일을 하고 있으며, 개별상담은 자원봉사자에게 맡기지 않고 있다. 야간숙직은 생활자 사회복지사 1인이 상근하며 야간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4) 재원

후원금으로 설립기금을 마련하고 민간의 프로젝트 등으로 사업비를 일부 조달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후원금과 프로젝트사업비 등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키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받지 말자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 전시행정이나 양적인 수치를 보이기 위한 일에 신경을 써야 되고, 문서작성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겨 의미있게 일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수준을 맞추어야 한다. 하지만 문화관광부나 구청, 기업 등에서 프로그램별로 지원은 받고 있다. 보호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상담교사와 의논하여 한달에 5- 20만원 정도, 보통 10만원 정도의 입소비용을 받고 있다. 부모가 가난한 경우는 무료이다.

(5) 사업내용

가. 가출청소년 보호활동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청소년쉼터가 개소한 1995년 5월부터 1998년 4월 현재까지 보호인원은 총 51명이며, 학교의뢰가 47%, 부모(보호자) 의뢰가 44%, 스스로 찾아온 경우가 6%, 경찰서에서 의뢰한 경우가 3%이다. 현재는 2층에 장기보호를 받으며 학교나 학원에 나가는 청소년이 5명 생활하고 있고, 1층에는 학교나 부모의 의뢰로 들어온 청소년 4명이 단기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청소년쉼터에서의 보호활동은 입소, 적응단계, 문제해결단계, 종결단계, 퇴소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보호기간은 3개월을 상한선으로 하되, 그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가출청소년의 개인적 상황, 부모의 의견과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1- 2개월 연장되기도 한다.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청소년쉼터의 생활수칙에 나타난 입소절차를 살펴보면, 입소는 입소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개별면담을 통해 양자의 동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청소년이 단

독으로 보호 및 입소를 요청한 경우 일시보호를 전제로 보호자와 연락한 후 보호자의 동의하에 입소절차를 밟는다. 입소절차는 청소년과 보호자, 담당선생님이 동석한 자리에서 입소서약서와 입소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재학중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와의 협의후 입소기간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쉼터에서 생활하는 기간을 학교 출석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입소시 소정의 소지품검사과정을 거치게 되며 기관에서 금지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기관에서 보관하거나 집으로 돌려보낸다. 서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쉼터에서 하는 일들

- ① 숙식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제공한다
- ② 가정과 학교생활의 주인이 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③ 최선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법적, 정서적, 교육적, 사회복지적)을 제공한다
- ④ 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성, 약물, 심리극, 자아성장), 야외활동(캠핑, 소풍)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 는 다음과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 ①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와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② 나는 쉼터에서 지내는 동안 책임있게 행동하며 규칙을 지킬 것입니다
- ③ 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열린마음으로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④ 나는 약물이나 담배, 술을 가져오지도 사용하지도 않겠습니다
- ⑤ 나는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싸움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⑥ 나는 쉼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파손하지 않겠습니다
- ⑦ 나는 선생님의 허락없이 전화나 외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 ⑧ 나는 입소, 퇴소 때 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소는 상담선생님과 본인, 부모님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집니다
- ⑨ 내가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 ⑩ 만약 규칙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것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부터 라이터, 성냥, 술, 담배, 향수, 귀걸이, 색조화장품, 금전 등은 다른 곳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술, 담배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쉼터에 들어올 때 가지고 온 개인물건들(의류포함)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물건들은 계속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쉼터에서 나갈 때에는 이 목록표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부모위탁동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귀자녀가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쉼터의 보호기간동안 자녀와 사회사업가, 부모님의 많은 노력과 사랑이 요구됩니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아래의 사항에 협조해 주십시오. 상담선생님과 함께 정기적으로 자녀의 상담과 치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자녀와 정기적 만남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합니다. 상담선생님이 요구하는 교육(부모역할훈련, 가족치료)에 적극 참여합니다. 본 기관은 동기화된 자율성으로 운영하는 곳이므로 자녀가 무단이탈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쉼터관계의 금품을 취하거나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가 집니다. 상담선생님과 결정한 매월 일정액의 입소비용을 부담합니다.

적응단계에서는 효과성평가를 위한 사전검사, 각종 심리검사, 지역보건소에 의뢰하여 건강진단, 부모 및 학교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일을 한다. 문제해결단계에서는 개별상담과 가족상담 및 치료, 집단프로그램으로 자아성장프로그램, 약물/성교육, 지역봉사,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하며, 생활지도, 의식주,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개인적 편의를 제공한다.

입소할 때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들어온다. 학교의 강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부모의 동의 및 자신의 동의를 받고 있다. 쉼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습관이나 예절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규칙을 엄격히 적용시키려고 했고, 프로그램도 철저히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형식에 가두려는 시도는 잘 되지 않았다.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체계가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금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도가 더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의 애정에 대한 욕구를 받아주고 충족시켜 주는 것, 접촉 등을 통한 생활지도가 오히려 유용하였다. 무조건 사랑해주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서인지 아이들이 향상된다.

프로그램도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실시하고 자유시간을 많이 주고 있으며, 자유시간을 활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아이들에 따라 개별상담, 생활지도, 집단프로그램 등 각각 효과있는 영역이 달랐다.

종결단계에서는 종결상담, 가정과 학교에서의 적응훈련으로 학교 등교, 귀가생활, 잔여문제해결을 위한 타의뢰처 결정, 효과성평가를 위한 사후검사 등을 하게 된다. 퇴소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퇴소는 퇴소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와의 면담과 협의로 결정한다. 퇴소절차는 최종면담시에 퇴소후 사후지도의 관계를 명시하고 개인물품을 정리하고, 퇴소식을 통해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정기퇴소는 계약에 의한 입소기간이 만료한 것을 말하며, 무단퇴소나 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지 않은 임의퇴소, 기관에 의한 강제퇴소는 모두 정식퇴소가 아닌 것으로 한다. 사후지도로는 후속상담으로 개별 및 가족상담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하고 있다.

나. 상담활동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청소년쉼터의 상담활동은 가출, 비행 청소년들과 이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모, 가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 이성, 학업, 진로 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으로 분류되어진다. 보호청소년이 입소할 때, 부모(보호자)는 상담에 참가할 것을 동의하게 되어 있다. 개별상담은 보호청소년 1인에게 담당 상담자가 지정되어 1주일에 1-2회 정도의 1대 1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대상 청소년의 문제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하여 이들의 문제인식력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가족상담 및 치료는 보호청소년만을 문제로 보는 부모, 형제, 친척 등과의 상담을 통해 보호청소년의 중요한 환경적 요소인 가족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 치료하여 보호청소년이 복귀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구성하려 하고 있다. 하루에 평균 2-3회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며, 전화상담이 주를 이룬다.

<표 3-15>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청소년쉼터 일정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00~ 9:00	☺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아침을 만나자 ☺								
9:00~ 10:00	몸도 청결, 마음도 청결, 집도 청결, 배도 두둑								
10:00~ 11:00	약물남용	신문스크랩	아름다	성경	신문스크랩	신문스크랩	주일미사		
11:00~ 12:00	예방교육	학습시간	운 성	공부					
12:00~ 1:00	휴식시간		휴식 시간	휴식 시간				학습시간	자유시간
1:00~ 2:00	맛있는 점심시간								
2:00~ 3:00	음악감상	지역봉사 활동	음악 감상	학습 시간	야외활동 맑은 공기 마시며	예술활동 인형의 나라	생활회의 우리들의 생활나눔		
3:00~ 4:00	학습시간		휴식시간	심성훈 런		TV속 의 이야기	정규외출 안나가면 섭하지!	자유시간 위층식구 들은 외출도	
4:00~ 5:00		스포츠		상담	스포츠 수영	스포츠 수영			
5:00~ 6:00	스포츠 수영	상담	스포츠 수영	상담	스포츠 수영				
6:00~ 7:00									
7:00~ 8:00	딱관 배부르게 하기								
8:00~ 9:00	자유시간	독서활동	자유 활동	영화 활동	자유시간	자유시간	일주일 생활정리		
9:00~ 10:00									
10:00~ 12:00	하루를 정리하며				하루를 정리하며				
11:00~ 12:00	아름다운 꿈나라로 ZZZ								

다. 교육·예방활동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집단적 경험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비행을 미연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봉천동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집단과의 만남을 통해 대인관계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청소년문화에 접함으로써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청소년 열린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비행 및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기능 향상을 위한 집단치료 프로그램인 ‘푸른 꿈 만들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가출청소년이 자아성장프로

그램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증진시키고 자신이 가진 문제의 원인과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서 그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가출청소년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예방적 성격의 프로그램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라. 홍보·협력활동

그 동안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청소년쉼터는 지역의 생활지(벼룩시장)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왔으며, 주요 일간지와 라디오, TV에 보도, 방송되었다. 언론홍보활동은 단순히 기관명을 내세우기보다는, 청소년쉼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성격에 대한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 및 부모, 교사 등의 관련인들이 쉼터를 좀더 쉽게 이용,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대안으로서 쉼터와 같은 시설의 확대를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족치료를 위해 병원 및 심리상담소 등 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비용 문제와 부모의 거부로 연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의 상담교사 혹은 학생부와의 연계를 통해 쉼터의 기간을 출석일수로 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학교에서 쉼터의 인력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원과 경비가 절약되고 효과적일텐데 쉼터의 학교활동을 귀찮게 여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지역 내에서 청소년문제에 관련이 있거나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지원 협력체계를 조성하여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사업은 물론 쉼터 내 보호의뢰 및 보호활동, 퇴소 후 사후지도의 협력 관계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입체적 관계망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청소년쉼터는 청소년 기관이 입지해 있는 관악, 동작, 금천구 지역을 중심으로 일선학교 및 경찰서를 비롯하여 청소년상담 관련기구, 청소년단체,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 관련기관, 직업훈련 관련기관, 정부, 법률기관, 종교사회단체, 각 후원회, 의료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청소년지원망을 구성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많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6) 평가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청소년쉼터는 1991년부터 정부의 지원 없이 비행 및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향하여 활동을 해 왔으며, 이 분야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서비스나 프로그램 면에서도 지역사회 및 쉼터의 상황에 맞게 독자적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교회, 학교, 사회복지관, 보건소, 병원 등과 좋은 연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후원금이나 민간의 프로젝트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입소 청소년들이 쉼터에 대해서 상당한 호의를 보이고 있다. 가출청소년 중기보호시설로서 마당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직원과 청소년들의 바람이다.

2) 살레시오 노량진 청소년쉼터

(1) 개요

살레시오 노량진 청소년쉼터는 천주교 수도단체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에서 운영하는 그룹홈(group home)인 ‘나눔의 집’ 사업의 기능을 분화한 시설로 1997년 6월에 여자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설립하였다.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에서는 이 쉼터외에도 남자 가출청소년을 위한 ‘영등포 청소년쉼터’와 장기보호시설인 ‘나눔의 집’을 여러 곳에 운영하고 있어 가출청소년의 성별과 문제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2) 시설

살레시오 노량진 청소년쉼터는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동에 위치하고 있다. 국철 노량진역에서 학원가를 거쳐 도보로 15분 정도 떨어진 주택가에 있다. 위치상으로는 주로 재수생들을 위한 학원이 밀집해있어 청소년들이 많이 모

이는 곳이기는 하지만 골목길로 한참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찾아 오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의뢰된 청소년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한다.

14평 정도의 다세대주택 1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침실 2개와 거실 겸 주방, 욕실이 있다. 1일 최대 수용인원은 7명까지 가능하나 공간이 협소하여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5명 이하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침실은 온돌방이다. 이곳은 생활위주의 공간이기 때문에 따로 교육용 설비들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신원동에 있는 살레시오청소년회관에 컴퓨터, 도서 등 여러 가지 교육장비를 갖추고 있고, 숙소에는 TV와 이불, 요, 베개, 옷 등의 생활용품과 주방용품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3) 인력

살레시오 노량진 청소년쉼터의 조직은 ‘살레시오 나눔의 집’ 원장신부 1명과 담당신부 1명, 사무국의 사회복지사 1명, 쉼터의 보육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신부와 담당신부, 사회복지사는 이 쉼터 뿐 아니라 남자쉼터와 나눔의 집 운영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쉼터의 일만 전담하는 직원은 보육사 한명 뿐이다. 그러나 보육사의 경우는 직원이라기 보다는 약간의 사례를 받는 봉사자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살레시오 노량진 청소년쉼터의 보육사는 중년의 독신여성으로 쉼터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24시간 생활하고 있다. 이 보육사 외에 수녀 한분이 영등포 청소년쉼터와 함께 만나질씩 청소년들의 생활과 지도를 거들어주고 있다.

살레시오회에서는 보육사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돈보스코청소년센터에서 서울·경기지역 쉼터와 나눔의 집 보육사들의 정기회의를 갖고 있고, 매주 화요일에는 쉼터관계자회의를 하고 있다. 이 회의를 통해 청소년과의 생활방식이나 교육방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을 받기도 한다. 이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청소년이해를 위한 교육이나 레크레이션교육, 자녀교육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다.

(4) 재원

살레시오 노랑진 청소년쉼터의 재원은 전액 자체예산으로 남녀쉼터를 합쳐 약 3천만원 정도이다. 예산은 서울·경기지역 나눔의 집 후원회의 후원금과 교단의 지원금이다. 예산 중 인건비 부분을 보면, 정부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편으로 사회복지사가 월 1백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보육사는 월 6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5) 사업내용

가. 가출청소년 보호활동

살레시오 노랑진 청소년쉼터의 보호대상자는 10대의 여자 청소년이다. 유관기관으로부터 가출청소년이나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을 의뢰받고 있다. 의뢰기관은 성당, 수도회,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소인 까르딘상담소, 검찰청 등이고, 이외에도 노랑진 지역에 소문이 많이 나 동네사람들로부터 의뢰가 오기도 한다.

이곳은 수용인원의 규모가 워낙 적어 입퇴소에 있어 별다른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 현재 2명이 숙식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매일 3명 정도가 지내고 있다고 한다. 개소한 이후 지금까지 30명 정도가 거쳐갔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인 경우에는 학교 또는 직업훈련원에 다니게 하거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보호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의 단기보호지만 그 이상의 중기보호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집이 좁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쉼터로부터 5분 거리에 있는 까르딘상담소에서 일주일에 한번 한시간씩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까르딘상담소에서는 개인적인 고민에 대한 상담이나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자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나눔의 집 공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으나 이성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음식준비는 보육사가 하지만 차려먹는 일이나 세탁, 청소 등은 청소년들이 직접 하도록 하고 있고, 규칙은 10시까지 귀가시간을 반드시 지키도

록 하고 있다.

나. 홍보·협력활동

홍보를 하기보다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을 의뢰받는데 주력하고 있다. 협력활동은 주로 살레시오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살레시오회내에 장기보호시설과 직업훈련시설이 있어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기보호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다녀야 할 경우는 장기보호시설인 나눔의 집으로 이관하고,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는 살레시오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마자렐로센터로 이관한다. 특히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으로는 까르딘상담소를 들 수 있다. 이곳으로부터 가출청소년의 수용을 의뢰받는 동시에 수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상담소에 의존하고 있다.

(6) 평가

살레시오 노량진 청소년쉼터는 보육사가 어머니나 이모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쉼터는 시설이나 수용 규모가 매우 적었는데, 이는 여자 가출청소년의 경우 찾아다닐 수가 없어서라고 한다. 왜냐하면 여자의 경우는 가출한 아이들이 매우 쉽게 유흥업소로 빠지기 때문에 부랑아도 없고 잘못하여 업소에 있는 아이에게 쉼터로 가자고 권유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시설이나 인력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므로 까르딘상담소의 프로그램을 좀더 자주 활용한다던가 나눔의 집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남자쉼터와 여자쉼터를 모두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보호시설, 직업훈련원 등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의 성별과 문제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쉼터에 비해 타기관과의 협력활동이 용이하다는 매우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3) 살레시오 영등포 청소년쉼터

(1) 개요

살레시오 영등포 청소년쉼터는 위의 노량진 청소년쉼터와 마찬가지로 천주교 수도단체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에서 운영하는 그룹홈(group home)인 ‘나눔의 집’ 사업의 기능을 분화한 시설로 1997년 6월에 남자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설립하였다.

(2) 시설

살레시오 영등포 청소년쉼터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하고 있다.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상업지역에 있다. 위치상으로는 지하철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하기는 하지만 골목길로 복잡하게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찾아오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노량진쉼터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다고 한다.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가정집인 건물의 2층을 6,000만원 전세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2층의 건평은 38평이다. 이곳 보육사에 의하면 1층이 상가이고 주변도 모두 상가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사람들이 없어 아이들이 마음껏 노래부르고 떠들어도 민원이 없어 좋다고 한다. 내부구조는 침실 3개와 거실, 주방, 욕실이 있다. 침실은 각각 사무실 겸 보육사의 침실, 16세이상 청소년의 침실, 16세미만 청소년의 침실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침실은 온돌방이다. 1일 최대 수용인원은 방이 넓어 30명까지 가능하다.

이곳 역시 노량진쉼터와 마찬가지로 생활위주의 공간이기 때문에 별다른 교육용 설비들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량진보다는 공간이 넓고 수

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정이 조금은 나은 편이다. TV 2대, VTR 1대, 도서, 비디오테이프 등을 구비해 놓고, 25인분의 침구와 여분의 옷 등 생활용품과 주방용품을 갖추고 있다. 수용인원이 25명을 넘을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3) 인력

살레시오 영등포 청소년쉼터의 조직은 노량진쉼터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살레시오 나눔의 집’ 원장신부 1명과 담당신부 1명, 사무국의 사회복지사 1명, 쉼터의 보육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봉사자인 보육사가 쉼터의 일을 전담하고 있다. 살레시오 영등포 청소년쉼터의 보육사는 중년의 독신남성으로 쉼터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24시간 생활하고 있다. 이 보육사 외에 수녀 한분이 노량진 청소년쉼터와 함께 만나절씩 청소년들의 생활과 지도를 거들어주고 있다. 보육사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앞에서 설명한 ‘살레시오 노량진 청소년쉼터’의 내용과 같다.

(4) 재원

살레시오 영등포 청소년쉼터의 재원도 역시 전액 자체예산으로 앞에서 설명한 ‘살레시오 노량진 청소년쉼터’의 내용과 같다.

(5) 사업내용

가. 가출청소년 보호활동

살레시오 영등포 청소년쉼터의 보호대상자는 10대의 남자 청소년이다. 가출청소년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 부랑아들을 받고 있다. 보육사가 주로 역전으로 가출청소년을 찾아나서고 있고, 오락실이나 놀이터에 나가 보기도 한다. 매일 저녁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등 가까운 역에 나가보고, 3일에 한번 정도는 청량리역, 의정부역, 수원역 등 먼 곳에 나가 본다고 한다. 역전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을 보면 말을 붙여보아 갈 곳이 없는 아이인 경우 설득해서 쉼터로 데리고 온다고 한다.

처음 입소하면 소정양식인 개인기록부에 신상명세와 가출후 그간의 생활 과정을 물어 상세히 기록해 둔다. 이러한 인테이크(intake) 과정을 통해 입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타기관 의뢰, 귀가 등의 조치를 취한다. 보호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로 단기보호이지만 그 이상의 중기보호를 하는 청소년도 있다. 현재 20명 정도가 숙식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매일 15명 정도가 지내고 있다고 한다. 개소한 이후 지금까지 50명 정도가 거쳐갔고, 이중에서 10명이 부모에게 인계되었다.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인 경우에는 학교 또는 직업훈련원에 다니게 하거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 쉼터에는 전문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격책이나 시를 읽어주기도 하고, 예배도 보고, 노래도 부르고, 근처 공원에서 축구를 하기도 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청소년들이 편히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곳 청소년들과의 면접에서는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자체 프로그램 외에 나눔의 집 공동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는데, 봄소풍, 가을체육대회, 1주일간의 여름캠프, 연극관람, 박물관관람, 천주교행사 참가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쉼터내의 규칙으로는 기상 및 취침시간, 귀가시간, 식사시간의 엄수가 있다. 기상시간은 8시이고 취침시간은 10시이며, 귀가시간은 7시이다. 식사는 아침 9시, 점심 12시, 저녁 7시이다. 비행을 저지르거나 무단으로 나가면 벌칙으로는 15일동안 방청소나 화장실청소, 설거지 등을 시킨다고 한다.

나. 홍보·협력활동

홍보를 하기보다는 가출청소년 찾아나서기에 주력하고 있다. 협력활동은 주로 살레시오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살레시오회내에 장기보호시설과 직업훈련시설이 있어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기보호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다녀야 할 경우

는 장기보호시설인 나눔의 집으로 이관하고,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는 살레시오청소년회관이나 돈보스코청소년센터로 이관한다. 청소년들이 아픈 경우에는 영등포3가에 있는 요셉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부랑인이거나 영세민 등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료진찰권을 만들어주고 있어 이곳 쉼터의 아이들도 모두 진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6) 평가

살레시오 영등포 청소년쉼터는 보육사가 아버지나 삼촌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있었고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보육사 혼자서 20여명 청소년의 식사, 세탁, 목욕 등을 돌보고, 가출청소년들을 찾아 다니는 등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사의 희생정신이 없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쉼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종교단체의 특성상 별 문제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이곳의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귀가하도록 하거나 장기보호시설로 이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남자쉼터와 여자쉼터를 모두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보호시설, 직업훈련원 등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의 성별과 문제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쉼터에 비해 타기관과의 협력활동이 용이하다는 매우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1) 개요

우선 명칭이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가 아니라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임을 분명히 한다.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는 기독교 감리교회의 한 여성모임인 ‘함께가는 감리교 여성회’가 주축이 되어 1998년에 설립되었다. ‘함께가는 감리교 여성회’는 감리교 계열의 대학인 감리교신학대학, 협성대학교, 목원대학교의 여동문 및 목회자 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여성학적 관점에서 가출한 여자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1997년 7월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 1998년 1월 15일 아현감리교회에서의 개관예배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 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입소한 청소년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적용시키기보다는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을 협의해 정한 후 그 약속을 지키는 훈련에 치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귀가시간도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몇시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약속을 한다든가 언제까지 전화를 한다든가 하고, 담배도 무조건 끊게 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양을 줄여나가도록 지도하며, 이성교제도 무조건 막기보다는 남자친구를 쉼터로 불러오게 하는 식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가정생활에 적응해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2) 시설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하고 있다. 공단 부근에 위치한 상업지역으로 전면에는 상점이 있는 2층 주택이다. 과거에 공장이 활발히 돌아갈 때는 공장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자취하는 소위 ‘별집’이라 불리는 자취방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다. 지하철역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지하철과 연계되는 버스가 많이 왕래하는 ‘공단오거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이 상업지역이라 쉼터를 찾아가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환경이 너무 어수선하고 녹지환경이 전혀 없어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설만한 곳이 없었다.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는 28평 규모의 1층만을 3,200만원에 전세내고 있는데, 침실 2개에 거실, 부엌,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 방2개가 별채에 있는데, 그곳의 세입자가 나가게 되어 곧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현재는 작은 방을 사무실 겸 상담실, 야간생활지도사의 숙실로 쓰고,

큰방을 청소년들의 숙실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거실이 넓은 편이라서 그곳을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침실은 온돌방이고, 청소년들이 많을 때는 방 2개와 거실을 모두 숙실로 활용했다고 한다.

현재까지는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별다른 교육용 설비는 갖추고 있지 않다. 사무용 컴퓨터 1대와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기기, TV와 이불, 요, 베개, 옷 등의 생활용품과 주방용품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이들 물품들은 설립 초기에 모두 기증받은 것이라고 한다.

(3) 인력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의 조직은 실행위원회, 기획위원회, 대표, 실무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행위원회는 ‘함께가는 감리교 여성회’내의 회원 7명으로 구성되어 2개월에 1회 모임을 갖고 있는데 쉼터의 전반적인 운영방침과 예산관리를 맡고 있고, 이중에 한명이 쉼터의 대표로 있다. 기획위원회는 쉼터의 준비단계부터 사업내용을 구상한 연구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조직은 관장 1명, 상담실장 1명, 생활지도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장과 상담실장은 모두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생활지도사는 현재 대학생이다.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장은 목사로서 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면서 기관홍보 및 예산확보 등 주로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상담실장은 전도사로서 전반적인 사업운영을 비롯하여 주로 입소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생활지도사는 이곳에서 숙식하면서 주로 야간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숙직은 생활지도사가 전담하고 한달에 3일정도 휴가기간에는 관장과 상담실장이 교대로 숙직을 한다고 한다. 현재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고 재원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인건비도 교통비 정도만을 받고 있어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무조직 외에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10명이 전화상담 등의 일을 하고 있어 월 1회 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구로청년회에서 방충망, 페인트칠 등 시설보수를 도와주고 있고, 기독교학생회

등의 신학생들이 입소청소년의 공부를 지도해 주거나 영화감상 등의 외출프로그램을 지도해주고 있다.

(4) 재원

정부보조는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여성특별위원회의 여성발전기금을 신청해 놓고 있다. 쉼터에 들어간 경비로는 처음 준비비로 5,500만원 들어갔고, 5월말까지의 경상비로 1,600만원 정도가 들어가, 모두 7,100만원이 들어갔다. 6월부터 1년간 예산으로 6,0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쉼터 개관을 준비하였는데, 주로 감리교 여성들의 헌금, 여성교회 및 교회들의 후원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다. 작은 교회들과 없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후원금과 지원이 들어오고 있다. 쉼터사업을 하면서 내막을 알고 보니 청소년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선교비를 충당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쉼터에서는 후원금 뿐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TV, 쌀을 비롯한 생필품, 라면 등을 기증 받고 있다. 현재 직원들은 교통비 조로 매달 30만원 정도 받고 있다. 미국여성감리교에 인건비 정도를 지원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이 확보되면 월 60만원에 일년 두 번 정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섭외비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나 문화관광부에서 인건비 정도의 지원을 받아 이런 재정적 열악성을 해소하는 것을 하나의 과제로 삼고 있다.

1998년 1월부터 4월 27까지 후원금(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입이 13,433,075원, 지출이 11,298,190원으로 잔액이 2,134,885원이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보호생활운영비 1,279,060원, 교육비 221,900원, 시설관리비 1,006,290원, 활동비 3,75,000원, 홍보비 784,360원, 행사비 1,214,850원, 비품비 2,648,200원, 사무행정비 193,530원으로 되어 있다. 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후원자 모집광고를 내고 있다.

“쉼터는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먹고삽니다. 아래 은행으로 후원해 주시면 쉼터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은행 : 209-01-0832-819 윤문자(청소년쉼터)

한일은행 : 072-011224-02-601 윤문자(청소년쉼터)

농협 : 100072-56-020595 윤문자(청소년쉼터)

물품후원 : 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사무용품, 옷, 양말, 이불, 도서, 생필품 등 ... 기증을 원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쉼터로 연락 주십시오.

(5) 사업내용

가. 가출청소년 보호활동

1998년 1월 개관한 이후 1998년 6월 18일 현재까지 17명의 가출청소년들이 거쳐갔고, 현재는 3명의 17세 여자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 많을 때는 5명이 생활을 하였고, 보통은 3명이 생활을 한다. 입소기간은 보통 20일로 잡고 있지만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2달 정도의 시간이 요구된다고 한다. 처음에는 나이, 보호기간 등을 정해놓았지만, 운영을 하다보니 개인별로 필요한 보호기간이 달라서 보호기간이나 나이 등을 개방해 놓고 있다. 입소하는 청소년은 아주 다양하다. 유흥업소에 들락거리는 아이들도 4-5명 입소하였으며, 보통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가출하는 단순가출도 있고, 친구따라 일시적으로 가출하는 충동가출도 있었다. 부모가 사망하여 친척집에 머물렀는데 친척마저 사정이 어려워져서 데리고 온 경우도 있었으며, 부모의 이혼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방황하다가 가출하여 온 청소년, 부모가 경제적으로 돌 볼 처지가 되지 않아서 온 경우 등 다양하다.

입소에서 퇴소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소는 주로 소개

를 통해서 받고 있으며, 상담소, 가까운 쉼터, 거리상담 등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홍보물을 보고 친척이나 부모가 데리고 오거나 본인이 직접 오기도 한다. 본인과 면담을 통해서 본인이 쉼터에서 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Intake Sheet를 작성한다. 입소 후 일주일 동안 쉬면서 직원들과 친해진다. 일주일 후에 심리검사와 건강진단을 받고, 필요한 경우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치과나 정신과, 카톨릭 병원에 의뢰해서 치료를 받게 한다. 심리검사 결과는 앞으로의 상담에 참조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쉼터에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으니 아이를 퇴학시키지 말라고 학교로 연락을 하면,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교사와 부모가 함께 찾아와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고마워한다고 한다. 이때 부모들과의 상담이 함께 이루어진다. 부모와 갈등 때문에 가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 상담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담을 통하여 부모 자식간에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부모가 끝까지 자기의 독단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와 청소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퇴소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퇴소 결정이 내려지고, 퇴소식을 하게 된다. 가출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여 퇴소할 때까지 보통 2달에서 2달 반까지의 시간이 소요된다. 퇴소 후 다시 가출한 아이는 한 명도 없고, 부모와 화해하여 생활을 잘 하고 있다. 퇴소한 후 편지, 전화연락, 방문을 통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유는 직원들의 열의와 성의 때문이라 판단된다. 2명의 가출청소년을 직업훈련을 위하여 부산에 데리고 가면서 온 직원이 울고, 또 일주일도 넘도록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이루고, 겨울에 가출청소년을 데리고 오면서 신발이 새서 발이 시려울까봐 신발을 바꾸어 신기고, 또 퇴소한 청소년이 보낸 편지에 온 직원이 울 정도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정성과 사랑은 청소년들 뿐 아니라 관장과 직원들도 변화시켰다. 관장의 경우 청소년들을 자기 틀에 맞추려고

처음에는 무척 고심을 했는데, 지금은 청소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 변화 때문에 입소 청소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쉼터에는 성문화된 규칙이 있지만, 비교적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규칙은 귀가시간, 식사, 전화 사용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규칙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는 청소년들도 있다. 남자친구를 못 만나게 해서 가출한 여자아이가 쉼터의 개방된 분위기 속에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저녁을 함께 먹고 응접실에서 이야기를 나눈 경우도 있다. 또 입소 청소년이 친구집에 있는 가출청소년을 데리고 와서 응접실에서 모임을 갖기도 하였다. 생활지도와 상담을 통해 아이들을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가족법/성교육은 꼭 해주고 있다.

나. 홍보·협력사업

학교에서 자퇴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감리교가 운영하고 있는 부산부녀복지관에 의뢰하여 검정고시준비 및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곳에서는 1년 동안 외출을 제한 받으며, 오전에는 직업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현재 지역사회 및 학교와의 연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쉼터판장이 영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며, 개관한 첫날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사랑마을, 푸른빛, 배우극단‘숨’, 구로3동성당 열림터, 구로시민센터, 원불교 구로교당, 구로종합복지관(조계종)의 8개 단체가 모여서 ‘구로지역 청소년 복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한달에 한번 모임을 갖고 있다. 현재 ‘구로지역 청소년 생활실태조사’를 강남복지대학 교수와 협력하여 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구로지역 청소년들의 필요가 무엇인

지, ‘구로지역 청소년 복지기관 협의회’에서 청소년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구로지역의 청소년회관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등을 주제로 구로지역 발전모임을 갖고 연구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정말로 열의가 있는 자생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부의 프로젝트나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회관의 사업 중 상담과 같은 사업을 쉼터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직장청년회인 구로청년회에서 와서 방춤을 해주고, 집수리, 페인트칠 등을 해주고 있다. 지역에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센터가 많이 있어서 협력을 하고 있다. 교회나 대학의 기독교 서클에서 아이들 공부지도, 영화, 등산 등의 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며, 구로구청에서 교육비디오를 빌려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학생을 가진 부모들과 자원봉사자 및 교회여성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제와 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에서부터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을 길러내고 있다.

한겨레 신문, 구로신문, 기독교세계, 기독교방송, KBS1방송, 국민일보, 한국교회신문, 주간기독교, 여성신문, 기독교 TV, 기독교신문, 벚룩시장 등에 쉼터를 소개한 이후 많은 전화상담과 면접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쉼터에서 책갈피와 팜플렛에 내보내고 있는 홍보문구이다.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는 가출 소년들을 위해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사랑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출소년들이 마음놓고 쉬면서 상담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 함께 가는 감리교 여성회 전화 867-1255(이리오오) -

- 후시 -

고민이 있거나 어려운 일 때문에 집을 나왔어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럴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당장 갈 곳이 없겠군요. 쉼터로 오세요. 피곤하시겠군요. 쉼터로 오세요. 몸도 씻고 싶겠군요. 쉼터로 오세요. 배 고프겠군요. 쉼터로 오세요.

(6) 평가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는 재정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열의와 정성으로 가출청소년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개관한 1998년 1월부터 17명의 청소년이 거쳐갔는데 모두 가출하지 않고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고, 또 편지와 전화, 방문을 통하여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입소청소년들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결실을 이룬 것이라 평가된다. 쉼터의 운영에 있어서 직원들의 정성과 사랑이 중요하며, 자발적으로 생겨나서 잘 운영되고 있는 쉼터와 청소년 보호시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직원이 많고 시설이 좋다고 쉼터 운영이 잘되는 것이 아니지만, 새날의 여는 청소년쉼터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향상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률

적으로 받고 있는 30만원 월급은 교통비 수준이다. 기존에 자생적으로 알차게 운영하는 곳을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리고 민중적이고 작은 쉼터를 여러 곳에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쉼터 사업의 방향이라 판단된다.

5) 열린문쉼터

(1) 개요

열린문쉼터는 1990년에 설립된 청소년복지기관인 열린문사회복지센터에서 1994년 11월부터 시작한 가출청소년쉼터이다. 열린문사회복지센터는 학교에 다닐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청소년이나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교육사업과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상담사업,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한 치료사업,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쉼터사업 등 여러 가지 청소년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가출청소년들이 쉼터에서 지내면서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기도 하고, 문제가 심각한 경우 치료를 받을 수도 있으며, 한편 공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배움의 기회도 마련되어 있어 가출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곳에서는 남자청소년을 위한 쉼터와 여자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구분하여 조금 다른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다. 남자쉼터는 ‘열린문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치는 열린문사회복지센터내에 있고 장기보호도 하지만 주로 단기보호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쉼터는 ‘열린 다비다의 집’이라 부르고 있고, 열린문사회복지센터로부터 5분거리에 따로 떨어진 다세대주택을 마련해 주로 장기보호에 치중하고 있다.

(2) 시설

열린문쉼터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하고 있다. 남자쉼터의 경우 대로변에 위치한 4층건물의 열린문사회복지센터내에 있고, 여자쉼터는 이곳에서 5분정도 떨어진 주택가에 있다. 열린문사회복지센터는 지하철과 바로 연

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봉터미널(지하철 7호선 상봉역)로부터 서쪽방면으로 2블럭쯤 떨어진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4층 건물에 간판도 붙어있기 때문에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청소년보다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의뢰되어 오는 청소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이곳은 쉼터이기 이전에 우선 사회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성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종교단체를 통해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자청소년을 위한 열린문쉼터는 열린문사회복지센터가 있는 건물의 4층에 40평 정도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침실 3개와 욕실, 세탁실, 주방, 식당, 거실, 기도실, 숙직실이 있다. 여자청소년을 위한 열린 다비다의 집은 20평 정도의 다세대주택으로 침실 2개와 욕실, 주방, 거실이 있다. 청소년의 수에 따라 거실까지 침실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곳은 열린문사회복지센터를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쉼터에는 따로 교육용 설비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센터에서는 컴퓨터, 도서 등 여러 가지 교육장비를 갖추고 있고, 숙소에는 TV와 이불, 요, 베개, 옷 등의 생활용품과 주방용품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침실은 모두 온돌방이다.

(3) 인력

열린문쉼터의 인력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교장이라 생각하여, 교감 1명, 간사 1명, 다수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조직은 단 2명뿐이지만 많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어 여러 가지 사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인력중 쉼터의 청소년을 돌보는 일만 전담하는 사람은 없다. 열린문 사회복지센터의 다른 기능인 교육사업, 상담사업, 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쉼터의 청소년들도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돌보아지게 되는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부분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교육활동 부분이다. 또한 반찬을 만들어 준다거나 세탁을 도와주는 봉사활동도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주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 전담지도자가 없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야간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자쉼터의 경우 교감이 그곳에서 숙식을 함께 하고 있어 관계가 없으나, 여자쉼터의 경우는 지도자가 없이 청소년끼리만 지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고 재원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종교적 신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이상의 인건비 지출은 사실상 어려우리라고 본다.

(4) 재원

열린문쉼터의 재원은 월 3천원 이상의 회비를 받는 후원회비에 주로 의존하고 있고 바자회나 일일찻집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세한 경비는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었다.

(5) 사업내용

가. 가출청소년 보호활동

열린문쉼터의 보호대상자는 10대의 남녀 청소년이다. 가출청소년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 근로청소년, 부랑아들을 받고 있다. 전화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직접 방문을 받거나 가출청소년을 찾아나서기도 하고 다른 사회복지센터나 구청 가정복지과로부터 의뢰를 받기도 한다. 현재 남자청소년은 10명이 있고, 여자청소년은 9명이 있다고 한다.

직접 찾아오거나 의뢰된 청소년에 대해 초기상담을 거쳐 문제를 진단하여 일시보호서비스를 할 것인지, 장기보호를 해야 할 것인지, 교육 또는 상담, 치료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입소가 결정되면 청소년에게 입주원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단기보호 대상자인 단순가출자들은 장기보호 대상자와 함께 지내면서 스스로 보고 느끼고 깨달아 5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장기보호 대상자인 요보호청소년들은 공동생활 속에서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자립심을 키워주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는 양로원과 지체장애인 시설

을 월 1회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1회 열린문음악회를 열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기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으며, 소풍과 영화관람, 놀이문화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나. 상담·치료활동

상담활동은 가출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청소년 및 부모, 교사 등 청소년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전화상담, 면접상담, 서신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1996년 ‘청소년예방교육치료센터’를 개원해 청소년의 여러 가지 부적응 문제를 상담해 치료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매월 월례세미나를 개최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연구 및 토론활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로에 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자연환경 속에서 정서적 안정을 취함으로써 문제를 치료하도록 하는 ‘청소년자연치유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다. 교육활동

교육활동에는 야간학교와 주간학교, 공부방이 있다. 야간학교와 주간학교는 학교에 다닐 형편이 아니거나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과정으로 야간학교는 근로청소년과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주간학교는 청소년과 가정주부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라. 홍보·협력활동

초창기에는 주로 가출청소년을 찾아 나서는 방법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교회나 경찰서, 다른 쉼터, 학교, 동사무소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주로 치중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라디오방송을 통한 홍보가 몇번 있어 이름이 많이 알려진 편이라고 한다.

(6) 평가

열린문쉼터는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열린문사회복지센터에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가출청소년 중에서 학교를 중퇴하였거나 학교에 다닐 형편이 못되는 경우 이곳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쉼터와 비교할 때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쉼터에 찾아온 청소년 중에서도 학업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는 열린문쉼터와 협력하여 이관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열린문쉼터 측에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쉼터들이 협력체제를 갖춰 쉼터별로 기능을 차별화하고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곳으로 이관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4. 아동상담소 운영현황

1) 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소

(1) 개요

서울시립 동부아동상담소는 1988년에 개소한 문제행동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치료기관이다. 서울시가 샤르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서울관구에 위탁 운영을 맡겼다. 전문적인 청소년쉼터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방법의 하나로써 일시보호치료를 함으로써 가출청소년에 대해서도 일시보호를 하고 있다.

서울시립 동부아동상담소에서는 만 3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벽, 약물사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비행과 허언, 학교부적응, 가출 등 문제행동의 경우 일시보호치료를 하고 있고,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정서장애의 경우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임상적 치료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또한 문제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2) 시설

서울시립 동부아동상담소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다. 청소년

들이 많이 모이는 화양리나 왕십리와 인접해 있기는 하나 대중교통은 좋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에 대한 쉼터기능이 주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치료기능이 주이므로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쉬기에는 적절하다.

서울시립 동부아동상담소는 대지 3,306.1㎡(1,0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본관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별관이 있다. 본관은 2,894㎡이고 별관은 1,676㎡이다. 본관의 1층에는 소장실과 상담실, 의무실, 연구실 등이 있고, 2층에는 학습실, 심리검사실, 놀이실, 시청각실, 도서실 등이 있으며, 3층에는 아동·청소년의 숙소, 주방, 식당 등이 있다. 지하에는 목공실, 고학실, 미술치료실, 놀이실, 체육실, 창고, 기계실 등이 있다. 별관 1층에는 강당, 사무실, 상담실, 컴퓨터실, 열매교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숙소가 있으며, 지하에는 놀이실, 숙직실, 창고 등이 있다. 청소년들의 숙소는 작년까지 2층 침대를 사용했는데, 침대 밑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금년부터 1개실을 제외하고는 전부 온돌방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시설 유형별 설비를 살펴보면, 놀이치료실(4개)에는 각종 놀이기구를 완비하고 있고, 모래놀이치료실에는 모래상자와 인형을 구비하고 있다. 심리검사실에는 10가지 이상의 심리검사도구를 준비하고 있다. 시청각교육실에는 TV 10대, VTR 6대, 오디오 3세트, 영상프로젝터 1세트와 1000여종의 각종 비디오 및 카세트 테이프를 갖추고 있다. 음악실에는 피아노 2대, 오르간 7대, 노래방기기 2세트와 각종 풍물을 구비하고 있다. 체육실에는 탁구대 5조와 11인용 콤비네이션 헬스기 1조, 부분헬스기 7종, 롤라스케이트 100개, 스케이트보드 100개, 자전거 23개가 있고, 당구실도 있다. 이상과 같이 동부아동상담소에는 여러 가지 교육자재를 완비해 놓고 있다.

(3) 인력

서울시립 동부아동상담소의 조직은 2부 4과이다. 소장아래 상담부와 총무부가 있고 상담부아래에 상담과, 사회교육과, 생활교육과가 있다. 일시보호부에는 교육과와 생활과가 있고, 상담조사부에는 교육과와 상담과가 있다.

상담과에는 6명, 사회교육과에는 8명, 생활교육과에는 11명의 전문인력이

있고, 총무부에는 12명의 직원이 있다. 간부직원 7명을 제외하고 직렬별로는 상담원이 13명, 생활교사가 11명, 간호사 및 영양사가 각 1명, 기능직이 11명으로 총 직원수는 44명이다. 각 과의 담당업무는 상담과와 사회교육과의 경우 별다른 차이없이 통원치료를 받는 아동 및 청소년의 여러 가지 상담업무와 사회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고, 생활교육과에서는 일시보호 업무로써 아동 및 청소년의 입퇴소, 입소아동의 상담 및 교육·건강관리, 생활지도, 숙실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립 동부아동상담소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6개월 간의 사전교육 기간을 거친 후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시보호보다는 주로 상담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4) 재원

서울시립 동부아동상담소는 시립이기 때문에 재원은 전액 서울시의 지방비이다. 98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8억9천1백2십9만4천원, 운영비가 7억7천1백5십2만2천원, 민간단체사업비가 6천2백3십만4천원으로 총 17억2천5백1십2만원이다. 이는 97년도 14억2천4백6십8만9천원에 비해 3억4십3만1천원이 증액된 것이다.

(5) 사업내용

가. 가출청소년 보호활동

서울시립 동부아동상담소의 일시보호 대상자는 만 3세부터 18세까지의 남녀 청소년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음과 같은 응급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선 일시보호를 한다. 가출 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이나 친구, 학교와의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악순환적 갈등구조를 와해시키는 것이 우선 필요할 때 판정회의를 거쳐 입소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단순한 일시보호로서 쉼 곳을 제공하기 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시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아, 기아 등 보호자가 불분명할 때, 둘째, 보호자의 사망, 질병, 체포, 이혼, 가출 등으로 아동을 양육하기 곤

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셋째, 가출, 도박, 환각제 흡입의 경우 판정회의의 과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넷째, 아동학대 등으로 아동의 양육환경이 부적절할 때 등이다.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기초적인 학습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과목별 학습수준에 맞추어 이동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담당교사는 상담원과 상의하여 청소년이 과목별 능력에 맞는 학습을 받도록 배정하고 다음 단계의 학습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재배정한다. 둘째, 시청각교육을 실시한다. 주 2-3회 정도 교양, 문화, 사회, 과학, 오락 등의 시청각 교재를 상영하여 청소년들의 교양 및 정서를 함양시키고 음악감상과 노래 부르기, 슬라이드 상영 등을 통해 건전한 사고와 풍부한 정서를 갖도록 돕고 있다. 셋째, 야외학습도 실시하고 있다. 등산, 고궁 및 박물관 견학, 공원산책, 사생대회 등을 통해 자연을 접함으로써 정서함양, 사회성 개발, 친밀감 형성, 신체적·정신적 건강회복 및 강화, 성취감과 자신감 향상, 극기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물놀이나 캠프, 야유회, 썰매타기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지속적인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목욕과 이발, 좋은 생활습관을 키우기위해 주 3회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건강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다섯째, 운동이나 시청각교육, 탈춤, 사물놀이, 목공, 등산, 수영 등 특별활동을 통해 심신을 이완시켜 준다. 마지막으로 상담프로그램이 있는데,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을 통해 문제인식과 가치관 정립,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이들이 퇴소하여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가족상담을 병행하고 있고 가정으로 돌아간 후에는 추수(追隨)지도를 하고 있다. 일시보호를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는 주 1회 개별상담이 있으며 매일 그룹별 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가정생활의 적응을 위해 주말에는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또한 일시보호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계기관에 전이한다.

나. 상담활동

서울시립 동부아동상담소는 비행상담이 주요한 기능이다. 주로 관련 행정

기관이나 단체, 학교로부터의 의뢰에 의해 상담이 진행된다. 이곳의 상담활동은 일시보호와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상호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일시보호 역시 상담을 위한 것으로써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담치료의 효율성을 위해 입소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담방법은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놀이치료, 심리치료, 심리검사 등이 있고, 부모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가출, 환각제 사용, 도박, 폭행, 성폭행 등 비행관련 문제를 비롯해 발달장애, 정서장애, 적응장애, 행동장애, 부모상담 등이 차지하고 있다. 통원상담의 경우 부모상담이 가장 많고 다음은 정서장애 상담이다. 입소상담의 경우 대부분이 비행관련 문제이다. 전화상담의 경우는 부모상담이 가장 많고 다음은 비행관련 상담이다.

다. 교육활동

교육활동으로는 정학처분자교육, 보호관찰청소년교육, 자원봉사자교육, 부모교육이 있다. 정학처분자교육은 ‘늘푸른교실’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학교에서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을 학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다. 보호관찰청소년교육은 수강명령을 받은 보호관찰청소년을 보호관찰소로부터 의뢰받아 단기간에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교실’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5일간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내용은 전문강의, 심성개발, 진로지도, 레크리에이션, 시청각 교육, 역할극, 상담, 대화의 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봉사자교육은 6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이루어지는데, 상담관찰, 상담기록, 토론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부모교육은 문제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비구조적 집단상담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라. 홍보·협력활동

서울시립 동부아동상담소는 비행상담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의 협력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주요 상담이 관련 행정기관이나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교단체 등으로부터의 의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홍보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평가

서울시립 동부아동상담소의 경우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가 주요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라는 기준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가출청소년쉼터가 생기기 이전인 1988년부터 가출청소년에 대한 일시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기능을 수행해 왔고 아울러 가출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치료적 접근을 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해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음으로써 풍부한 전문인력과 교육기자재, 시설 등을 갖추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의 규모가 커서 운영이 경직화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의 자유가 억압될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다른 청소년쉼터와 연계하여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동부아동상담소보다는 청소년쉼터에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전이하고, 청소년쉼터에서도 동부아동상담소에서의 치료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의 경우 이곳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활발한 연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2)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1) 개요

서울시립 아동상담소는 1963년 3월에 중구 을지로 3가에 설립된 대한양연회 서울특별시지부가 1965년 1월 서울특별시 조례 제372호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아동상담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1998년 6월 현재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해 있으며, 1998년 12월에 강남구 수서동으로 청사를 이전할 예정이다. 대상은 4- 18세의 아동이다. 일일 최대 수용인원은 30명

이다. 하는 업무는 아동상담, 아동일시보호(아동생활관 운영), 가출아 상담 및 조치업무, 심리검사 및 지도, 기·미아, 가출아 종합신고센터 운영, 시설아동 감소를 위한 위탁사업, 놀이치료실 운영, 부모교육, 아동학대신고센터 운영, 전화상담 및 안내, 기타 아동복지증진 업무이다. 가출청소년에 관한 업무는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우범지대를 순회하여 단속한 가출청소년들을 상담지도후 조치하는 일과 각 경찰서 및 구청에서 단속 보호된 가출아동들을 인수하여 상담지도후 조치하고 있다.

(2) 시설

현재 상담소의 위치는 대방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대로변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다. 1998년 말에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새 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신청사는 2층으로 대지 7,807평 건평 698평이며, 아동숙소(10), 놀이실, 격리숙소, 관찰실, 도서관, 램프실, 상담지도부,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전화상담실, 개별상담실, 서무실, 소회의실, 진료실, 일시보호부, 판정지도부, 문서고, 냉장실, 냉동실, 식당, 영양사실, 창고, 숙직실, 당직실 등 방대한 내부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3) 인력

직원은 총 42명이며, 소장 밑에 서무와 의무실로 구성된 사무장, 요보호아동상담과 입양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조사부, 심리검사실과 순회아동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판정지도부, 생활관을 담당하고 있는 일시보호부가 있다. 직원들은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급여수준은 공무원 봉급을 받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그다지 활용하고 있지 않다.

(4) 자원

서울특별시립 아동상담소는 자원은 전액 지방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1997년 예산은 11억 9,249만 8천원이며, 1998년 예산은 18억 3,423만 1천원이다.

1998년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상담소가 현재의 동작구 대림동에서 강남구 수서동으로 이사를 하기 때문이다.

(5) 가출청소년관련 사업내용

가출청소년은 주로 경찰서와 구청에서 하루에 1- 2명씩 의뢰가 온다. 1997년 가출아동 상담 및 보호 건수는 545회로 나타나 있다.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들어오면 접수를 하게 되고, 아동카드를 작성하고, 담당교사가 정해지며, 교육상담 및 지도가 이루어지고, 아동생활관에서 일시보호를 하면서 연고자를 확인·연락하여 귀가시키거나, 의뢰를 통한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고용이 이루어진다. 3번 이상 가출한 아이는 집에서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생활관에서는 단체생활에 맞추어 행동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 기간은 보통 3- 4일에서 2달 이내이며, 6개월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다. 70년대에는 새벽 5시에 완행열차가 도착하는 용산역으로 가출청소년 단속을 나가면 하루에 20명씩 일년이면 7,200명 정도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몇 시간씩 차로 돌아다녀도 가출청소년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거의 안 나가고 있다고 한다.

(6) 평가

서울특별시립 아동상담소의 가출청소년관련 업무는 하루에 1- 2건 정도 경찰서나 구청에서 단속 보호된 가출아동을 인수하여 상담 지도후 조치하는 활동이다. 1997년에는 총 545건의 가출청소년들을 인수하여 상담 지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생활관에서 보호되는 동안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 단체생활을 따라 하게 된다. 좋은 시설, 많은 인력,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립 아동상담소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에 있어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크고 좋은 시설이 오히려 가출청소년 쉼터의 기능을 하기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 가출청소년이 스스로 찾아오기에는 시설이 너무 크고, 정문에 경비실과 경비가 있어

서 관공소의 이미지가 강하다.

5. 장기보호시설 운영현황

1) 나자렛의 집

나자렛의 집은 마자렐로 센터와 같은 살레시오수도회에서 하는 보호시설이다. 하지만 대상 아이들은 전혀 다르다. 나자렛의 집에서는 결손가정의 여자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입소 경로는 아는 사람이나 교회를 통해 소개된 아이들 중에 나자렛의 집에서 돌 볼 수 있는 아이들만 보호하게 된다고 한다. 수용능력은 17명이고, 현재(1998년 5월 15일) 15명이 보호받고 있다. 집단가정으로서, 아이들에게 아침에 밥해주고, 도시락 싸주고, 학교 보내고,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저녁 해주고,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등의 가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려고 하고 있다.

수용기간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이다. 중간에 부모가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까지 있을 수 있다. 장애아나 남자아이 혹은 나자렛의 집에서 보호서비스를 해 줄 수 없는 아이들은 사회복지목록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카톨릭 시설이나 기타 다른 시설을 소개해 준다. 가정환경이 불행한 아이들이지만 문제아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직업보도시설인 마자렐로 센터에서 직업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과는 다르다. 나자렛의 집이 비행청소년 보호시설을 다루는 곳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오해가 있다. 마자렐로 센터와는 처음에 분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전혀 협력을 할 사항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전혀 다른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도 거의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2)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은 빈곤지역에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복지 자활센터로서 종합사회복지관과 비슷한 일을 하며,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일을 한다.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은 전국 7군데 있으며, 소재지는 서울 봉천동, 서울 상계동, 서울 정능, 대전 성남동, 인천송림동, 부산 반송동, 천안 성정동이다. 서울 봉천동의 나눔의 집은 앞서 자세히 설명하였고, 또 봉천동 나눔의 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신림지역 청소년쉼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나눔의 집에서 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은 청소년교실과 청소년쉼터가 있다. 청소년교실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이며, 청소년 나눔의 집은 가출청소년을 포함하여 보호가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쉼터 사업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봉천동의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청소년쉼터'와 '신림지역 청소년쉼터', 그리고 '상계동의 나눔의 집'이 있다. 봉천동은 단기/중기보호를 주로 하고 있고, 신림지역 청소년쉼터는 일시보호를 주로 하고 있으며, 상계동 나눔의 집은 가출청소년이나 학대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보호를 하고 있다. 대전 성남동 나눔의 집은 작년부터 여자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1998년 6월 19일부터 문화관광부와 대전시청의 지원을 받아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로 공식 개소할 예정이다.

3) 마자렐로센터

마자렐로센터는 천주교 살레시오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직업보도시설이다. 센터는 1997년 1월 1일, 6명의 소녀들이 수녀들과 살다가 4개월 후인 5월 13일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마자렐로 센터는 빈곤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과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가출소녀들에게 잠재능력의 개발과 기능훈련을 시키고 사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더불어 인성교육을 포함한 전문상담 및 기술교육을 통해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국

민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대상 자로는 청소년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 가출소년, 기타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경우의 만 12세에서 18세까지의 여자 청소년이다.

입소할 때 청소년 자신이 입소 동기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스스로가 입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고 있다. 부모도 의뢰서를 각자 자유양식에 따라 작성하게 된다. 일단 입소하게 되면, 외출의 자유를 제한 받게 되며, 퇴소도 본인과 보호자 그리고 교사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중간에 짜증이 나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다. 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은 말로 다짐을 받고 있다. 담당자의 말도 처음엔 규칙적인 생활이 안 맞을 수 있다고 한다. 10시에 취침하고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하고, 주방 일도 아이들과 같이 하는 등 가정에서의 생활도 익히게 만들고 있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 있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 센터에서 몰래 가출한 아이도 2명이나 된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상담소, 쉼터, YMCA, 공부방, 본당신부, 야학교사, 부모를 통하여 왔다. 현재는 30명 정원이 다 차서 대기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홍보의 필요성을 못 느껴 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입소여부를 남부 아동상담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오전에는 수녀원 내의 주부 중·고등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30대-50대 주부를 위해 고검, 대검 준비를 도와주는 학교)에서 점정고시(중입, 고입, 대입)를 목표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미용사 자격증을 대비한 피부미용과 머리미용의 이론 및 실기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개별상담, 심성개발, 교양강좌,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며, 교육비 및 숙식비 전액을 면제하고 있고, 수료후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다.

시설은 3층 건물로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정부 보조를 받지 않았지만, 건물을 짓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해서 현재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48명 정도의 아이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자원봉사자 확보와 활용에 대한 질문에 센터의 담당자는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한다.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대학생, 교사, 직장인, 주부학교선생님 친구 등을 자원봉사자로 확보하고 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36명이어서 청소년과 일대 일 개인교습을 시키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하기를 원하지만 자원봉사자 관리가 어려워 그만 받고 있다. 일단 자원봉사자를 받게 되면 아이의 시간과 맞추기 위해 시간표를 짜준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활동은 미술, 종이접기, 피아노, 무용, 음악 등이다.”

센터에서 생활한 아이의 말로는 크리스마스나 축제 때 그리고 바닷가나 고수동굴 등으로의 열린캠프 활동을 할 때가 너무 좋다고 한다. 불편한 점은 자유가 없고 규율이 너무 엄격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90% 이상이 가정 파탄을 경험한 아이들이고, 가출, 본드, 폭력 등의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들도 많아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긍정적인 것을 심어주며, 가능성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밤에 잠들기 전과 아침에 기상했을 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달 동안 몰래 친구를 정해 놓고, 편지도 하고 선물도 주고 나중에 누가 친구인지 찾는 ‘숨은 친구 비밀찾기’ 활동도 하고 있으며, 미래의 목표 및 갈 길을 정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살레시오 나눔의 집

‘살레시오 나눔의 집’은 천주교 수도단체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가 운영하는 소규모 그룹홈(group home) 아동복지시설이다. 1986년 광명시

철산동에서 처음 시작하여 현재는 서울·경기지역에 14개소, 광주·전남 지역에 5개소, 대전에 3개소, 춘천에 1개소 등 모두 23개소에 200여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살고 있다. 그러나 각 시설의 명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살레시오 나눔의 집’이라 하고 있으나, 광주·전남지역은 ‘광주살레시오 나눔의 집’, 대전지역은 ‘돈보스포 작은 집’, 춘천지역은 ‘보금자리’라고 부르고 있다. 서울·경기지역 나눔의 집은 서울의 철산동, 구로동, 신길동, 신월동, 오목교, 성북동, 방화동, 석관동, 노량진, 영등포와 부천의 역곡, 원미동, 안양의 안양과 청명에 위치하고 있다. 이중 노량진과 영등포는 이미 앞서서도 설명한 바 있는 가출청소년쉼터이다.

초기 살레시오 나눔의 집은 가출한 청소년이나 공단 지역의 실직 청소년, 역부근에서 배회하는 청소년 및 어려운 결손가정의 아이들에게 숙식 제공과 취업알선, 교육을 통하여 자립 및 사회적응을 돕는 ‘중간의 집’ 역할이었으나, 점차 입소한 청소년들이 정착함에 따라 집을 늘려가게 되었고 가정형 아동복지시설로 형성되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은 주로 부모의 이혼이나 부모와의 사별, 버림받은 아동을 받아들여 정규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연령에 있어 초등학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타시설에 의뢰하고 있으며, 또한 단지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의뢰될 경우에도 입소를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운영하는 시설 중 서울의 2개소와 광주의 1개소는 정부의 소년소녀가장세대 그룹홈 시범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고, 별도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기능 분화하여 청소년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룹홈과 쉼터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룹홈의 경우 장기보호시설로써 정규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일반가정과 똑같이 생활하는 곳이고, 쉼터는 집으로 돌아갈지 돌아가지 않을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써 학교나 직업훈련원에도 다니지 않고 지내는 곳이다. 이들 시설의 운영은 주로 후원금과 교단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후원회 관리는 4개 지역별

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살레시오 나눔의 집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그룹홈 협의모임이 있고, 가장 많은 시설이 몰려있는 서울경기지역의 경우는 따로 사무국이 있다. 각 시설의 후원과 행정적인 관리는 이 사무국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고, 개별시설에는 상주하는 보육사가 있다. 이 보육사는 대체로 가톨릭신자이고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기로 결심한 독신여성이 대부분이나 부부 또는 남자인 경우도 있다. 보육사들은 매월 약간의 임금을 받으며 개별시설에서 아이들과 함께 24시간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경기지역의 보육사들을 매주 1회 돈보스코청소년센터에 모여 정기회의를 함으로써 청소년과의 생활방식이나 교육방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을 받기도 한다.

5) 들꽃피는 마을

들꽃피는 마을은 소규모 그룹홈(group home) 아동복지시설로써 1993년에 세워진 성남의 한 그룹홈과 1994년에 세워진 한 그룹홈이 주축이 되어 1997년에 성남에 1개소와 안산에 4개소가 ‘들꽃피는 마을’이란 명칭으로 연합한 자생단체이다. 부모의 이혼이나 부모와의 사별, 버림받은 아동·청소년을 받아들여 정규학교 교육이나 검정고시 준비, 농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들꽃피는 마을의 시설은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가정집이 다섯 군데로 나누어져 있고, 각 가정이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안산에 ‘예수가정’과 ‘들국화의 집’, ‘에텔바이스의 집’, ‘중보기도의 집’이 있고, 성남에 ‘은행골가정’이 있다. 또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학교로 건물내 40평 정도의 ‘들꽃피는 학교’가 있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주 수입원이 되는 ‘들꽃피는 화원’이 있다. 이곳의 재원은 이 화원 외에 ‘품’이라는 소식지를 발행하여 이 소식지의 독자로서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들꽃피는 마을의 각 가정에는 적게는 10살부터 보통 15- 17세 사이의 청소년과 부모의 역할을 하는 어른이 함께 살고 있다. 예수가정에는 남자 청소년 3명, 여자청소년 4명이 살고 있고, 들국화의 집에는 여자청소년 4명, 에델바이스의 집에는 여자청소년 2명이 있는데, 각각 어머니 역할의 어른 한분이 같이 살고 있다. 중보기도의 집에는 남자청소년 5명, 여자청소년 1명, 은행골가정에는 남자청소년 7명, 여자청소년 1명이 있는데, 이곳에는 각각 목사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

6. 외국사례

1) 일본⁵⁾

(1) 아동상담소

일본의 아동상담소는 18세 미만의 아동복지법 규정에 의한 아동에 대해 복지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전문적인 행정기관이다. 아동상담소의 주된 업무는 ①아동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가정이나 그 외로부터의 상담에 응한다 ②아동 및 그의 가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의학적·심리학적·교육학적·사회학적 및 정신위생상의 판정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도를 행한다 ③부랑아, 가출아동, 학대받고 있는 아동,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에 대해 각각의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일시보호를 한다 ④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붙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을 가정재판소에 송치하는 등 법령에 정해져있는 조치를 취한다 등이다. 이상의 업무중에서 네 번째 일시보호 업무가 ‘청소년쉼터’와 유사한 역할일 것이다. 아동상담소에는 이

5) 일본의 경우 연구진이 수집한 자료의 수준에서는 우리 나라의 ‘청소년쉼터’와 동일한 유형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아동상담소와 양호시설의 두개 기관이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소개하고자 한다.

러한 일시보호를 위해 부속시설로서 일시보호소가 설치되어 있다. 일시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는 주거지가 제공되어 아동이 보호됨과 동시에 성격, 생활태도가 관찰된다. 구체적인 수용기간에 관해서는 법령상 특정되어 있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기간의 수용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아동의 보호는 극히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물론 아동 자신의 동의도 요하지 않는다(菊地和典, 1994: 104, 110).

이러한 아동상담소는 아동복지행정의 제일선 기관으로서 도도부현(都道府縣)·지정도시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써 1996년 5월 현재 전국에 17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아동상담소에는 의사, 심리관정사, 사회사업가를 주로 하여 아동복지사, 상담원, 아동의 일시보호를 주로 담당하는 아동지도원, 부모 등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아동상담소가 접수하는 상담의 내용을 보면, 아동의 보호·양육의 문제에 관한 양호상담, 등교거부(不登校)·성격경향·적성 등의 문제에 관한 육성상담, 보건상담, 심신의 기능장애에 관한 상담, 비행아동의 교화에 관한 상담 등이다. 1995년도에는 약 317,000건의 상담을 접수해 원조를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지도로서는 면접지도(조언지도, 계속지도 등), 아동복지시설에의 입소조치, 대리부모에게로의 위탁조치, 아동복지사 등에 의한 지도 등이 있다(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 1997: 214).

(2) 양호시설

양호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의 일종으로 1세 미만의 유아를 제외하고 18세까지의 아동 중 보호자가 없는 자, 학대받고 있는 자, 그 밖의 환경면에서 양호를 요하는 자를 입소시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菊地和典, 1994: 14). 최근의 경향으로서 보호자가 있어도 적절한 감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고, 부모의 장기입원, 행방불명, 이별, 부모로부터의 방임, 학대 등의 이유로 입소해온 아동이 두드러지고 있다(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 1997: 217). 이러한 최근의 입소이유에 따른 아동보호업무가 ‘청소년쉼터’와 유사한 역할일 것이다.

1996년 1월 현재 양호시설의 상황은 시설수 527개소(공립 68개소, 사립 459개소), 입소정원 32,892명(공립 4,313명, 사립 28,579명), 재적아동수 26,679명(공립 2,867명, 사립 23,812명)이다. 시설운동을 위한 경비는 매년 아동처우비의 증액을 도모하고 있는 외에 관리비에 관해서도 개선을 하고 있다. 또한 1986년부터 연장아동의 처우강화를, 1987년부터 시설퇴소아동의 지도강화를, 1990년부터 등교거부아동 등의 지도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더욱이 1991년부터는 사회에 나오기 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설외에서 일정기간 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분원형 자활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2년부터는 양호문제의 배경에 있는 친자관계를 조사함에 의해 입소아동을 가능한 한 빠르게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사업이 개시되었다. 또한 취직하기 위해 퇴소하지만 보호자가 없는 등 경제적 원조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퇴소후의 적합한 생활을 지원해 아동의 자립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1995년부터는 조치해제 후 대학 등에 진학한 아동으로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의 학업이 종료할 때까지 양호시설 등에서 통학해도 괜찮은 것으로 했다. 또한 입소아동에 대한 학습지도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교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 에 의해 양호시설은 가정환경의 조정이나 퇴소후의 자립지원 등을 겸하는 시설로 되어 그 명칭이 아동양호시설로 개정되었다(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 1997: 217-218).

2) 미국

(1) 헌팅톤 청소년쉼터⁶⁾ (Huntington Youth Shelter)

-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봉사하고 있는 아메리카 자원봉사 프로그램 -

가. 프로그램

헌팅톤 청소년쉼터는 1994년 1월부터 가출, 학대, 버려진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1996년 2월에 쉼터는 '아메리카 자원봉사'와 합해져서 헌팅톤비치 지역사회와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직원들은 24시간 긴급전화상의 위기전화를 다룰 수 있으며, 전화를 한 청소년이 헌팅톤 청소년쉼터 프로그램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광범위한 자원들로부터 적절한 의뢰기관을 찾아내어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다.

헌팅톤 청소년쉼터에는 입소 청소년들의 공부, 식사준비, 잡일, 활동, 집단 토의, 그리고 자유시간을 포함하는 매일의 활동들을 지도하는 정규 직원들이 있다. 2주간의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구조화된 환경을 제공하며, 그 속에서 청소년들은 전담 매니저와 함께 그들을 쉼터까지 오도록 한 문제에 적응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의 중점은 가능하면 가족과 다시 화합하게 하는 것이다.

입소 청소년들은 쉼터의 규칙을 준수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가출 청소년들이 서로 그리고 직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헌팅톤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평화롭고 지속적인 것으로 만든다.

나. 자원봉사자 모집

다음은 인터넷 상에 나타난 헌팅톤 청소년쉼터의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한 광고이다.

6) 본 내용은 인터넷상의 자료를 참조했음.

인터넷 주소: <http://www.volunteercenter.org/hyout>

“쉼터의 청소년 상담자 조수로 청소년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기준과 요구조건이 아주 특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쉼터의 영업담당 과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714-847-5437). 헌팅톤 청소년쉼터는 또한 쉼터 유지보수 및 미화, 모금, 음식운반, 청소년 일용품 운반을 위해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자원봉사 센터에 연락바랍니다.”

(2) 청소년 위기 센터 (Youth Crisis Center)⁷⁾

청소년위기센터는 매년 1,200명의 위기 청소년들(10- 17세)에게 일시 보호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집에서 쫓겨났거나, 집이 없거나, 가정의 상황 때문에 일시적인 거처가 필요한 청소년들이다.

쉼터에 거주하는 상담자들이 시급한 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들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작업을 하며, 미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장기적인 가족구조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작업한다. 위기센터에 머무는 동안 입소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 의식주
- * 개별/집단/가족 상담
- * 듀벌구 학교시스템에서 교육의 지속
- * 레크리에이션 활동들
- * 생활운영 및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교육
- * 가족 연결(family link) 프로그램을 통한 사후지도 및 도움
- *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의 기관에 의뢰

청소년위기센터는 두개의 쉼터를 가지고 있다. 다음의 <표 3-17>는 이러한 쉼터에 대한 소개이다.

안전장소(safe place) 청소년 안전센터는 1986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안전장소를 실시한 기관들 중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출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에게 거리에서 벗어나 여러가지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도움을

7) 본 자료는 인터넷상의 자료를 참조했음.

인터넷 주소 : <http://ppp.jax-inter.net/users/yc>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준다. 청소년들은 노란색과 검정색의 안전장소 표시(Logo)가 되어 있는 325군데의 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함에 의해서 청소년위기센터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의 안전장소는 북 플로리다 전역에 있는 릴챔프 식료품 연쇄점, 웬디스 햄버거 연쇄점, 월마트 백화점, 샘스 클럽, 소방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이 안전장소의 직원에게 청소년위기센터를 접촉하고 싶다고 말하면, 상담자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과 이야기 한 후, 청소년을 집으로 데려다 주던지 위기센터로 데리고 오던지 한다. 청소년을 위기센터가 데려오면, 그 가족에게 즉시 통보를 준다.

1986년이래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안전장소를 찾았고, 50,000명이 넘는 지역학교의 학생들에게 안전장소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다. 안전장소는 가장 인기있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표 3-16> 청소년위기센터의 청소년쉼터

청소년 위기 쉼터(Adolescent Crisis Shelter)	
기 관	Family Link
연락할 사람	Sarah Frinks, Community Relations Director Lynn Hickman, Program Director, Shelter
전화번호	(901) 725-6911, (901) 725-7270
Fax	(901) 725-4889
주 소	1169 Linden Memphis, TN 38104
지 도	GO MAP
시 간	쉼터는 연중 24시간 연다
요 금	무료
입소 자격	집에 머물기 싫거나 머물 수 없는 10-17세 청소년
입소 절차	없음. 요구하면 즉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업 내용	개인, 집단, 가족 상담, 24시간 위기 전화 -725-6911. 안전장소 운영. 안전장소는 청소년이 즉각적인 도움을 요구하면, 즉시 자원봉사자가 파견되는 백화점, 편의점, 슈퍼 등에 설치된 연결망이다.
재 원	여러 다양한 기관 단체들의 후원
자원봉사사회	안전장소 운영 / 쉼터에서의 교육, 공작, 게임 등에서의 보조

(3) 전환점 청소년 위기센터⁸⁾ (Turning Point Youth Crisis Center)

- 아리조나 주 프리코트 지역 쉼터들에 대한 정보 중에서 -

전환점 청소년 위기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두 종류이다. 하나는 즉각적인 위기 개입을 위한 숙소제공이고, 다른 하나는 비행예방을 위한 생활기술 프로그램들이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다.

가. 숙소제공

수용인원 7명으로, 방임과 학대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출한 아이들에게(6 - 17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쉼터는 즉각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적이고 심리치료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1997년에는 248명에게 쉼터를 제공하였으며, 불행히도 10월달 한달 동안만도 47명의 청소년들이 수용 여력이 없어서 입소하지 못했다.

나. 생활기술 프로그램

본 쉼터의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참여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래 상담자들이 지역사회의 예방적인 생활기술 프로그램들을 가르치고 있다. 또래 상담자들이 약물남용 예방,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음식과 위생, 그리고 거리 생존 기술 등의 주제들에 대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1997년에는 1,066명의 청소년들이 생활기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현재 레크리에이션, 예술, 공작 등의 활동들을 위해 고객 당 일주일에 \$1.7씩 배정이 되어있다. 3개 군의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활기술 프로그램은 한달에 \$50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다. 후원자 모집

이 센터는 운영을 위하여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 안내내용은

8) 본 내용은 인터넷상의 자료를 참조했음.

인터넷 주소: <http://www.mwaz.com/shelter/turningpt.ht>

다음과 같다.

“본 쉼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신과 같은 개인 혹은 단체로부터의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United Way와 같은 곳으로부터 일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재원은 오직 지역사회 주민들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번의 기부나 지속적인 기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후원 프로그램을 위한 정보는 직원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물품이나 장비 기증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의류, 레크리에이션 장비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물품이 매달 틀리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캐나다

(1) 키와니스 청소년쉼터⁹⁾ (Kiwaniis Emergency Youth Shelter)

키와니스 청소년쉼터는 빅토리아 쿨 원조협회(Victoria Cool Aid Society)의 8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키와니스 청소년쉼터는 1986년에 개원하였으며, 집에 갈 수 없는 1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긴급 쉼터와 도움을 제공한다. 안전한 환경,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들을 탐색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1997년에 키와니스 쉼터는 910명의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1996년에 비해 8%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506명은 쉼터에 머물렀고, 404명은 다른 곳에 서비스를 의뢰하였다.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키와니스 쉼터의 운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키와니스 쉼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안전한 환경이란 고객들을 위해서 뿐 아니라 직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안전한 환경이란 사람들을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

9) 본 내용은 인터넷상의 자료를 참조했음.

인터넷 주소: <http://coolaid.org/keys.ht>

것은 사람들이 믿을만한 행동을 보여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7> 키와니스 청소년쉼터

주 소	2117 Vancouver Street Victoria, BC V8T 3Z9.
전 화	(250) 386-8282
Fax	(250) 384-0778
Email	없음
연락할 사람	· Dalyce Dixon - 매니저 · Pat Kostouros - 매니저
운영 시간	24시간
제공하는 서비스	· 5일 동안의 침식 ·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상담 · 다른 지역사회 기관에 의뢰 · 세탁과 위생 용품들 · 대변인
비 용	무료
서비스 제공지역	Greater Victoria

IV. 가출청소년쉼터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1. 가출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의 평가 및 욕구

1) 개요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출청소년쉼터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가출청소년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평가와 욕구를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1998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이었고, 조사는 연구진이 나누어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연구진이 미리 작성한 조사항목에 대한 면접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각 기관별로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쉼터의 위치, 건물, 설비 등 시설에 관한 내용, 담당직원 등 인력에 관한 내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 사업내용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출청소년을 면접할 수 있었던 기관은 총 9개소이고, 면접한 청소년의 수는 26명이다. 조사는 집단면접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면접내용도 조사대상 기관별로 묶어서 집단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면접내용의 원문을 제시할 경우 문장 끝에 어떤 집단의 응답인지를 알파벳으로 표시하기로 하겠다. 각 쉼터별로 면접을 실시한 청소년의 연령 및 성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A쉼터 : 16세부터 18세까지의 여자청소년 5명을 면접하였다.

B쉼터 : 13세부터 15세까지의 여자청소년 5명을 면접하였다.

C쉼터 : 16세부터 18세까지의 여자청소년 4명을 면접하였다.

D쉼터 : 12세부터 17세까지의 여자청소년 4명을 면접하였다.

E쉼터 : 12세부터 13세까지의 남자청소년 4명을 면접하였다.

F쉼터 : 19세 여자청소년 1명을 면접하였다.

G쉼터 : 17세 남자청소년 1명을 면접하였다.

H쉼터 : 15세 여자청소년 1명을 면접하였다.

I쉼터 : 14세 여자청소년 1명을 면접하였다.

이번에 연구진이 각 가출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대다수는 2주일 이내의 일시보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순가출자라기 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처우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었다. 따라서 연구진이 면접한 청소년들이 가출한 주된 이유는 의붓 부모와의 불화나 부모의 가출과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거취할 곳이 없는 등 대부분이 결손가정의 문제점에 의한 것이었다. 면접조사 대상청소년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들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돌아갈 집이 없거나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형편이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응답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자신들이 거취하고 있는 쉼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그럭저럭 괜찮다는 반응이었고, 개선점이나 욕구의 측면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이 적었다. 면접에 응한 청소년 중에 몇몇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그게 어디예요. 불만이 있어도 잠자코 있어야죠. 나가고 싶은 때도 있지만 오히려 쫓겨날까봐 불안할 때가 더 많아요.(G)” “나가고 싶을 때가 어떻게 있어요. 갈 곳이 없는데.(A)” “이런 곳이 있어 유흥업소로 빠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F)”

이와 같이 청소년들 자신은 불만을 가질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한 조사결과가 가출청소년쉼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될 것인지는 연구진으로서도 다소 의문이 있다. 다만 가출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쉼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시설

먼저 쉼터의 위치와 관련해 살펴보면,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조사대상 청소년 중 청소년쉼터에 자발적으로 찾아간 경우는 거의 지역정보지에서 보거나 소문을 듣고 찾아간 경우인데 모두 찾아가기 어려웠다고 한다. 의뢰인이 있어 데려다준 경우나 쉼터의 아웃리치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을 통해 오게 된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 경우에도 만약 혼자 왔다면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다.

“찾아오는데 무지 힘들었어요. 이런 데를 누가 아는 사람이 있나요.(G)”

“교차로에서 보고 알았는데, 전화 걸어서 설명 듣고 왔는데도 찾는데 무지무지 어려웠어요.(C)”

“이곳을 소개해 준 분이 데려다 주셨어요. 혼자 왔다면 절대 못 찾죠.(A)”

“기관에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압박감이라든가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내보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너무 구석진 곳에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해요.(I)”

“혼자서는 못 오죠. 서울역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좋은데 있다고 가자고 해서 왔어요.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 가봐서 좋으면 있고 나쁘면 다시 나오면 되겠지 하고 따라 왔어요.(E)”

청소년쉼터의 주거환경에 관해서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먹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고, 말해도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는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개선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바라는 점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유도했더니 대체로 주변환경은 조용하면서도 자신들은 마음껏 떠돌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고 있었다. 또한 마당이 있고 지나치게 넓지도 좁지도 않은 공간을 원하고 있다.

“집이 동네 길목에 있어서 사람들 지나다니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좀 한

적한 곳에 있으면 좋겠어요.(F)”

“집안은 지내기에 아주 편리해요. 공간도 넓고 주변도 조용하구요. 지하에 놀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시끄럽게 떠들어도 뭐라고 하지 않아 좋아요.(C)”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당에 토끼나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B)”

“시설은 참 넓고 내부구조도 아주 좋아요. 하지만 너무 넓어서 청소하기가 힘들어요.(H)”

쉼터내에 구비해야 할 설비나 소모품에 관해서는 각 쉼터마다 구비하고 있는 상태에 차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의견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었다. 즉 잘 구비한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이나 모두 TV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만이 없었으나 옷과 같은 개인용품에 대해서는 모두 욕구가 많았다. 그리고 놀이용 물품에 관한 욕구가 많았다.

“설비요? 무슨 설비요? TV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잘 못 봐요. 저녁까지 공부하는데, 공부하고 나서는 피곤하니까 자야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필요한 거 없어요. 먹고 잘 곳이 있고 공부도 시켜주니까 놀 시간도 없고 다른 건 별로 필요 없어요.(A)”

“여벌로 입을 옷을 주면 좋겠어요. 가출한 애들은 대부분 달랑 집에서 입고 나온 옷 한벌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속옷밖에 안주니까 지내기가 너무 불편해요. 이런 얘기하면 애들꺼 빌려 입으라고 그래요.(G)”

“유행하는 옷좀 주면 좋겠어요. 힙합바지 같은 거. 우리 입고있는 옷좀 보세요. 후졌잖아요.(E)”

“갖고 싶은 거요?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컴퓨터, 게임기, 오디오, 카세트, 과학상자 장난감, 새로운 비디오테이프. 놀이할 게 없어요.(E)”

“더 넓은 공부방이랑 노래방, 신나는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감상실, 그네나 시소, 철봉 같은 놀이시설이 있으면 좋겠어요. 패션잡지나 만화책도 있으면 좋겠어요.(B)”

“침대를 쓰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방에 한명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바랄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5명이나 있어요.(B)”

3) 인력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형편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쉼터 지도자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다. 지도자들이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해주기를 바라는 욕구는 거의 없었다. 일부는 현재 지도자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고, 대부분은 현재의 서비스를 간섭으로 여기는 경향을 나타냈다. 오히려 지도자의 수가 적고 그래서 서비스나 프로그램도 부실한 쉼터의 청소년일수록 오히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지도자의 수를 줄이고 서비스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향은 어른들로부터 간섭받기를 꺼리는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성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출청소년들을 그저 수용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청소년의 가출유형에 따라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통제의 수준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들 지내는 집에는 선생님 없어요. 돌봐주는 사람도 없구요. 우리가 밥해 먹고 치우고 알아서 해요. 하지만 별로 불만 없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A)”

“선생님들이 너무 눈치를 주고 잘못만 지적해요. 좀더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야간에 같이 생활하는 선생님이 더 있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자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B)”

“선생님이 다섯 분 계신데,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C)”

“선생님 많은 거 싫어요. ○○○에는 선생님들 무지 많은데 감시하고 ○○○ 밖에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진짜 나빠요. 여기는 선생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해야되는 것도 없어서 정말 좋아요. 친구들 많이 데려오고 싶어요.(E)”

“공짜로 얻어먹고 있으니깐 선생님들 눈치가 많이 보여요. 선생님 돈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나라에서 돈대줘서 하는 곳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선생님들 눈치를 안볼 수가 있나요.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맨날 퇴소시킨다고 겁주고 하나까.(G)”

“선생님들이 우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세요. 너무 엄격하게 규율만 고집하시고, 어떤 분은 딱 한사람만 짝어서 좋아해요.(H)”

“선생님들이 참 잘해주시고 자원봉사자들도 잘해주셔요.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I)”

4) 사업내용

가출청소년쉼터의 사업내용에 대한 아이들의 평가 및 욕구는 주로 불편하고 귀찮은 점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것과 좀더 즐겁고 편안한 점들이 많았으면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입소절차는 주로 가출동기, 가족사항 등의 신상기록을 하고, 현재의 고민이나 문제점을 상담한다고 대답하였다.

“먼저 신상기록을 하고 나서 현재의 고민 상담을 해요.(A)”

“가출한 이유나 가족사항에 관해 이것저것 물어봐요.(E)”

“왜 가출했는지 묻고 가족사항 등에 관해 꼬치꼬치 물어요. 집에서 간접받기 싫어서 나왔는데 귀찮게 물으니까 좀 피곤했어요.(G)”

규칙에 대한 평가 및 욕구는 ‘귀찮고 구속받는 것이 싫다’라는 의견과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뉜다.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요. 어떤 애는 그게 싫어서 금방 뛰쳐나간 애도 있어요. 귀가시간이라든지 식사시간, 기상시간, 취침시간, 흡연금지 등 여러 가지 규칙

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기면 벌점을 줘요. 벌점이 50점이 되면 퇴소시킨다고 해요. 한번 두번 벌점을 받게 되면 쫓겨나게 될까봐 스트레스가 쌓여요.(G)”

“규칙이 엄격해서 나가고 싶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예요. 하지만 나가면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도 별로 없으므로 참고 지내요.(G)”

“남자친구를 사귀지 말 것, 저녁에 이야기하지 말고 잘 것, 가요 부르지 말 것 등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A)”

“저녁에 들어오는 시간과 식사시간에 관한 것, 싸우지 말 것, 그런 것만 지키면 돼요. 별로 엄격한 건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E)”

“10시까지 귀가, 밤에 시끄럽게 굴지 않기, 밤에 먹지 않기 등인데 불만 없어요.(F)”

“9시까지 귀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별로 불만 없어요.(C)”

“○○○는 외출도 못하게 하고 간섭하는 것도 많은데 이곳은 자유롭게 동네에 놀러나갈 수 있어서 좋아요.(E)”

“여기는 시설은 참 좋은데 구속이 너무 심해요. 구조는 참 좋은데 규율이 너무 엄격하고, 통제가 너무 심해요. 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무릎꿇고 앉아서 설교를 들었어요.(H)”

쉼터에서의 생활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일시보호에서 중기보호까지 다양하다는 것이 한 이유가 될 것이다. 자유롭고 싶다는 욕구와 다양한 프로그램과 오락물과 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빈번하게 나왔다. 자유롭다는 욕구는 학교나 부모의 의뢰로 쉼터에 입소해서 자유를 구속받으면서 몇 달씩 생활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아이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쉼터에서도 일주일에 3시간 정도의 외출이 허락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참여도 강제되고 있다. 쉼터 청소년들은 야외활동, 영화나 비디오보기, 연예인 콘서트가기, 만화나 잡지 보기 등을 좋아하고, 약물남용 예방교육이나 봉사활동을 싫어하였다.

“자유가 없고 답답해요. 편안하고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살쥬요. 친구가 있어서 좋아요. 텃새가 있어요. 나쁜 짓을 안하고 지낼 수 있어서 좋아요. 새로운 아 이들이 들어오면 갈등이 일어나고 많이 싸워요.(B)”

“자유시간에 하는 일은 누워있거나, 노래하거나, 고전음악이 아닌 신나는 음악 듣기, 만화책보기, 코믹이나 공포물 독서, 패션잡지 보기를 해요.(B)”

“쉬는 시간에 하는 일ियो? 바둑두기, 독서, 기타 배우기, 멍하니 앉아 있기, TV 보기. (H)”

“지겨워요. 그것도 참가 안하면 별점이 있어서 할 수 없이 하는데 재미없어요. 상담하는 것도 지겹고요. 그냥 쉬게 두면 좋겠어요.(G)”

“1년에 한번 소풍가고, 가끔 음악회나 연극을 보러 가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평소에 각자 취미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A)”

“소풍이나 여름 휴가여행(해수욕장), 연극구경 외에는 별로 하는 것 없어요. 소풍이나 해수욕장 간 게 좋았어요. 맨날 가고 싶어요.(E)”

“별로 좋지도 싫지도 않아요.(F)”

“개인별로 하는 놀이나 책임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둘이서 하는 게임이나 비디오 보는 것이 재미있고 책임기는 지겨워요. (C)”

“상담은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일주일 동안의 생활, 변화, 좋고 싫은 것, 힘든 것, 선생님이 해 주었으면 하는 것 등을 이야기해요. 프로그램은 비디오 영화보기, 야외활동, 심성훈련, 콘서트 가는 것 등이에요. 좋은 프로그램은 야외활동, 콘서트 가는 것, 비디오 영화 보는거요. 싫은 프로그램은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은 봉투 붙이기, 공부 가르쳐주기, 장애인들 목욕시키기 등을 해요. 소용없는 프로그램은 약물교육이예요. 다 아는 얘기들 아네요. 무엇 때문에 맨날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B)”

“크리스마스나 축제 때가 너무 좋아요. 2박 3일가는 수련회도 참 좋아요. (H)”

“나가면 돌아갈 집도 없는데 만족하고 말 것도 없어요.(A)”

“달리 갈 곳도 없는데 싫증나고 짜증이 나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B)”

“이곳이 있어 유흥업소에 가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그래도 집이 제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F)”

“이런 곳이 다 있구나, 세상에 별 사람도 다 많구나, 이런 곳이 있어서 다행이다. 소중한 곳이다.(C)”

바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생활과 프로그램에 대한 바람과 함께 직업 훈련 및 교육에 대한 바람도 나왔다. 수용대상의 성별구분에 대한 선호도 물어 보았지만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옷을 주면 좋겠어요. 달랑 입은 옷 한벌 밖에 없는데 속옷밖에 안 줘서 불편해요. 그리고 담배를 못 피게만 하지 말고 차라리 금연교육을 시켜주면 좋겠어요.(G)”

“현옷만 주는데, 새옷을 사서 주었으면 좋겠어요.(H)”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화보거나 야외활동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박물관, 인기가수 공연구경도, 개인이 하고 싶은 운동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아지를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염색 토끼, 햄스터도 키웠으면 좋겠어요. 가정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식은 하더라도 세탁, 설거지, 청소는 가정부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B)”

“별로 하고 싶은 것 없어요. 새로운 비디오나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집에 10개밖에 없고 그것도 아주 오래된 거예요. 다른 집이랑 바꿔보면 좋겠어요.(E)”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요. 이곳에서 연결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자리가 없어 못 가고 있어요.(F)”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려면 학교 다니는 애들이 사는 나눔의집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곳은 자유롭지가 않아서 싫어요. 그래도 전학 수속만 되면 다닐 거예요.(E)”

“교복을 입는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머리 염색을 할 수 있고, 머리를 자유로 할 수 있는 학교, 재미있는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B)”

“여자만 있는 것이 좋아요. 남자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무서워요. 같이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그냥.(D)”

“근처에 남자아이 쉼터가 있어서 프로그램은 같이 하고, 생활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B)”

2. 종합평가 및 문제점

1) 개요

여기에서는 설문조사, 쉼터 방문조사, 담당자 면담, 가출청소년 면담을 통해 조사된 사항을 종합하여 현재 우리나라 쉼터들을 시설, 인력, 자원, 사업내용 면에서 종합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종합평가를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난점으로 떠오른 것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가출청소년 보호시설들이 시설, 인력, 자원, 사업내용 면에서 모두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개발을 위한 시설들의 수평적 평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동상담소와 요보호청소년 보호시설 등과 같이 가출청소년쉼터와 성격이 다른 시설들은 종합평가에서 제외하였다.

2) 시설

시설과 관련해서는 각 청소년쉼터의 위치, 주변환경, 내부공간, 설비 및 소모품에 관해 차례로 서술하겠다. 먼저 위치에 관해 살펴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의 대부분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 찾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상담소나 장기보호시설의 경우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청소년에 대한 고려는 없는 시설이지만, 쉼터 중에도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었다. 위치에 관해 고려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전철역과의 근접성이다. 전철역에 근접한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임대료나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 때문에 전철역으로부터 도보로 10분 내지 15분 정도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 주목할 만한 지형지물이 거의 없어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쉼터의 성격이 일시보호인지 단기 또는 중기 보호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단기 또는 중기 보호라면 접근편리성 뿐 아니

라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므로 이를 적절히 조화시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고, 일시보호에 주력하는 곳이라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접근편리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볼 때, 일시보호쉼터로써 가장 위치가 좋은 곳은 신림지역 청소년쉼터였고, 단기보호쉼터로는 서울 YMCA 청소년쉼터를 들 수 있겠다.

쉼터의 주변환경에 관해 살펴보면, 주택가와 상업지역, 유흥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환경들은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는 청소년들이 안정을 취하고 쉬기에는 적절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민원의 우려가 있다. 상업지역은 주변이 어수선하기는 하나 저녁에는 사람들이 없어 청소년들이 맘껏 떠돌 수가 있다. 유흥지역은 주거환경으로써는 매우 나쁘지만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또한 쉼터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선정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쉼터의 책임자들이 각자 자신들의 쉼터위치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 이유를 원문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쉼터는 반드시 주택가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 청소년들이 안정을 취하고 쉴 수가 있지요.(강남구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의 위치는 우선 대중교통이 용이한 곳이어야 해요. 하지만 번화가에 있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주택가에 위치해야 합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정도 떨어진 곳이 적당하지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의 주택을 매입하게 되었지요.(서울YMCA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이 좋아요. 우리 쉼터는 주변이 모두 상가이기 때문에 저녁에 애들이 노래부르고 떠들어도 밤에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될 게 없어요.(살레시오 노량진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에 애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하려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지역이 적절합니다. 유흥지역에 그것도 상가건물 내에 있어야 애들이 거리낌없이 드나들 수가 있는 거지요.(신림지역 청소년쉼터)”

쉼터의 내부공간에 관해 살펴보면, 숙실만을 갖춘 곳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실을 갖춘 곳까지 다양했으나 숙실2개에 상담실과 사무실, 거실이나 프로그램실을 갖춘 곳이 평균이라고 보인다. 서울YMCA 청소년쉼터의 실무자가 말하는 내부공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금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3개월을 해매고 다녔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사무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2층집이어야 하고, 아이들이 떠돌고 놀 수 있는 지하공간이 있으면 했고, 정서함양을 위해 마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집은 그런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요..(서울YMCA 청소년쉼터)”

쉼터의 설비 및 소모품 지급에 관해서는 쉼터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VTR, 컴퓨터, 비디오테이프, 도서 등 여러 가지 교육기자재와 놀이기구, 운동기구를 갖춘 곳도 있었으나 TV 외에는 아무런 오락기구가 없는 곳도 있었다. 소모품에 있어서는 위생용품의 지급은 차이가 없으나 옷의 경우 여벌의 옷을 준비해 지급하는 곳도 있고 속옷만을 지급하는 곳도 있었다. 옷에 관해서는 청소년들의 욕구가 많았는데, 임시로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넉넉할 정도로 옷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갈아입을 옷 한 벌 정도는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인력

인력과 관련해서는 각 청소년쉼터의 직원 수, 직원의 자격, 인건비 등에 관해 차례로 서술하겠다. 먼저 직원의 수에 있어서는 기관마다 큰 차이가 있었다. 순수하게 민간재원으로만 운영되는 쉼터의 경우 자원봉사자 한 명이 24시간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부로

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쉼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할 텐데 기관마다 큰 차이가 있었다. 직원이 3명 뿐인 곳도 많았고, 가장 많은 곳은 구로지역 청소년쉼터로써 12명 정원에 현원은 11명이었다. 적정한 인원수에 관해 정부지원을 받는 곳과 순수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는 곳의 의견이 다음과 같이 달랐다.

“지도자가 적어도 5명이나 6명은 있어야 됩니다. 쉼터라는 곳이 애들 먹여주고 채워주는 기능만 한다면 밥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되겠지요. 하지만 그래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청소년들이 가출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강남구 청소년쉼터)”

“조금 큰 애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밥도 찾아 먹고 잘 지내니까 돌봐주는 사람이 혼자라도 별로 문제될 거 없어요. 내가 혼자서 밥도 하고, 애들도 찾으러 매일 역전에 나가고, 말썽 일으키는 애들 있으면 경찰서에도 가서 찾아오고 다 하는 걸요. 내가 독신자니까 가능하지요.(살레시오 영등포 청소년쉼터)”

단순하게 생각하면 직원이 많은 경우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면접조사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직원의 수가 적은 곳일수록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따라서 지도자들의 지도가 간섭이나 방치가 아니라 적당한 배려로 느껴질 수 있는 적정인원의 수준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직원 수는 청소년의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어느 기관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마디로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직원의 자격은 순수민간 쉼터의 경우 천차만별이나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쉼터의 경우 공통적으로 대학에서 사회복지나 상담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사회복지 전공자에 치우쳐있는 감이 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순수민간 쉼터의 경우 자원봉사의 차원에서 약간의 사례만을 받는 곳도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지원을 받는 쉼터간에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사

한 성격의 기관인 청소년상담실과 비교할 때 약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직원의 자격과 인건비는 순수 민간 쉼터와 정부 지원 쉼터 간에 큰 차이가 있고 정부 지원 쉼터 간에도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재원

재원과 관련해서는 재원의 출처, 재정의 열악성,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에 관해 차례로 서술하겠다.

(1) 재원의 출처

현재 청소년쉼터의 재원은 국가보조금, 지방비, 자체부담으로 나눌 수 있다. YMCA청소년쉼터는 문화관광부의 국고지원금 및 서울 YMCA의 자체부담금으로 운영하며, 장기적으로 자체모금,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의 후원을 확보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소년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쉼터, 부산광역시청소년쉼터는 지방비와 국가보조금을 똑같은 비율로 받고 있으며, 신림지역청소년쉼터와 구로지역청소년쉼터는 국가보조금보다 지방비를 더 많이 받고 있다.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청소년쉼터는 후원금 등으로 설립기금을 마련하고, 민간의 프로젝트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기도 하고 있으며, 국가보조나 지방비는 받고 있지 않다. 국가보조금이나 지방비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사용되며, 건물임대료나 쉼터 공사비 등은 위탁단체의 재원으로 하고 있다.

(2) 재정의 열악성

많은 쉼터들이 재정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쉼터에서조차도 쉼터 직원의 급여로만 충당이 되어도 모자랄 수 있는 5,900만원이 직원 급여, 가출청소년 식비 및 프로그램비를 포함하는 총 예산이 되고 있다. 직원의 급여수준이 열악할 뿐 아니라, 24시간 문을 열

어야 하는 쉼터 사정에도 불구하고 직원 3명이 근무하는 쉼터가 많아 근무조건이 아주 열악하여 직원들의 교체가 빈번하다고 한다. 직원들의 급여수준이 너무 낮은 것이 쉼터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직원의 급여수준을 어느정도 정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의 보조를 받는 많은 가출청소년쉼터에서는 실제로는 쉼터에 상주하여 일을 하지 않는 위탁단체의 직원이 주로 장을 맡고 있으며, 정부보조금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 때문에 일에 비해 직원수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인력이 엄청 모자랍니다. 얼마나 모자라면 직원 세 사람이 받는 적은 월급을 쪼개서 직원 한 사람을 더 쓰겠습니까.”

“쉼터 직원이 청소년관련분야 전공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출청소년들이 어떤 청소년보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청소년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면 적절한 대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근무조건과 급여수준으로는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직원이 계속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직원들이 모두 여자인 것도 근무조건과 급여수준과 관계가 있다.... 모두 대학, 대학원을 나오고, 또 자격증도 몇 개씩 가지고 있는데 급여수준이 너무 형편 없다. 이것은 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자존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의욕도 떨어져 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아이들에게도 전달될 것이고,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 바라는 것은 교사 수준이 아니라, 다른 쉼터처럼 상여금이라도 3달에 한번 나왔으면 하는 것이다. 쉼터 직원의 급여수준을 정부차원에서 어느정도 정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관계자에게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제한까지 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가출청소년쉼터의 위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시보호를 하려면 쉼터가 청소년 밀집지역에 위치해야 하는데, 그런 곳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쉼터가 위치하다보니 일시보호가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단기 보호 및 중장기보호 위주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어떻게 더 모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쉼터 직원들의 노력으로 후원자를 확보하여 후원을 받았을 때 그것이 쉼터직원과 가출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대부분 쓰일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원확보 방안요? 있지요. 하지만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요. 사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한데, 그 심각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약자이기 때문인지 인간취급을 못 받고, 마치 짐작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후원자도 구하려는 노력도 하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그러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단체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3)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 양적인 수치에 치우치게 되고, 질적인 서비스가 힘들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운영비 전액이 보조금으로, 합리적이며 융통성 있는 예산집행에 애로가 있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지원을 받으면 제대로 일할 수가 없다. 정부의 요구사항이 불합리한 경우가 많고, 양적인 수치에만 급급하게 되고, 지역의 특성과 쉼터의 사정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다.”

“국가보조나 지방비 보조를 받을 때 의미있게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는다.”

<표 4-1>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자원

기관명	국고	지방비	자체부담	총계
강남구 청소년쉼터	-	3억4,000천 만원(주택구 입비 2억 포함)	1,000만원	1억 5천만원
구로공단지역 청소년쉼터	2,950만원	2억 9,584만 9천원	쉼터임대료 및 공사비 (3억 정도)	3억 2,534만 9천원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	2,950만원	2,950만원	주택 임대료	5,900만원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	2,950만원	2,950만원	쉼터 건물비용	5,900만원
서울 YMCA 청소년쉼터	9,690만원	-	주택구입비 (3억)+ 6,419만 2천원	1억 6,109만 2천원
신림지역 청소년쉼터	2,950만원	29,500만원	건물 임대료 및 공사비	3억 2,450만원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	2,950만원	2,950만원	건물임대료 + 900만원	6,800만원

* 자체 부담경비중 주택구입비나 쉼터시설 공사비는 예산총계에서 생략하였다.

쉼터 계획서 상에 나타난 보조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나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때에는 보조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조조건으로는 시에서 승인한 보조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시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분기별로 보고하고 사업완료후 즉시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쉼터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서류를 만드는 일들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쉼터가 처해있는 상황이나 쉼터가 위치해 있는 지역특성에 사업의 내용을 맞추는 일이 힘들어지고, 시간이 지체되며, 또한 양적인 것을 맞추느라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어, 정작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하게 되어 수단과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이런 보조조건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시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일시보호 청소년이 입소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쉼터는 하나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뿐 청소년기본법상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시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가 앞으로도 계속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5) 사업내용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각 청소년쉼터의 가출청소년보호활동, 입소자의 성별구분, 생활지도 및 규칙, 프로그램, 홍보·협력 활동, 사후지도 등에 관해 차례로 서술하겠다.

(1) 가출청소년 보호활동

우선 보호기간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조사한 쉼터들의 경우 일시보호만을 하는 곳은 없었다. 가장 큰 이유는 일시보호에 대한 가출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수요나 요구가 없다는 것이다. 수용정원 10명의 가출청소년 쉼터에서 일시보호만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1~2명의 가출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거나, 거리상담이나 안전장소를 통해서 입소해야만 한다. 하지만 아직 일시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입소하는 곳은 없었다. 많은 실무자들이 가출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했다. 거리상담을 실시해도 일시보호 가출청소년의 입소에는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표 4-2>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시 설 명	입소자 성별	보호기간	1일 수용능력
강남구 청소년쉼터	남	일/단/중기	10명
구로지역 청소년쉼터	여	일/단/중기	30명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	여	일/단/중기	10명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	여	일/단기	10명
서울 YMCA 청소년쉼터	여	일/단기	10명
신림지역 청소년쉼터	남	일/단기	20명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	남/녀	일/단/중기	10명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청소년쉼터	여	단/중기	10명
살레시오 노랑진 청소년쉼터	여	일/단/중기	4명
살레시오 영등포 청소년쉼터	남	일/단/중기	30명
열린문쉼터	남/녀	일/단/중/장기	20명
나자렛의 집	여	장기	17명
마자렐로 센터	여	중/장기	30명

* 보호기간은 현재 실제적인 보호활동기간을 기준으로 하였음

기본적으로 단순충동이나 단순한 문제로 가출하는 청소년들은 쉼터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출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밀집지역에 가출청소년쉼터가 위치해야 하는데, 그러한 장소는 임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장소를 빌리기가 어렵다. 쉼터의 위치가 한적한 곳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중장기 보호 위주로 되어 버린다. 대부분의 쉼터들이 한적한 곳에 있고, 직원들도 중장기보호를 선호하고 있다. 우선 매일 입소자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일시보호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혐도 적게 들고,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진행하기가 용이하고, 또 효과적이다. 중장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의뢰할 기관도 마땅치 않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시보호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많은 쉼터들이 노숙청소년, 집없는 청소년, 약물남용 청소년, 만성 가출청소년 등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구청이나 경찰서, 혹은 아동상담실에서 의뢰를 받아서 그룹홈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많은 쉼터들이 중장기보호 청소년 외에 학교나 부모로부터 의뢰 받은 가출 및 비행 청소년들을 입소시켜 상담과 생활지도 프로그램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청소년쉼터들도 일시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출청소년들의 자발적 입소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보호하는 동시에 학교나 부모의 의뢰를 받아 문제 청소년들을 입소시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호기간에 대한 쉼터 관계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청소년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애로점이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으면 성공이다. (구로지역청소년쉼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채우려고 하니 말이 안된다. 복지관이든 청소년 쉼터이든 육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출쉼터를 만들기 전에 가출청소년이 어디로 가는가, 가출쉼터가 정말 필요한가 등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취업을 시켜도 대개는 다 뛰쳐나가며, 사고치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다. 가출아의 특성이 자유이며, 보호를 싫어한다.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쉼터의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가 적절하다. 일시보호의 경우 10일 이내, 단기보호의 경우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중기보호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구분하고 일시 및 단기보호만을 쉼터로 보는 것이 좋겠다. 단기보호의 경우 부득이하면 3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그 이상의 보호를 요하는 청소년은 중장기 보호시설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 (서울YMCA 청소년쉼터)”

“일시보호·중장기보호 등 다목적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의 운영체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서울YMCA 청소년쉼터)”

“청소년가출자는 대부분이 만성가출자이므로 일시보호사업보다는 중장기보호사업이 더 필요하다. (열린문쉼터)”

“지역특성에 따라 쉼터가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유흥지역의 쉼터는 가출 청소년 일시보호와 지역청소년의 쉼터 역할을 하는 것이 좋고, 단기 또는 중기의 보호를 요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일시보호쉼터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신림지역청소년쉼터)”

(2) 입소자의 성별구분

수용대상을 성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으며, 그 이유는 첫째로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면 통제가 어렵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로 성별을 구분하면 프로그램 실시가 용이해 진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대부분의 시설에서 남녀 성별을 구별하여 입소시키고 있었다. <표4-2>에 나타나 있듯이 13개 시설 중에서 남녀 청소년을 함께 입소시키는 시설은 2군데, 남자만 입소시키는 시설이 3군데, 여자만 입소시키는 시설이 8군데로, 여자 청소년만 받는 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광역시에 하나 밖에 없는 공공 청소년쉼터가 남자 혹은 여자 청소년쉼터일 때 남녀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입소자 성별구분에 대한 쉼터 관계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가출청소년들의 품행은 대체로 양호하지 못한 편이므로 탈선예방을 위해서 성별구분 수용이 바람직하다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남녀를 구분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함께 있으면 도저히 관리할 수 없다 (YMCA 청소년쉼터).”

“구분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남녀 청소년을 같이 수용하면 비행모의나 성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부산광역시청소년쉼터).”

“가출문제를 지닌 청소년은 약물 및 성문제에도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숙식을 기본으로 하는 쉼터의 상황에서는 남녀 분리수용이 바람직하다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청소년쉼터).”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프로그램 실시나 관리 면에서 쉽고, 문제를 줄인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

(3) 생활지도 및 규칙

대부분의 시설들이 쉼터 생활수칙을 가지고 있었다. 성문화된 생활수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설은 구두로 서약을 받는다고 한다. 입소청소년들과 쉼터 직원들간에 제일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도 바로 생활지도 및 규칙의 적용 문제이다. 아이들은 간섭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것이며, 직원들은 시설 내의 질서유지와 아이들의 교육 및 생활지도를 위해서 통제 및 규칙을 적용하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규칙을 정하고 적용하는 것은 올바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문제이다. 시설의 규칙 및 통제에 대한 쉼터 관계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외출이나 생활태도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들락하게 하면 쉼터가 청소년들에게 이용당하게 된다. 낮에 나가서 나쁜 짓하고 밤에는 들어와 쉬고 또 나가서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쉼터 실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YMCA)”

“쉼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습관이나 예절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규칙을 엄격히 적용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형식에 가두려는 시도는 잘 되지 않았다.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제제가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금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도가 더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의 애정에 대한 욕구를 받아주고 충족시켜 주는 것, 접촉(skinship)을 통한 생활지도가 오히려 유용하였다. 무조건 사랑해주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돼서인지 아이들이 향상되었다.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청소년쉼터)”

(4) 프로그램

모든 쉼터들이 1주에서 4주까지의 일정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일정표를 그대로 실행하는 쉼터는 거의 없었다. 많은 쉼터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따라 프로그램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프로그램 일정표는 그대로 실행되지는 않지만 쉼터 직원과 청소년에게 생활의 목표

와 긴장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대개는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입소시기나 연령, 능력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학교에서 의뢰받은 문제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일정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쉼터의 프로그램이 너무 일률적이며, 프로그램이나 사업내용을 지역특성이나 쉼터의 상황에 맞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쉼터 프로그램에 대한 쉼터 관계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채우려고 하니 말이 안된다. 프로그램도 단 기관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본따서 모두 똑 같다. 복지관이든 청소년 쉼터이든 지역사회의 욕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소규모의 쉼터를 많이 설립해 각 시설별로 프로그램 내용을 특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약물청소년쉼터, 성문제청소년쉼터, 학교부적응 청소년쉼터 등. (강남구청소년쉼터)”

“일시보호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은 어렵다. 연령, 배경, 교육정도, 입소일 등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모아 놓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

“프로그램과 일정표가 있지만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표가 있다는 것은 교사들에게 구조감을 제공해 주고,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는 긴장감을 준다. 한 50% 정도 실행한다고 볼 수 있다. 집에서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생활하면서 대하는 태도, 말을 건네는 것, 같이 앉아 있는 것 등의 모든 상호작용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가출청소년들은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기가 참 힘들다. 직접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미술치료, 즉 그림을 통해서 자기를 개방하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철저히 시행하려 했다. 지금은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실시하고 자유시간을 많이 주고 있으며, 자유시간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이들에 따라 개별상담, 생활지도, 집단프로그램 등 각각 효과있는 영역이 달랐다.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청소년쉼터)”

많은 청소년쉼터들이 학교 및 부모의 의뢰를 받아 문제청소년을 입소시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청소년쉼터의 경우 전체 입소청소년 중 학교의뢰가 52%, 부모의뢰가 19.3%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청소년쉼터의 경우 학교의뢰가 47%, 부모의뢰가 44%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의 경우 학교의뢰가 30% 정도라고 한다. 구로지역 청소년쉼터도 학교와 연계를 통하여 가출 및 비행청소년들을 입소시켜 생활지도 및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 다루기 힘든 가출학생 지도문제를 적극 위탁받아 학교 사회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가출학생들에 대해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교무실 등에서 벌을 서는 것과 근신, 정학 등의 단순처벌 형식의 방법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쉼터에서 가출학생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과전나가 특별활동 시간 등을 이용하여 집단상담을 진행한다면 효과적으로 가출학생을 도와줄 수 있다. (1998년 YMCA 청소년쉼터 사업계획 및 운영 개선방안)”

“자원간의 연계협력이 잘 안된다. 교육부와 학교가 경직되어 있다. 교육부의 기관이 아니면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와 쉼터간의 연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학교의 진로상담부를 접촉하면 쉼터의 학교활동을 귀찮게 여겨서 할 수 없이 학생부와 연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간 많이 노력하여 학교와 연계프로그램을 개척하였는데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쉼터를 만든다고 한다. 기존의 기관을 이용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자원과 경비를 절약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청소년쉼터)”

많은 쉼터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쉼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표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은 쉼터에서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많은 청소년쉼터들이 가정집 형태의 그룹홈 형태라서 일반청소년들이 접근

하기 어렵고, 또한 가출청소년쉼터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시설면에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가장 좋은 형태로 되어 있는 쉼터가 신림지역 청소년쉼터이며, 또 일반청소년 대상의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많은 쉼터들이 수용된 가출청소년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청소년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형편이다. 부모나 청소년들의 전화상담이나 내방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들 보다는 부모의 상담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5) 홍보 · 협력활동

가출청소년쉼터들은 홍보방법으로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지역정보, 구민일보, 반사회 등을 이용하고 있고, 학교 및 관련기관에는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출청소년도 생활정보지는 보기 때문에 특히 생활정보지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입소자 확보를 위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주민으로부터 쉼터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역주민 중에는 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의 수용시설’로 인식하고 쉼터를 기피하거나 지역이미지를 손상한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 특히 이곳을 드나드는 청소년들로 인해 자신들의 자녀가 나쁜 영향을 받거나 앓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는 쉼터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입소자 확보를 위한 홍보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많았고, 지역주민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은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홍보는 지역 신문 등 지역사회에서 협조를 잘 해주고 있다. 홍보를 위해 평

장히 노력하고 있으나 가출청소년들의 자발적 입소를 늘이는 데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인천광역시청소년쉼터)”

“작년에는 파출부 아줌마가 자기가 굶으면 굶었지 나쁜 아이들(가출청소년들)에게 밥해주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만두어서 곤란했던 적이 있었다. 처음 쉼터가 들어 설 때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케이이다. 인근 주민들이 김치와 밀반찬도 가져다 주고 있다. (인천광역시청소년쉼터)”

“쉼터가 지역사회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지지망이 필요하다. 따라서 먼저 지역유지들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반사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청소년쉼터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홍보협력 활동이 필수적이다. (강남구청청소년쉼터 쉼터)”

“인근 주민들과의 관계개선 및 협조가 중요하다. (부산광역시청소년쉼터)”

“효과적인 홍보방법은 생활정보지이다. 생활정보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가출청소년들이 많았다. (YMCA청소년쉼터)”

대부분의 청소년쉼터들이 학교, 부모(보호자), 아동상담소, 경찰서, 파출소, 구청 아동복지과 등을 통하여 보호청소년들을 의뢰받고 있다. 하지만 위탁 단체 안에 청소년 장기보호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쉼터들은 장기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의뢰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쉼터에서 장기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의뢰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전문화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다음은 쉼터 실무자들의 의견이다.

“청소년의 문제에 따른 쉼터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단순가출자는 일시보호 쉼터에서 맡고, 문제가 심각한 청소년은 아동상담소에서 맡고,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학교에 다닐 수 없는 형편의 청소년은 열린문쉼터에 맡는 등의 분업이 필요하다. (열린문쉼터)”

“일시보호로 부족한 아이들을 의뢰할 곳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인천에서 아이들을 보육원에 의뢰하려면 부녀복지관을 통해서 입소를 시켜야 하는데 처음부터 거부를 하기 때문에 힘들다. (인천광역시청소년쉼터)”

“학대아동을 위한 시설, 장애아동 수용 및 재활 시설, 직업보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각각의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기관들의 부재 등을 포함한 타기관과의 신속한 의뢰체제가 미비하다. 의뢰대상 기관들이 대부분 대규모의 보육시설이거나 단순한 보호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나마도 의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청소년쉼터).”

(6) 사후지도

많은 쉼터들이 퇴소한 가출청소년과 가족들이 계속적인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었다. 구로지역 청소년쉼터의 경우 퇴소 청소년의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비행을 예방하고자 퇴소 후에도 1년동안 가정방문, 서신, 전화 및 월 1회 정기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청소년쉼터는 쉼터 생활수칙의 퇴소절차에 최종면담시 퇴소후 사후지도의 관계를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의 경우 1997년 10회에 걸쳐 퇴소 가출청소년 및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퇴소 가출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퇴소자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였지만, 입·퇴소자를 같이 혹은 입·퇴소자 학부모를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V. 가출청소년쉼터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

1. 개관

가출청소년쉼터의 모델은 한가지로 단정지어 제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출청소년의 유형이나 문제점들이 한가지로 정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우도 문제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가출자를 위한 쉼터는 2주 이내의 일시보호 위주 시설로써 지역사회 문화센터와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심리적인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그 문제의 정도에 따라 2주 - 3개월의 단기보호 또는 6개월 이내의 중기보호가 필요하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 돌아갈 수 없는 가출자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보호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중 일시보호와 단기·중기보호 만을 쉼터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쉼터의 바람직한 모델은 보호기간을 일시보호와 단기·중기보호의 두가지로 나누어 시설, 인력, 자원, 사업내용별로 각각의 안을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출청소년쉼터의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쉼터에 대한 기관방문조사를 통해 연구진이 파악한 내용과 담당직원 및 가출청소년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도출된 의견을 참조했고, 또한 가출청소년관련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자문을 받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가출청소년쉼터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전국적인 가출청소년쉼터 설립계획을 간단히 제시하고,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가출청소년쉼터에 시달하고 있는 운영지침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가출청소년쉼터의 모델이 앞으로 문화관광부의 운영지침에 반영되리라고 기대한다.

2. 설립계획

가출청소년들이 쉼터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쉼터가 전국적으로 적정한 위치에 골고루 설립되고 이들 가출청소년쉼터가 조직적인 연계망을 구축해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주축이 되어 청소년쉼터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면서 청소년 비행예방 차원에서 청소년쉼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국 청소년쉼터의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중앙 차원의 청소년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앙청소년쉼터는 새로이 설립할 수도 있지만,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각 광역시마다 1개 이상의 청소년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있고, 서울에 2개소, 대전에 1개소가 올해 문을 열었으며, 올해 안으로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에 가출청소년쉼터가 설립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02년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소년상담실과 마찬가지로 경기(수원), 강원(춘천), 충북(청주), 충남(천안), 전북(전주), 전남(순천), 경남(마산), 경북(안동), 제주(제주)에 각 1개소씩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시·도에 청소년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청소년상담실의 경우 전국 7개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43개소의 청소년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쉼터의 경우 가출청소년이 주로 모이게 되는 대도시에서 주로 수요가 있을 것이므로 시·군·구 단위에서는 청소년상담실에서 쉼터의 역할을 겸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각 도의 쉼터의 경우에도 예산절감을 위해 현재 있는 청소년상담실의 역할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청소년쉼터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도시 내에서도 쉼터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문제는 주로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특정한 한 개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시의 경우 한 두개의 쉼터로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경우 구에서 지원하는 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강남구 청소년쉼터가 있다. 이상과 같은 쉼터의 재원은 국고 및 청소년육성기금, 지방비로 지원한다.

가출청소년쉼터의 전문적인 운영체제가 확립되려면 이상 문화관광부에서 설립·지원하고 있는 쉼터 및 설립 예정 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상담실 및 아동상담소 등 여러 상담기관과의 연계체제가 구축되어 가출청소년이 빠르게 쉼터로 연결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연계망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및 사회단체는 ‘가출청소년쉼터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해 상담기관은 가출청소년 발생시 적절한 쉼터에 인계하고, 쉼터끼리도 수용인원이 넘칠 경우 타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현행 가출청소년쉼터 운영지침¹⁰⁾

1) 목적

문화관광부에서는 가출청소년쉼터의 목적을 3가지로 기술하였다. 첫째, 각종 비행의 유혹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둘째, 가출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 일시보호 및 선도를 통해 가정과 학교에 복귀시킴으로써 청소년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셋째, 집으로 복귀할 수 없는 가출청소년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의뢰한다.

10) 문화관광부에서 국가보조를 받고 있는 가출청소년쉼터에 내려주고 있는 운영지침은 개조식으로 되어 있으나 본 보고서의 기술방식상 서술식으로 기술하였다.

2) 주요사업

문화관광부는 가출청소년쉼터의 주요사업으로 일시보호, 상담활동, 교육활동, 청소년문제 예방활동, 지역사회 청소년문화활동, 홍보활동을 들고 있다. 다음은 각 활동들의 내용들이다.

(1) 일시보호

가출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을 방지하고, 탈선 및 비행을 예방하고, 가출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상담활동

전화상담, 면접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인성검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하여, 그들의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인 욕구와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건전한 성장을 유도한다.

(3) 교육활동

직업상담, 영화감상, 독서토론, 음악감상, 토론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가출청소년의 심성을 순화하며, 필요시 전문상담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4) 청소년 문제 예방활동

조사연구, 세미나, 소식지발간,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의 욕구와 청소년 문제의 흐름을 파악한다.

(5) 지역사회 청소년문화활동

문화예술감상, 작은운동회, 동네캠프 개최 등을 통해 가출청소년의 사회적응을 돕는다.

(6) 홍보활동

언론매체, 사회단체, 학교, 지역사회 등에 쉼터 활동을 홍보하며, 안내판 및 약도 등을 제작·배포한다.

3) 쉼터 설립·운영 기본지침

(1) 설립

청소년들이 찾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지역에 설치하며, 청소년종합상담실과 연계하여 설립한다. 향후 청소년 쉼터설치 필요지역을 중심으로 시·도 실정에 맞게 상담실을 설치한다. 서울 및 광역시 쉼터(부산 및 울산 제외)의 개설은 '98상반기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 운영

쉼터 이용자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하며, 청소년보호는 일시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쉼터이용 청소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한다.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 소식지 등 홍보를 강화하며, 국고 및 지방비 지원사업과 자체운영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상담시 개인 신상에 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며, 청소년종합상담실과 연계하여 운용한다.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사회봉사경험이 있고 건실한 지역내 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등에 위탁한다. 운영시 유의사항으로는, 대외적인 명칭(현판, 홍보물 등)은 "○○지역 청소년쉼터"로 하며, 운영시간은 1일 24시간 준수하며, 시 실정에 맞게 교대근무제를 실시한다.

쉼터운영에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열의를 갖춘 자로 자원봉사자들을 확보 및 배치한다. 쉼터운영실태파악 및 지도확인을 철저히 하고, 운영일지를 작성·비치한다. 시 청소년과에서 가출청소년쉼터에 대한 지도·관리를 총괄한다. 쉼터의 조직, 기능, 직원선발방법, 복무 및 보수 등 운영방법

은 시 형편에 따라 자체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4) 행정사항

가출청소년쉼터에 비치할 대장은 청소년쉼터 현황, 상담운영일지, 상담 기록부, INTAKE SHEET, 직원복무관리, 당직근무일지<자체양식> 및 기타 쉼터 해당 서류비치 등이다. 시에서의 쉼터 운영계획 수립·제출은 문화관광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쉼터운영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 조치한다. 쉼터운영 실적보고는 각 시에서 문화관광부로 하며, 제출기한은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이다. 행정사항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98년도 사업).

- 사업지침시달 : '97. 12월 (문화관광부 → 시)
- 사업계획 수립·제출 : '98. 1. 10일까지 (시 → 문화관광부)
- 사업검토 및 보조금 교부: '98. 1월 - 10월
- 사업결과 보고 : '99. 1. 15일한

4. 가출청소년쉼터 모델¹¹⁾

1) 시설

가출청소년쉼터로서 적합한 위치는 가출청소년이 밀집하는 지역으로써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인 경우 이러한 유흥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가능한 지하철역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중기보호를 위한 쉼터인 경우는 이러한 지역과 인접한 곳으로 주거지역이 적합하다.

가출청소년쉼터의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이 편리하여 어느 곳에서도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과 함께 가출청소년이나 배회청소년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 바람직하다. 이런 조건을 갖춘 곳으로는 기차역,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등과 가깝고, ‘노는 청소년들’이 물리는 장소와 가까운 전철역 주변으로 서울의 경우 영등포역, 가리봉 5거리, 신촌, 대학로, 돈암동, 노원역, 화양리, 잠실, 천호동 등을 들 수 있다.

일시보호쉼터의 경우 이러한 지역에 가출청소년이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유흥지역이나 상업지역내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단기·중기보호쉼터의 경우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무방하나 반드시 지하철역과 연결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주택가이어야 하며, 여기에 주변에 공원이나 공공스포츠시설, 강이나 야산 등이 있어서 쉼 공간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 한편 장기보호시설인 경우에는 교통편보다는 휴식할 수 있는 주변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쉼터의 위치로서 피해야 할 곳은 외진 곳이나 대중교통이

11) 가출청소년쉼터의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김향초교수(협성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이용교교수(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이 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여의치 않은 곳은 물론이고, 관공서가 밀접하여 가출청소년이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꺼려하는 지역, 예를 들면 청와대나 종합청사 주변, 중산층이상이 밀집해서 사는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 등이다.

가출청소년쉼터로서 적합한 건물형태와 규모는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인 경우 지역문화공간이 있는 건물이나 상가건물의 형태로 건평 100평 규모가 적절하다. 단기·중기보호를 위한 쉼터인 경우는 단독주택이고 대지 100평에 건평 80평 정도의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가 적절하다.

가출청소년쉼터로서 적절한 건물형태는 일시보호쉼터인지 단기·중기보호쉼터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시보호쉼터는 접근 용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청소년센터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건물이 좋다. 따라서 상가건물이나 지역내의 청소년회관이나 문화회관, 상담실 등 지역문화공간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건물 내에 있거나 상가건물 내에 있으면, 청소년들이 그곳을 찾아갈 때 굳이 ‘가출청소년쉼터’가 어디인지 묻지 않고도 쉽게 길을 물어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규모는 건물내부 건평이 100평 정도로 2개 층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중기보호쉼터인 경우에는 가출청소년들로 하여금 집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단독주택의 가정집 분위기가 바람직하다. 주변의 다른 집들과 함께 조화되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주택으로써 규모는 대지 100평에 건평 80평 정도의 지상 2층, 지하 1층의 구조가 적절하리라고 본다. 이 정도면 마당이 넓어 화초나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고, 사무공간과 주거공간을 분리할 수 있으며, 소리가 크게 나는 프로그램들은 지하에서 진행함으로써 이웃 주민의 민원을 방지할 수 있다. 이들 쉼터의 수용인원은 일시보호의 경우 10명, 단기·중기보호의 경우 15명을 기준으로 한다.

가출청소년쉼터의 내부공간은 업무공간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어야 한다.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인 경우 지역청소년센터로서의 기능을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문화공간에 비중을 두고, 단기·중기보호를 위한 쉼터인 경우는 휴식공간과 학습공간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침실은 온돌방의 형태가 적합하고, 가능한 적은 인원이 지내게 하여 사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물 내부는 크게 사무공간, 상담공간, 활동공간, 침실공간, 공동생활공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시보호쉼터의 경우 공간이 부족한 경우라 해도 최소한 사무-상담-활동과 같은 업무 및 활동공간과 침실-취사 등 생활공간은 반드시 기능적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현관을 중앙에 위치시켜 입구에 사무실과 로비 겸 휴게공간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한쪽편에는 상담 및 활동공간을 배치하고 다른 편에는 생활공간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는 2층으로 나누어질 경우 1층에 업무 및 활동공간을 배치하고 2층에 생활공간을 배치한다. 일시보호쉼터의 경우 건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부구조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지만, 단기·중기보호쉼터의 경우는 주택이기 때문에 보통 1층에 주방과 침실, 거실이 있고 2층에 침실과 거실이 있어 이러한 기능구분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사무실은 1층, 숙실은 2층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나머지 공간들을 배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기능구분 속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간은 다음과 같다. 일시보호쉼터의 경우 가능한 한 다양한 문화활동 기능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위한 공간의 비중이 높아야 한다. 즉, 휴게공간, 소공연장, 소그룹활동실(2개), 집단상담실, 개인상담실을 갖추어야 하고, 쉼터의 기본기능인 일시보호를 위해 사무실, 부엌 및 식당, 세탁실, 화장실(2개), 침실(3개)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은 생활공간과 활동공간에 각각 하나씩 필요한데, 생활공간의 화장실은 욕실을 겸하도록 하고, 활동공

간의 화장실은 변기를 여러 개 구비해야 한다. 특히 변기는 성병감염의 문제 때문에 좌변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침실은 작은방 2개와 큰방 1개로 나누어 작은 방은 숙직실과 입소초기 적응실로 큰방은 일반실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단기·중기보호쉼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무실, 부엌 및 식당, 세탁실, 화장실(2개), 침실(4개)을 갖추어야 하고, 이 외에 상담실, 휴식과 여가를 위한 휴게공간, 집단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집단활동실, 학습과 독서를 위한 독서실이 필요하고, 여기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작업실 또는 음악감상실이 있으면 좋겠다. 침실은 숙직실과 입소 초기 적응실과 연령별로 15세미만을 위한 방, 15세이상을 위한 방 등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그러나 이들 쉼터의 침실 기준은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기준일 뿐이므로 가급적 사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큰방 하나보다는 작은방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이 좋다. 또한 침실은 온돌방이 침대방에 비해 수용공간이 넓고, 침대밑에 먼지가 쌓이지 않으며, 야간 시간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숙직실은 침실공간의 입구쪽에 위치시켜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가출청소년쉼터에 필요한 설비로는 단기·중기보호를 위한 쉼터인 경우는 사무용품, 상담용품, 교육용품, 여가용품, 생활용품, 운동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과 교육용 기자재이다.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인 경우는 이러한 설비에 지역청소년문화활동을 위한 기자재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설비는 단기·중기보호쉼터의 경우 다음과 같다. 먼저 사무용품으로 책걸상 5세트, 8인용 회의탁자와 의자, 전화기 5대, 컴퓨터 5대, 프린터 2대, 복사기 1대, 서류함, 케비넷 등이 필요하다. 상담용품으로는 방음이 되는 상담실, 쇼파, 각종 검사도구, 전화기 2대,

소형녹음기 1대 등이 필요하다. 교육용품으로는 컴퓨터 2대, TV 및 비디오 1세트, 책걸상 4세트, 15인용 원탁과 의자, 책장 2개, 비디오 테이프, CD롬, 책 등이 필요하다. 여가용품으로 TV 1대, 오디오 1세트,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롬, 만화책, 장기, 바둑, 윷 등이 필요하다. 운동용품으로 헬스용구, 각종 공, 샌드백, 배드민턴 등이 필요하다. 생활용품으로 옷장, 침구 20세트, 주방설비, 냉장고, 대형 세탁기, 여벌의 옷(특히 속옷, 양말, 실내복 등), 가정상비 의약품, 냉난방설비 등이 필요하다. 또한 2개 이상의 PC통신 가입, 2개 이상의 전화번호 가입, 아웃리치프로그램시 활용할 수 있는 핸드폰 1개, 2개이상의 신문구독 등이 요구된다. 이 외에 가능하다면 9인승 정도의 업무용차량과 청소년들의 취향을 살릴 수 있는 노래방기계나 게임기, 오락용구 등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시보호쉼터의 경우 이상의 설비 외에도 지역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위한 장비들이 추가될 것이다. 청소년의 정보이용을 위한 PC통신가입과 컴퓨터구비, 소공연장의 의자 및 음향·조명시설, 소그룹활동실의 활용도에 따라 원탁 및 의자 또는 음향시설, 휴게공간의 소파세트 또는 탁자와 의자 등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가출청소년쉼터의 시설모델은 다음 <표 5-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5-1> 가출청소년쉼터 시설모델

구 분		내 용
위치 및 주변환경	일 시 보 호	○ 청소년밀집지역 내 유흥지역 또는 상업지역 ○ 대로변 지하철역 도보 10분 이내
	단기·중기보호	○ 청소년밀집지역 인근 주택가 ○ 대중교통 편리한 곳
건물형태 및 규모	일 시 보 호	○ 지역문화공간이 있는 건물이나 상가건물 ○ 건평 100평 / 2층으로 구분
	단기·중기보호	○ 단독주택 ○ 대지 100평·건평 80평 / 지상 2층·지하 1층
내부공간	일 시 보 호	○ 업무공간 및 문화공간과 생활공간 분리 ○ 지역청소년문화공간에 비중을 둠 ○ 사무실, 부엌 및 식당, 화장실(2개), 침실(3개), 세탁실, 휴게공간, 소공연장, 소그룹활동실(2개), 집단상담실, 개인상담실 등 ○ 침실은 온돌방으로 1개실에 가능한 적은 인원 수용
	단기·중기보호	○ 업무공간과 생활공간 분리 ○ 가출청소년 휴식공간 및 학습공간에 비중을 둠 ○ 사무실, 부엌 및 식당, 화장실(2개), 침실(4개), 세탁실, 휴게공간, 집단활동실, 독서실, 상담실 등 ○ 침실은 온돌방으로 1개실에 가능한 적은 인원 수용
필요설비	일 시 보 호	○ 단기·중기보호쉼터 설비에 지역청소년문화활동을 위한 설비 추가 ○ PC통신, 공연시설, 휴게시설 등
	단기·중기보호	○ 사무용품, 상담용품, 교육용품, 여가용품, 생활용품, 운동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교육용 기자재 ○ 컴퓨터, 검사도구, 교육용 도서 및 영상물, 운동기구, 놀이기구 등

2) 인력

가출청소년쉼터의 조직은 책임자 이하 수평구조가 적절하다. 실무자는 단기·중기보호쉼터인 경우 보호 및 생활지도 1-2명, 상담 및 교육 1-2명, 일용직 1명 등 3-5명이 필요하고, 정규직원 중 1-2명이 야간생활지도를 담당해야 한다. 일시보호쉼터의 경우 여기에 지역사회 문화프로그램 담당직원 1-2명이 추가되어 4-7명이 필요하다.

쉼터의 조직은 책임자 이하 수평구조가 적절하다. 직급의 구분을 두게 될 경우 관료화할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직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된다. 운영단체가 법인인 경우 이사회가 별도로 있을 것이고, 일반 단체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실무자 수는 단기·중기보호쉼터인 경우 3-5명 정도가 필요하다. 즉, 보호 및 생활지도 측면에서 1-2명, 상담 및 교육 측면에서 1-2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이외에 식사 내지 청소와 관련하여 일용직 직원이 필요하다. 정규직원 중 1명 또는 2명은 야간생활지도를 담당해야 한다. 일시보호쉼터의 경우 여기에 지역사회 문화프로그램을 담당할 직원 2명 정도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 ‘문화의 집’과 같은 청소년 문화시설이 있는 경우, 두 기관의 기능이 중복되므로 지역사회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은 없이 일시보호만 시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인력은 단기·중기보호쉼터와 같아질 것이다.

직원의 자격은 일용직 외에는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관련전공자 등을 임용해야 한다. **야간생활 지도담당**은 수용대상 청소년의 성별과 일치되어야 있다.

이 중 일용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적어도 대학졸업자 이상이어야 실무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관련전공자 등 청소년지도에 적합한 전문가를 임용해야 한다. 또한 남녀의 성비를 조화시키는 것이 좋고, 특히 야간생활 지도담당은 수용대상 청소년의 성별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쉼터의 담당업무와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책임자와 일반 직원은 출퇴근을 하면서 상담과 교육, 행정업무를 맡고, 야간생활지도 직원은 야간에 숙식을 하면서 청소년의 생활지도를 담당한다. 책임자와 일반직원은 일주일에 1-2회 정도 숙식을 하여 생활지도 담당의 휴일업무를 대체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한다.

책임자와 일반직원은 출퇴근을 하면서 상담과 교육, 행정업무를 맡고, 야간생활지도담당은 숙식을 하면서 근무하도록 한다. 책임자와 일반직원은 일주일에 1회 정도 숙식을 하여 생활지도담당의 휴일업무를 대체해야 한다. 야간근무 등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야간생활 지도담당은 가출청소년과 함께 살 수 있는 직원이 적합하고, 오전에 퇴근하고 저녁에 출근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어떤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가급적 하루 8시간이상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취사나 세탁을 담당할 일용직을 별도의 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 사람을 숙식생활자로 구할 수 있다면 야간의 청소년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적극 요구된다. 자원봉사자는 직원의 직무를 돕는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되나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준전문가 정도로 양성해야 한다. 이들을 순번제로 쉼터의 야간생활 지도나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활용하고, 문화예술활동 등 특별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가출청소년쉼터의 인력모델은 <표5-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5-2> 가출청소년쉼터 인력모델

구 분		내 용
조직 및 인원수	일시보호	○ 책임자 이하 수평구조 ○ 보호 및 생활지도 1-2명, 상담 및 교육 1-2명, 문화 프로그램 1-2명, 일용직 1명 등 4-7명 정도
	단기·중기 보호	○ 책임자 이하 수평구조 ○ 보호 및 생활지도 1-2명, 상담 및 교육 1-2명, 일용직 1명 등 3-5명 정도
자격기준(일용직 제외)		○ 대학졸업자 ○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관련전공자 등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일시보호	○ 책임자와 일반직원은 출퇴근하면서 상담과 교육, 문화프로그램,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일주일에 1회 정도 숙직 ○ 야간생활지도직원은 야간에 숙식하면서 청소년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8시간 근무 보장
	단기·중기 보호	○ 책임자와 일반직원은 출퇴근하면서 상담과 교육,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일주일에 1회 정도 숙직 ○ 야간생활지도직원은 야간에 숙식하면서 청소년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8시간 근무 보장

3) 재원

일용직을 제외한 쉼터의 나머지 직원은 적어도 대학졸업자 이상이어야 실무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며, 따라서 이들의 급여는 사회복지사 급여에 준하고 업무 내용에 따른 수당지급이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견이다.

쉼터 직원이 청소년관련분야 전공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출청소년들이 어떤 청소년보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청소년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면 적절한 대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근무조

건과 급여수준으로는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직원이 계속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직원들의 급여수준이 너무 낮은 것이 쉼터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직원의 급여수준을 어느정도 정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그 수준은 사회복지사나 상담실 직원의 수준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가출청소년쉼터의 직원수를 확충시켜줄 필요가 있다. 24시간 문을 열어야 하는 쉼터 사정에도 불구하고 3명인 근무하는 쉼터가 많아 근무조건이 아주 열악하게 되어, 직원들의 교체가 빈번하다.

인력이 모자라서 직원들의 적은 월급을 쪼개어 직원 한 사람을 더 쓰는 쉼터도 있었다. 가출청소년쉼터 직원의 급여를 문화관광부 보조금으로 하도록 하면서, 직원의 수와 급여수준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많은 쉼터들이 재정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많은 가출청소년쉼터에서조차도 쉼터 직원의 급여로만 충당이 되어도 모자랄 수 있는 예산이 직원 급여, 가출청소년 식비 및 프로그램비를 포함하는 총예산이 되고 있다. 가출청소년쉼터 예산의 증가가 요구된다.

가출청소년쉼터의 예산은 청소년상담실이나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비해 아주 적은 수준이다. 다른 복지시설과 예산의 수준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

기존에 자생적으로 알차게 운영하는 곳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자발적이고 작은 쉼터들이 여러 곳에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도 가출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쉼터들이 많이 있다. 쉼터 직원들의 열의와 정성과 희생에 의해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 보호시설들의 성과를 평가해서, 최소한 인건비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요구된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쉼터 직원들의 노력으로 후원자를 확보하여 후원을 받았을 때 그것이 쉼터직원과 가출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대부분 쓰일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쉼터의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는 정부기관과 민간 기관에서의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전체 예산을 정부 지원으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민간기관에서의 재원마련도 쉽지 않은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정부 부담과 쉼터 자체내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재원 마련이 바람직하다. 후원금 및 모금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후원금과 모금의 결과 생겨난 자원이 쉼터 운영 및 직원복지에 사용되어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쉼터 후원을 위한 음악회, 미술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와 후원인의 밤과 같은 행사도 민간자원의 동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쌀가게에서는 쌀을 후원 받고, 주유소에서는 난방용 석유를 후원 받으며, 인근의 큰 기업에서는 쉼터 직원의 급여를 후원 받고, 대신 청소년쉼터 후원업체라는 명칭과 조세감면이나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출청소년쉼터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때 서류작업 및 절차를 간소화·합리화하여 쉼터 직원들이 쉼터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때 양적인 것을 보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의미있게 일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론 정부의 보조금이 정확하게 가출청소년을 위해서 의미있게 사용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서류를 만들고 행정적 절차를 맞추는 일 때문에 정작 가출청소년에게 의미있는 일이 방해받을 수 있다면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것이다. 청소년쉼터를 지원을 해 주면서도 전시행정을 위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쉼터 관계자들은 보조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서류를 만드는 일들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쉼터가 처해있는 상황이나 쉼터가 위치해 있는 지역특성에 사업의 내용을 맞추는 일이 힘들어지고, 시간이 지체되며, 또한 양적인 것을 맞추느라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어, 정작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하게 되어 수단과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가출청소년쉼터에 대한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출청소년쉼터 사업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출청소년쉼터는 하나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뿐 청소년기본법상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시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가 앞으로도 계속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

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출청소년쉼터 사업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사업내용

가출청소년쉼터의 사업은 우선 가출청소년에 대한 거리상담, 홍보, 안전장소 설치 등의 접근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가출청소년 개인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파악을 하고, 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쉼터에서 제공하고,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는 연계된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가출청소년이 퇴소하였다고 쉼터의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가출 및 비행예방과 학교 및 가정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사후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출청소년쉼터의 사업은 우선 가출청소년에 대한 거리상담, 홍보, 안전장소 설치 등의 접근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출청소년이 다가오든지, 아니면 쉼터가 가출청소년에게 다가가든지, 혹은 경찰서나 다른 기관에서 의뢰가 오든지 간에, 가출청소년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가출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면, 청소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단이 이루어진 후,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어떤 한 기관에서 모든 가출청소년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위해 이용가능한 보호, 교육·훈련, 건강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확인과 서비스 연계체제를 만드는 것이 요청된다. 가출청소년 개인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파악을 하고, 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쉼터에서 제공하고,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는 연계된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진단과 분류가 이루어져서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게 되면, 적

응단계, 문제해결단계, 종결단계를 거쳐 퇴소하게 되며, 가출청소년이 퇴소하였다고 쉼터의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가출 및 비행예방과 학교 및 가정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사후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1) 홍보·협력활동

가출청소년쉼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원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쉼터가 지역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도 꼭 필요한 기관이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하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지원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학교장, 구의원, 관계공무원, 지역유지 등을 참여시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반사회를 통해 청소년쉼터를 홍보하고, 쉼터 기념일에 기념떡을 만들어 쉼터 주변 주민들에 나누어주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가출청소년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청소년, 그들의 가족, 학교 교사, 경찰관, 관련전문가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학교에서 가출예방교육과 같은 공공교육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서비스 내용들이 공표되고 홍보되어야 하며, 매스컴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가출청소년은 증가추세이나 쉼터 이용자수는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쉼터의 낮은 인지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쉼터의 존재를 알리는 방법으로는 일차적으로 문서를 통한 홍보활동을 펴고, 기차역, 버스터미널, 지하철역과 그 주변에 있는 파출소, 간이 상담실의 종사자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가출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역전주변, 유흥가주변, 대학가주변중 노래방/비디오방/락

카페 등이 많이 밀집된 건물의 입구나 화장실 등에 쉼터안내 스티커를 부착한다.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 주변의 종교시설과 그 성직자들에게 쉼터의 이용방법을 안내한다.

현재의 182 신고와 연계된 가출청소년 전용의 위기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기전화를 통해 가출청소년을 확보하여 청소년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단순가출청소년의 경우 전화통화만으로도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과제이다. 위기전화는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쉼터에 앉아서 가출청소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들이 자주 배회하는 지역에서 실무자나 자원봉사자가 이들을 찾아나서는 가출청소년 찾아나서기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도움 요청시 쉼터로 데리고 올 수도 있어서 앞으로 요구되는 프로그램이다.

가출청소년쉼터는 입소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가출청소년 찾아나서기(outreach program)를 통해 가출청소년에게 먼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을 찾아나설 경우, 쉼터별로 담당구역을 정해서 가출청소년을 고루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 안전문제와 법적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의 이동파출소의 도움을 받는다. 길거리에서 정기적으로 점심 식사제공을 하거나, 청소년이 좋아하는 음식점을 정해놓고 정기적인 토론모임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쉼터를 찾는 가출청소년과 유흥업소주변에서 일하는 가출청소년은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을 모두 선도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정책목표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안전장소 설치가 요구된다. 안전장소(safe place)는 유흥업소나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주인과 협력해 갈 곳이 없는 청소년이 있는 경우 그들을 연결해주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홍보와 협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안전장소에서 위급청소년이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면 직원은 즉시 안전장소 본부로 전화를 하고, 안전장소 본부에서는 그 안전장소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자원봉사자나 쉼터직원을 통하여 청소년을 데려오게 한다. 자원봉사자는 자격요건에 맞아야 하며, 가출청소년과 동성의 봉사자로 하여금 데려오게 하여야 한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지킴이의 집>을 지정해서 위기의 가출청소년에게 긴급히 도움을 주거나, 지킴이 프로그램의 확산시 가출청소년 안전장소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이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는 가출청소년관련 시설간에 연계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입소가출청소년이 많은 때에는 다른 쉼터에 의뢰하고, 입소가출청소년이 없을 때에는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간에도 상호협조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진단 및 분류

가출청소년과의 접촉이 이루어진 후에는 가출청소년이 처한 상황, 가진 문제와 요구 등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 충동가출인 경우는 단기보호를 하면서 상담과 생활적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건강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습가출이고 집안에 귀가하지 못할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는 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

관이나 필요하다면 중장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수용대상 청소년의 경우 입소시 간단한 Intake 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쉼터에서 알고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양식을 만들어 입소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가출후 생활, 귀가 의사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인테이크상담 카드>와 초기상담후 상담목표, 개입방법, 개입후 변화상황 등을 기록한 <상담기록부> 등을 별도로 두어서, 모든 청소년별로 개별화된 상담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인테이크상담은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만, 상담기록부는 상담지도에 개입하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개입과정에 대한 개인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상담내용은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서 컴퓨터로 작성하여 통계처리 등에 활용하고, 표준화하기 어려운 내용도 반드시 컴퓨터로 기록하여 영구보존한다.

일시보호 이상의 조치를 요하는 청소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돌아갈 집이 없는 가출청소년은 장기보호시설로 이송하도록 한다. 정신질환자, 행려병자 등 청소년쉼터에 적합하지 않는 청소년은 입소시키지 않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에 의뢰한다.

장기보호시설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청소년은 약물문제가 심각하다든지, 범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자라든지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가출청소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가출청소년을 보호시설에 수용보호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정책목표가 될 수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가출청소년만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귀가조치하거나 가급적 건전한 일자리 등을 찾아서 자립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일시보호 이상의 조치를 요하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쉼터는 경찰서(파출소), 아동상담소, 부녀아동상담소, 학교, 보건소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쉼터는 가급적 일시보호만을 전담하고, 다른 서비스는 그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에 이송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 이송이 체계적이고 권위있게 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가출청소년이 쉼터에서 보호받고 생활지도를 받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결석처리를 하지 않거나, 징계를 가볍게 한다든지 하는 제반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3) 청소년 보호활동

가출청소년쉼터의 보호기간에 관하여 현실 및 실무자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이 서로 다르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쉼터들이 일시보호만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일시/단기/중기/장기보호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보호기간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소년쉼터가 일시보호만 하고, 중장기보호만 전담하는 기관을 따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가출청소년 보호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현재 가출청소년쉼터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가출청소년쉼터들은 문화관광부나 시청에서 요구하는 일시보호와 일시보호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의 부족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쉼터 실무자들은 일시보호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

에 일시/단기/중기/장기 보호를 모두 하고 있으며, 부모 및 학교에서 의뢰된 청소년들을 보호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의 의견은 단순가출청소년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 일시보호를 통해 귀가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일시쉼터가 필요하며, 반면에 만성적인 가출청소년이나 가정형편상 귀가가 어려운 청소년들은 중장기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하되 전문적인 치료개입에 의거하여 의, 식, 주, 의료, 교육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일시보호와는 다른 틀을 갖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시보호 가출청소년쉼터는 원칙적으로 일시보호만을 하도록 하고, 귀가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며, 꼭 필요한 경우 성공회 나눔의집 쉼터와 같이 중기보호만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의 규모가 가능하다면 일시보호와 중장기보호를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시와 중장기는 구분되어야 한다.

실무자들과 전문가들 모두 청소년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성별로 분리해서 보호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성별로 분리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같은 지역에 남자 청소년쉼터와 여자 청소년쉼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성별의 구분이 없이 모든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해주어야 하지만 실제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별의 구분에 따른 쉼터가 제시되고 있고 최근에 문을 연 쉼터들도 성별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공공 가출청소년쉼터가 하나 밖에 없을 때 성별이 다른 가출청소년은 입소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가출청소년쉼터에 성별을 구분하여 입소시키려면 그 지역에 최소한 두 군데의 가출청소년쉼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성문화된 생활수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쉼터 규칙은 구속과 통제를 위한 규칙이 아니라, 입소자들 모두의 행복과 생활지도를 위한 최소한의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활수칙의 원칙과 내용을 직원과 입소자들이 인지하고 그러한 생활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직원과 입소자가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YMCA 청소년쉼터의 경우 그 동안 이용자의 개인생활의 중시와 규제가 적은 자발적인 생활을 모색하였으나 방치의 느낌도 없지 않았다. 어느 정도의 ‘생활규칙’이 필요하고 이를 생활화하는 과정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동의에 의한 규칙 제시가 필요하다. 부산광역시 쉼터의 예를 보면 쉼터의 짜여진 프로그램에 이용청소년들이 따라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 경우도 청소년들의 불만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쉼터를 찾아오는 청소년들은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시하여 이들에게 가능한 규칙제시가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입소, 상담, 생활, 퇴소 등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와 예절을 갖추도록 한다. 입소시에 개인별로 서약서를 받고,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퇴소 혹은 전원조치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입소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입소시켜서는 안되고, 비행한 경우에는 경찰서 보호소에 입소하도록 해서 양 기관의 기능을 차별화해야 한다.

상담은 가출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부모 및 가족을 포함한다. 가정
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혼자만 바뀌어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다. 가족 특히 부모가 변해야 하고, 가족간의 상호작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일시보호와 중장기보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상담이다. 많은 가출청소년들이 가정 및 학교생활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출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정, 학교 및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나아가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과 프로그램에 부모를 포함시켜야 가출청소년들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절실하지만 현재 가족상담이나 가족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기보호에서는 가족서비스의 제공이 힘들기 때문에 쉼터의 기본 취지에 적합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4) 가출청소년쉼터 프로그램들

우선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 일정표를 작성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속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일정표는 그대로 시행이 되지 않더라도 직원과 입소자의 생활에 목표와 긴장감을 제공한다.

각 쉼터마다 아침부터 취침전까지 시행하는 프로그램 일정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어, 일정표가 전시용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현실성있는 일정표를 짜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 일정표를 입소청소년의 현재 상황에 적합하게 고쳐나가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일시보호, 상담활동 외에도 사회교육활동, 문화활동, 지역사회활동, 비행예방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만 있다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많은 프로그램은 오히려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YMCA 쉼터의 경우 위에 언급된 내용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쉼터운영 초기에 준비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실시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하였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몇 가지 프로그램이

라도 내실 있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덧붙여 가능하면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기관운동을 폐쇄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상담-교육프로그램은 가출청소년에게만 실시하고, 여가활동프로그램 등 일부는 개방하는 것도 한 대안이다. 프로그램의 참가대상을 가출청소년에만 국한하는 경우 시설의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될 수 있다. 쉼터는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누구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들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청소년과 주민들에게도 프로그램을 개방하여 쉼터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야한다. 다음은 가출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 생활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인간관계훈련, 소비교육, 성교육 등을 지도함
- 여가지도 프로그램: 낮시간 동안에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간단한 운동, 산책, 기관방문, 스포츠시설의 활용 등
- 간단한 성교육, 비행예방교육, 인간관계훈련 등이 필요함
- 귀가후 재학했던 학교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은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
-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진로지도프로그램이 강조되어야 한다. 주기별로 현장을 방문하거나, 가출청소년을 관련 희망하는 업종의 종사자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 등이 필요하다.
-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 가출청소년들은 자기 비하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가정,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비판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되고, 자기 존중감을 갖게 된다면 쉼터를 나가 가정 및 학교생활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약물중독 예방 교육: 가출청소년들은 본드, 부탄가스, 술, 담배 등의 약물에 쉽게 노출된다. 이러한 약물의 위험을 알려주고, 또 이러한 약물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교에서 가출학생이나 비행학생에게 프로그램을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출학생들이나 비행학생이 쉼터에 와서 학교 및 부모의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모들도 문제자녀의 생활지도를 쉼터에 의뢰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부모교육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많은 가출청소년쉼터에서는 학교 및 부모의 의뢰를 받아서 가출 및 문제청소년에 대한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가출학생들에 대해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교무실 등에서 벌을 서는 것과 근신, 정학 등의 단순처벌 형식의 방법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쉼터에서 가출학생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가출에서 복귀했을 때는 유기정학 등 처벌기간동안 반성문을 쓰는 대신에 가출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가출은 가정의 부모에 더 큰 이유가 있으므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출학생 및 그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서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가출청소년 쉼터나 청소년상담실과 같은 기관에서 정규적으로 실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많은 학교에서 학교에 나오기 싫어하거나, 한두 번의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들 그리고 비교적 무거운 징계를 받은 청소년을 적극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징계기간중 학교 대신 청소년쉼터에 와서 4-5일 동안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활동이다. 상습

적인 가출을 하거나 가출충동을 갖고 있는 청소년과 그 외의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가출청소년이 퇴소한 후에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가정방문, 서신, 전화, 정기모임, 개별/가족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등 사후지도로 하여 비행을 예방하고 변화가 지속적인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출청소년들이 쉼터를 나갔을지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가정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고, 또 가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사후관리는 가출청소년들이 쉼터를 나간 후에도 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거나 가출청소년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다. 귀가조치만으로 사례를 종결짓지 말고, 사후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기타 참고사항

가출청소년쉼터는 무엇보다도 쉼터를 운영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열의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동상담소와 같이 공무원에 맡기기보다는 뜻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성인의 연령에 가까운 청소년들의 시민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보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는 꼭 필요한 서비스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의욕이 지나쳐서 죄가 없는 청소년을 강제로 구금하거나, 사생활을 지나치게 규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VI. 결 론

이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출청소년쉼터의 운영실태와 가출청소년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욕구를 조사하여 가출청소년쉼터의 바람직한 운영모델을 개발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결과 나타난 가출청소년쉼터의 운영실태와 가출청소년의 욕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청소년쉼터의 시설에 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치에 관해 살펴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의 대부분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 찾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경우에도 시설임대료나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 때문에 지하철역으로부터 도보로 10분 내지 15분 정도 떨어져 있고 주변에 주목할 만한 지형지물이 거의 없어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주변환경에 관해 살펴보면, 주택가와 상업지역, 유흥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환경들은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는 청소년들이 안정을 취하고 쉬기에는 적절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민원의 우려가 있다. 상업지역은 주변이 어수선하기는 하나 저녁에는 사람들이 없어 청소년들이 맘껏 떠들 수가 있다. 유흥지역은 주거환경으로서는 매우 나쁘지만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장점이 있다. 내부공간에 관해 살펴보면, 숙실만을 갖춘 곳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실을 갖춘 곳까지 다양했으나 숙실2개에 상담실과 사무실, 거실이나 프로그램실을 갖춘 곳이 평균이라고 보인다. 설비 및 소모품 지급에 관해서는 쉼터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VTR, 컴퓨터, 비디오테이프, 도서 등 여러 가지 교육기자재와 놀이기구, 운동기구를 갖춘 곳도 있었으나 TV 외에는 아무런 오락기구가 없는 곳도 있었다. 소모품에 있어서는 위생용품의 지급은 차이가 없으나 옷의 경우 여벌의 옷을 준비해 지급하는 곳도 있고 속옷만을 지급하는 곳도 있었다.

둘째, 가출청소년쉼터의 시설에 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원의 수에 관해 살펴보면 기관마다 큰 차이가 있었다. 순수하게 민간의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쉼터의 경우 자원봉사자 한 명이 24시간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의 지원의 받고 있는 쉼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할 텐데 기관마다 큰 차이가 있었다. 직원이 3명 뿐인 곳도 많았고, 가장 많은 곳은 11명이었다. 직원의 자격은 순수민간 쉼터의 경우 천차만별이나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쉼터의 경우 공통적으로 대학에서 사회복지나 상담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사회복지 전공자에 치우쳐있는 감이 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순수민간 쉼터의 경우 자원봉사의 차원에서 약간의 사례만을 받는 곳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지원을 받는 쉼터간에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기관인 청소년상담실과 비교할 때 약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출청소년쉼터의 재원에 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지원을 받는 쉼터의 재원은 국가보조금, 지방비, 자체부담으로 나누어 지는데 주로 지방비의 비중이 가장 높다. 순수 민간쉼터는 물론이고 정부지원을 받는 쉼터 중에도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는 곳이 많아 대부분 후원금을 통한 자체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째, 가출청소년쉼터의 가출청소년 보호활동에 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호기간에 관해 살펴보면, 일시보호만을 하고 있는 쉼터는 없었다.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보호에 대한 가출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수요나 요구가 없다는 것이다. 수용정원 10명의 가출청소년쉼터에서 일시보호만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1-2명의 가출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거나, 거리상담이나 안전장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입소해야만 한다. 하지만 아직 일시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입소하는 곳은 없었다. 가출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밀집지역에 가출청소년쉼터가 위치해야 하는데, 그러한 장소는 입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장소를 벌리기가 어렵다. 쉼터의 위치가 한적한 곳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중장기 보호를 위주로 하게 되어 버린다. 수용청소년의 성별은 13개 시설 중에서 2군데 만이 남녀 청소년을 함께 입소시키고 있고 나머지는 성별을 구분해 남자나 여자만을 수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쉼터 생활수칙을 가지고 있었다. 입소청소년들과 쉼터 직원들간에 제일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은 바로 생활지도 및 규칙의 적용 문제이다. 아이들은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고, 직원들은 시설 내의 질서유지와 아이들의 교육 및 생활지도를 위해서 통제 및 규칙을 적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에 관해 살펴보면, 모든 쉼터들이 1주에서 4주까지의 일정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일정표를 그대로 실행하는 쉼터는 거의 없었다. 많은 쉼터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따라 프로그램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프로그램 일정표는 그대로 실행되지는 않지만 쉼터 직원과 청소년에게 생활의 목표와 긴장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대개는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입소시기나 연령, 능력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학교에서 의뢰받은 문제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일정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쉼터의 프로그램이 너무 일률적이며, 프로그램이나 사업내용을 지역특성이나 쉼터의 상황에 맞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섯째, 가출청소년쉼터의 학교 및 부모의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많은 가출청소년쉼터들이 학교 및 부모의 의뢰를 받아 문제청소년을 입소시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청소년쉼터의 경우 전체 입소청소년 중 학교의뢰가 52%, 부모의뢰가 19.3%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청소년쉼터의 경우 학교의뢰가 47%, 부모의뢰가 44%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의 경우 학교의

뢰가 30% 정도라고 한다. 구로지역 청소년쉼터도 학교와 연계를 통하여 가출 및 비행청소년들을 입소시켜 생활지도 및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많은 쉼터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쉼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표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은 쉼터에서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많은 청소년쉼터들이 가정집 형태의 그룹홈 형태에서 일반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또한 가출청소년쉼터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여섯째, 가출청소년쉼터의 홍보·협력활동에 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홍보방법으로 생활정보지, 벚룩시장, 지역정보, 구민일보, 반사회 등을 이용하고 있고, 학교 및 관련기관에는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출청소년도 생활정보지를 보기 때문에 특히 생활정보지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입소자 확보를 위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주민으로부터 쉼터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역주민 중에는 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의 수용시설’로 인식하고 쉼터를 기피하거나 지역이미지를 손상한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 특히 이곳을 드나드는 청소년들로 인해 자신들의 자녀가 나쁜 영향을 받거나 앓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는 쉼터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입소자 확보를 위한 홍보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지역주민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은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협력활동에 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청소년쉼터들이 학교, 부모(보호자), 아동상담소, 경찰서, 파출소, 구청 아동복지과 등을 통하여 보호청소년들을 의뢰받고 있다. 하지만 위탁 단체 안에 청소년 장기보호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쉼터들은 장기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의뢰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쉼

터에서 장기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의뢰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전문화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운영모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청소년쉼터의 바람직한 시설모델은 다음과 같다. 적합한 위치는 가출청소년이 밀집하는 지역으로써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인 경우 이러한 유흥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가능한 지하철역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중기보호를 위한 쉼터인 경우는 이러한 지역과 인접한 곳으로 주거지역이 적합하다. 가출청소년쉼터로서 적합한 건물형태와 규모는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인 경우 지역문화공간이 있는 건물이나 상가건물의 형태로 건평 100평 규모가 적절하다. 단기·중기보호를 위한 쉼터인 경우는 단독주택이고 대지 100평에 건평 80평 정도의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가 적절하다. 가출청소년쉼터의 내부공간은 업무공간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어야 한다.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인 경우 지역청소년센터로서의 기능을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문화공간에 비중을 두고, 단기·중기보호를 위한 쉼터인 경우는 휴식공간과 학습공간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침실은 온돌방의 형태가 적합하고, 가능한 적은 인원이 지내게 하여 사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출청소년쉼터에 필요한 설비로는 단기·중기보호를 위한 쉼터인 경우는 사무용품, 상담용품, 교육용품, 여가용품, 생활용품, 운동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과 교육용 기자재이다.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인 경우는 이러한 설비에 지역청소년문화활동을 위한 기자재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가출청소년쉼터의 바람직한 인력모델은 다음과 같다. 가출청소년쉼터의 조직은 책임자 이하 수평구조가 적절하다. 실무자는 단기·중기보호쉼터인 경우 보호 및 생활지도 2명, 상담 및 교육 2명, 일용직 1명 등 3~5명이 필요하고, 정규직원 중 1~2명이 야간생활지도를 담당해야 한

다. 일시보호쉼터의 경우 여기에 지역사회문화프로그램 담당직원이 추가되어 4-7명이 필요하다. 직원의 자격은 일용직 외에는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관련전공자 등을 임용해야 한다. 야간생활 지도담당은 수용대상 청소년의 성별과 일치되어야 있다. 가출청소년쉼터의 담당업무와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책임자와 일반직원은 출퇴근을 하면서 상담과 교육, 행정업무를 맡고, 야간생활지도직원은 야간에 숙식을 하면서 청소년의 생활지도를 담당한다. 소장과 일반직원은 일주일에 1-2회 정도 숙식을 하여 생활지도 담당의 휴일업무를 대체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한다.

셋째, 가출청소년쉼터의 바람직한 재정모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건비에 관해 살펴보면, 일용직을 제외한 쉼터의 나머지 직원은 적어도 대학졸업자 이상이어야 실무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며, 따라서 이들의 급여는 사회복지사 급여에 준하고 업무 내용에 따른 수당지급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많은 쉼터들이 재정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다. 예산의 증액이 요구된다. 기존에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작은 쉼터가 여러 곳에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쉼터 직원들의 노력으로 후원자를 확보하여 후원을 받았을 때 그것이 쉼터직원과 가출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대부분 쓰일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청소년쉼터는 하나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뿐 청소년기본법상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시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가 앞으로도 계속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출청소년쉼터 사업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가출청소년쉼터의 바람직한 사업모델은 다음과 같다. 가출청소년쉼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원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가출청소년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청소년, 그들의 가족, 학교 교사, 경찰관, 관련전문가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쉼터에 와서 가출청소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들이 자주 배회하는 지역에서 실무자나 자원봉사자가 이들을 찾아나서는 가출청소년 찾아나서기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안전장소 설치에 유용업소나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주인과 협력해 갈 곳이 없는 청소년이 있는 경우 그들을 연결해주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홍보와 협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가출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따라 이를 의뢰할 수 있는 가출청소년관련 기관간의 연계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입소가출청소년이 많을 때에는 다른 쉼터에 의뢰하고, 입소가출청소년이 없을 때에는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간에도 상호협조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수용대상 청소년의 경우 입소시 간단한 intake 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쉼터에서 알고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양식을 만들어 입소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출청소년쉼터의 보호기간에 관하여 현실 및 실무자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이 서로 다르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쉼터들이 일시보호만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일시/단기/중기/장기보호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보호기간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소년쉼터가 일시보호만 하고, 중장기보호만 전담하는 기관을 따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실무자들과 전문가들 모두 청소년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성별로 분리해서 보호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성별로 분리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같은 지역에 남자 청소년쉼터와 여자 청소년쉼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문화된 생활수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쉼터 규칙은 구속과 통제를 위한 규칙이 아니라, 입소자들 모두의 행복과 생활지도를 위한 최소한의 것이 되어야 한다.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 일정표를 작성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

라 계속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출청소년이 퇴소한 후에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가정방문, 서신, 전화, 정기모임, 개별/가족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등 사후지도를 하여 비행을 예방하고 변화가 지속적인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개발된 가출청소년쉼터의 모델에 따라 개별적인 쉼터가 설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가출청소년들이 쉼터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출청소년쉼터가 전국적으로 적정한 위치에 골고루 설립되고 이들 가출청소년쉼터가 조직적인 연계망을 구축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각 광역시마다 1개 이상의 청소년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있고, 서울에 2개소, 대전의 1개소가 올해 문을 열었으며, 올해 안으로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에 가출청소년쉼터가 설립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02년까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소년상담실과 마찬가지로 14개의 시·도에 청소년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청소년쉼터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도시 내에서도 쉼터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문제는 주로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특정한 한 개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역시의 경우 한 두개의 쉼터로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경우 구에서 지원하는 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쉼터의 전문적인 운영체제가 확립되려면 이상 문화관광부에서 설립·지원하고 있는 쉼터 및 설립 예정 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상담실 및 아동상담소 등 여러 상담기관과의 연계체제가 구축되어 가출청소년이 빠르게 쉼터로 연결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연계망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및 사회단체는 ‘가출청소년쉼터관련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상담기관은 가출청소년 발생시 적절한 쉼터에 인

계하고, 쉼터끼리도 수용인원이 넘칠 경우 타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안할 것은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관련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첫째, 이상 전국적인 가출청소년쉼터 수급계획의 효율적 수행과 쉼터설립에 적절한 위치 선정이나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쉼터가 설립되어야 할 14개 시·도 및 광역시 내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 청소년들의 가출충동이나 가출청소년쉼터에 대한 욕구 등 수요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출청소년쉼터에 관한 지역 내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영모델은 쉼터의 일반적인 운영방안이므로 새로 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초 조사와 연구를 통해 쉼터를 설립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절한 규모나 위치 선정이 이루어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외에도 교정시설에서 나온 비행청소년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회적응을 위해 머무를 중간처우 시설인 ‘중간의 집(halfway-house)’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도 소규모의 교호시설이 있으나 그 숫자가 적고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러한 중간처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병상(1996). 가출을 꿈꾸는 아이들. 서울: 이서원.
- 고성혜·전명기·박창남·이희길(1997). 청소년문제행동의 이해와 지도.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성경(1997).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지(1995). 가출청소년의 삶과 문화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향초(1998). 청소년 가출의 이해. 서울: 학지사.
- 나동석·이용교 역(1991). 가출청소년연구. Albert R. Roberts 저.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대한성공회 청소년쉼터(1996). 가출청소년을 위한 치료적 보호센터로서의 청소년쉼터 사례연구. 서울: 대한성공회나눔의집
- 대한성공회(1998). 신림지역 청소년쉼터 운영계획(안).
- 문화체육부(1997). 청소년백서. 정부간행물.
- 박용철(1998). 요보호아동 그룹홈의 실제와 과제. 분야별 그룹홈의 활성화 방안(pp. 49-68). 사회복지그룹홈세미나 자료집.
- 서울 YMCA(1991). 청소년가출에 대한 심포지움 II -가출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다. 서울YMCA 연구보고서.
- 서울 YMCA(1992). 청소년 쉼터 운영지침서. 서울 YMCA청소년 자료집.
- 서울 YMCA(1995). 외국가출청소년 연구자료집.
- 서울 YMCA(1995). 청소년쉼터 리포트. 서울YMCA 연구보고서.
- 서울 YMCA·문화체육부(1996). 청소년쉼터 운영보고서-서로도우며 성장하는 우리. 서울YMCA 보고서.

- 서울 YMCA청소년쉼터(1991, 1996). 청소년가출에 대한 설문조사보고서.
서울YMCA 연구보고서.
- 서울YMCA청소년쉼터(1997). 서울YMCA청소년쉼터 리포트 II. 서울: 서울
YMCA청소년쉼터.
-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 협의회(1994). 청소년 가출 어떻게 할 것인
가. 제9회청소년상담세미나 자료집.
-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7).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연구보고서.
-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1998). 동부아동상담소 사업현황. 서울: 서울특
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
- 충정부(1987). 청소년의 가출원인과 대책. 청협 제 11권 제 4호.
- 안창규·문선화·전윤식(1995). 가출청소년과 학교관리체제. 서울: 집문당.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엄명용(1995). 청소년가출의 현황과 예방대책. 여의도 정책논단. pp.
132-142.
- 엄명용(1996). 청소년가출예방을 위한 가족 및 지역복지서비스 모형. 한국
사회복지학 29.
- 이용교(1992). 가출. 한국청소년연구원 편저. 청소년문제론.
- 이용교(1993).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서울: 은평천사원출판부.
- 이용교(1995). 청소년복지 서비스 기관의 협력방안 모색. 서울 YMCA. 청
소년을 돕는 사회적지지망 형성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pp. 63-76.
- 이용교(1996). 청소년가출, 밥먹듯 집나가는 아이들. 서울:예향.
- 장수환(1993).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한 청소년 가출의 원인과 대책. 부산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인협(1982). 청소년비행과 가출. 아산, 16
- 전유자(1982). 한국청소년의 가출에 대한 연구. 이화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청소년보호위원회(1998). 유해업소의 미성년자 불법고용 및 출입근절 대책. 회의자료.
- 표갑수(1980). 아동의 가출원인에 관한 연구: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중앙대학교
- 표갑수(1993). 청소년 가출의 원인과 현황. 서울 가정법원 자원보호자협회 제 8회 청소년상담 세미나자료집, pp.15-40.
- 한국여성개발원(1993). 윤락여성의 사회복지권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청소년 관계법과 행정.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연구원(1992a). 청소년가출의 예방과 대처방안-가출청소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 한국청소년연구원(1992b). 청소년문제론.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 청소년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함영희(1996). “한국미혼모의 현황”, 한국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서울시 부녀복지연합세미나 자료집.

일본문헌

- 菊地和典(1994). 少年保護事件の手引. 東京: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 寺山修司(1993). ドキュメンタリー家出. 東京: 河出書房新社.
- 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1997). 青少年白書. 東京: 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

영미문헌

- Abrahams, C., and Mungall, R.(1992). Runaways: Exploding the myths. NCH Action For Children.
- Bass, Deborah S. (1992). *Helping vulnerable youths: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Bradley, Jon (1997) *Runaway youth: Stress,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Children of poverty)*. Garland Pub.
- Brennan, T., Blanchard, F., Huizinga, D., Elliott, D.(1975). The Incidence and nature of runaway behavior - final report. Behavioral Research and Evaluation Corporation.
- Empey, L. T ., and Stafford, M. C(1982). *American delinquency-Its meaning & construction*.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Homer, L. E. (1973). Community-based resource for runaway girls. *Social Casework*, 54(8). pp. 13-19.
- Kahn, A.J.(1973). Social policy and social services. NY: Russell Sage Foundation.
- Kipke, M. D., Palmer, R. F., Lafranxe, S., and O'connor S. (1997). Homeless youths' descriptions of their parents' child-rearing practices. *Youth & Society*, Vol 28 No. 4, pp. 415-431.
- Miller, Dorothy, Miller, Donald, Hoffman, & Dggan(1980). Runaways-illgal aliens in their own land: Implications for services. NY:Fraeger.
- New York (1980) *Runaways, illegal aliens in their own land: Implications for service*. Praeger Pub Text.
- Newman, C.(1989). Young runaways: Findings from Britain's first safe house. The Children's Society.
- Rees, G.(1993). Hidden truths: Young people's experiences of running away. The Children's Society.
- Roberts, A.R.(1987). Runaways and non-runaways. Chicago: The Dorsey Press.

- Stumphauzer, J. S (1986). *Helping Delinquents Change-A treatment manual of social learning approaches*. New York: The Haworth Press.
- Switzer, Ellen (1992). *Anyplace but here: Young, alone, and homeless: What to do*. Atheneum.
- Terrell, N. E (1997). Street life: Aggravated and sexual assaults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Youth & Society, Vol 28 No. 3*, pp. 267-290.
- Webber, Marlene (1991). *Street kids: The tragedy of canada's runaway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Welsh, L.A., Francis, X. A., Janus, M.D., & Brown, S.W.(1995). *Running for their lives*. NY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 Whitmer, Barbara (1997). *The violence mytho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독일문헌

- DJI Bulletin(1995), *Strassenkinder*. Heft 35.Nov. München: DJI Verlag
- Jordan, E/Trauernicht, G.(1981). *Ausreisser und Trebergänger. Grenzsituationen sozialpädagogischen Handelns*. München: IKO Verlag
- Jogschies, P.(1997), *Die Lebenswelt von Strassenkindern in Deutschland -Überlegungen und Erkenntnisse im Verlauf eines Forschungsprojektes*, In Adick, C.(Hg.)(1998). *Strassenkinder und Kinderarbeit*, (pp.193-209). Frankfurt: IKO-Verlag
- Seidel, M.H.(1994). *Strassenkinder in Deutschland. Schicksale, die es nicht geben dürfte*. Frankfurt/M., Berlin.

ABSTRACT

A Study to develop the Model for Youth Shel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model for youth shelter. For this purpose, previous studies about runaway youths and youth shelter were reviewed.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survey form was made and administered to 19 facilities for runaway youths including 12 youth shelters, 5 youth group homes and 2 youth counseling facilities. Researchers visited the facilities for runaway youths and interviewed the staffs and runaway youths. Researchers also sought for the advice of experts. As a result of above efforts, researchers made a model about equipment, personnel, finance and program of short-term youth shelter(where runaway youths can stay 2 weeks) and mid-term youth shelter(where runaway youths can stay 6 months). Several points from the model are as below.

First, the proper location of short-term youth shelter is the place nearby subway, where many youths meet together, not gay quarters but commercial places. The proper location of mid-term youth shelter for runaway youths is the residential districts.

Second, the proper number of staffs for mid-term youth shelter is five or six : The head of youth shelter, one or two staffs for education and counseling, one or two staffs to take care of youths and one staff to take care of the chores.

Short-term youth shelter needs one or two more staffs (in addition to five or six staffs) who manage cultural programs for community youths.

Third, the salary of the staffs should be the same label with social workers. More financial support to youth shelters from government is required because the financial conditions of many youth shelters are too poor. The law should be made for the stable financial support to youth shelters.

Fourth, mid-term youth shelter supply a safe, non-threatening environment and counseling service for runaway youths as essential services. Short-term youth shelter should offer not only the service of mid-term youth shelter, but also cultural programs for community youths.

Fifth, in order to supply the proper service for runaway youths, it is important to have youth shelters all over the nation evenly, and make service network among runaway-youth-related facilities to co-operate together and advertise it to the youth-related organizations.

